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09. 7 Vol. 211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51회 정기연주회

2009 부산연주인시리즈Ⅲ

아테르베리의

West Coast Pictures



지휘
이동신



피아노
황성훈



작곡
최석태



쿠르트 아테르베리
Kurt Atterberg
(1887-1974)

최석태 | 「인생」

모차르트 | 피아노 협주곡 제9번 「쥬놈」

아테르베리 | 교향곡 제3번 「서부 해안의 풍경」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2009. 7. 9 오후 목요일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후원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4 www.bsculture.busan.kr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607-3100

입장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예매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부산은행 전지점

한국 기악 최고 스타들의 눈부신 앙상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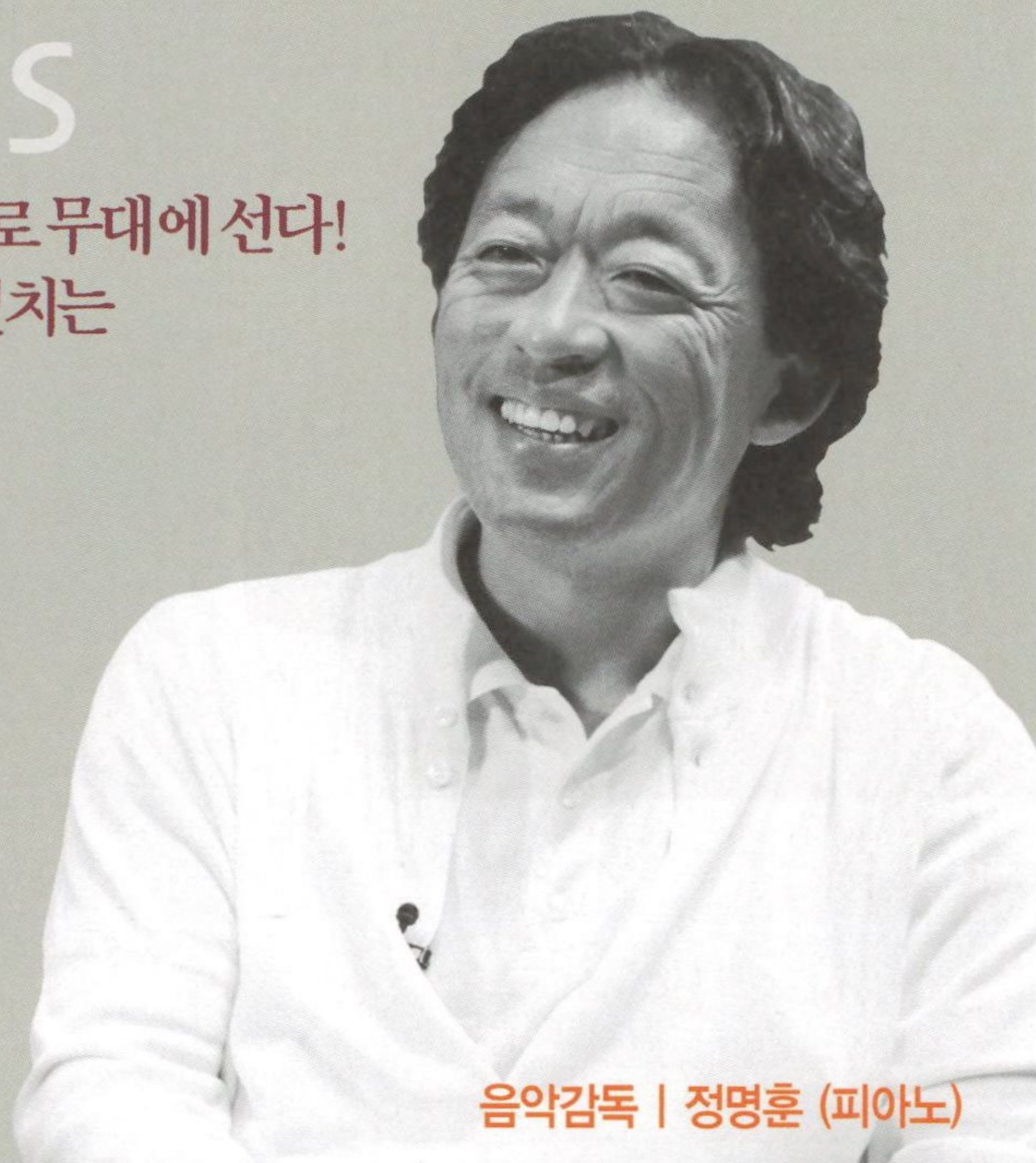
7인의 음악인들

피아노 | 정명훈, 김선욱 바이올린 | 이유라, 김수연 첼로 | 양성원, 송영훈 비올라 | 최은식

Seven Stars

세계가 사랑하는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올 여름 피아니스트로 무대에 선다!
그가 선택한 6명의 한국 최고의 연주자들과 함께 100분간 펼쳐는
<7인의 음악인들> 부산공연!
그 흔치 않은 감동의 무대를 놓치지 마십시오!!

2009년 8월 23일 (일) 오후 7시 **KBS부산홀**



음악감독 | 정명훈 (피아노)

PROGRAM

Schubert/ String Quartet No.12 in c minor, D.703

슈베르트/ 현악4중주 제12번 다단조

Dvorak/Dou for Piano

드볼작/ 피아노 듀오

Shostakovich/ Piano Trio No.2 in e minor, Op.67

쇼스타코비치/ 피아노3중주 제2번 마단조 작품번호 67

Schumann/ Piano Quintet in Eb Major, Op.44

슈만/ 피아노5중주 내림마장조 작품번호 44



Vc. 송영훈

Vc. 양성원

Va. 최은식

Vn. 김수연

Vn. 이유라

Pf. 김선욱

주 최/ 부산아트매니지먼트 (051)747-1536


협 찬/ 강동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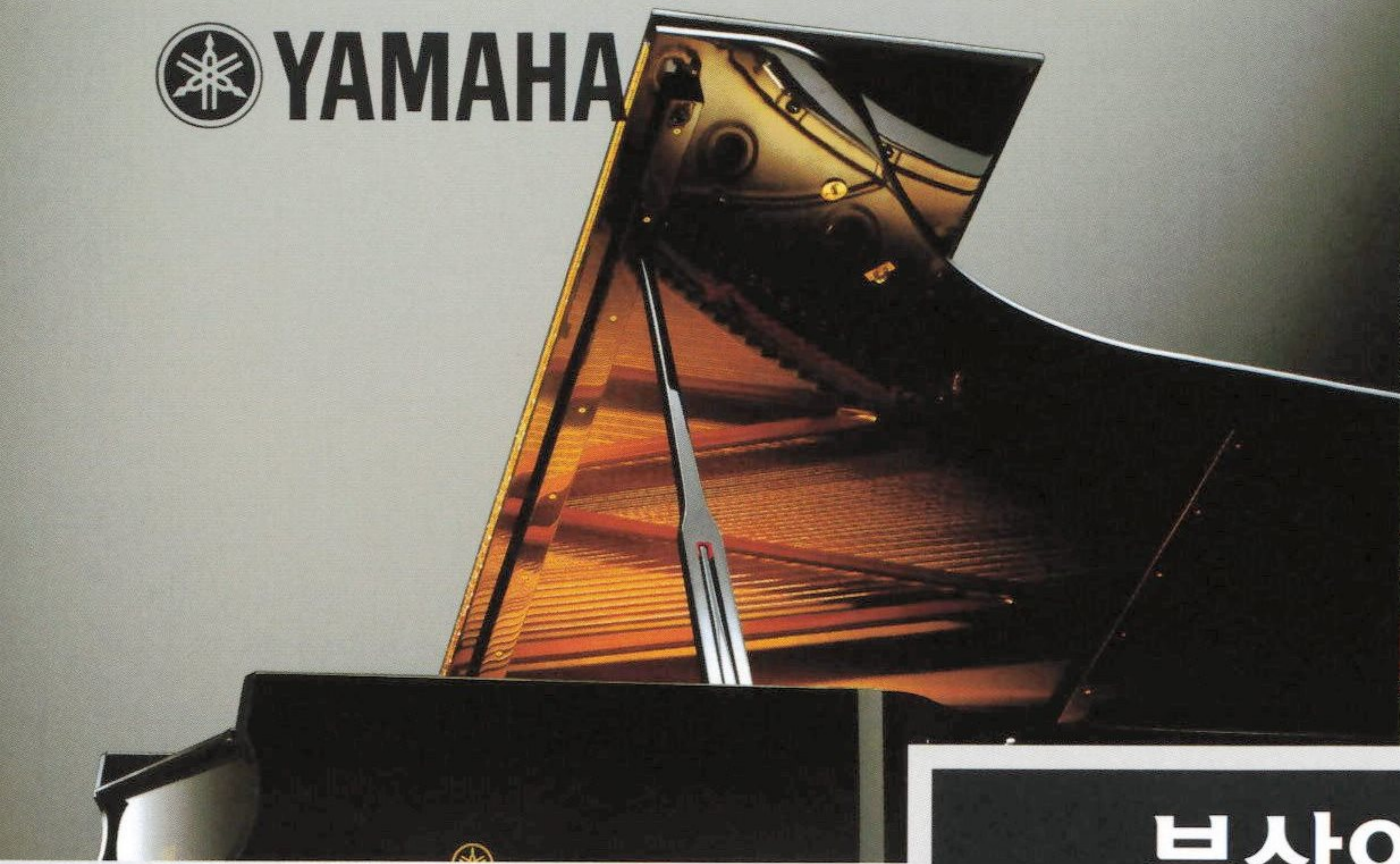
예매처/ 인터파크 1544-1555, 티켓링크 1588-7890, 부산은행 전지점

VIP석 12만원 · R석 10만원 · S석 8만원 · A석 6만원 · B석 4만원

음악회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 (051)747-1536 www.busanarts.com

(KBS홀 무대는 클래식 공연에 필요한 최적의 음향환경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YAMAHA



부산야마하
피아노/악기
**전문
판매점**



학교, 교회, 전공자 특별 우대 및 중고피아노 보상판매

피아노 조율 전문점

- 국가공인 1급 피아노 조율사의 집
- 일본 YAMAHA본사(하마마츠)조율학교 수석졸업
- 제 5회 부산국제음악제 공식 지정업체

야마하 피아노사 부산점	051-863-0900
메가마트 피아노사 남천점(4F)	051-622-0815
메가마트 피아노사 동래점(3F)	051-582-0808
사직동 홈플러스 피아노사	051-506-7332
해운대 홈플러스 피아노사(수영만)	051-743-7785
해운대 야마하 뮤직스쿨	051-741-7744

유·쾌·한·사·랑·의·메·신·저



세빌리아의 이발사

오페라
The Barber of Seville

2009. 7. 24(금) ~ 25(토)
오후 7:30 오후 3:00,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R석 50,000원 | 30,000원 | A석 20,000원 | B석 10,000원

| 공연안내·예매 | (051) 610-1004 www.grandopera.or.kr

| 주최 | 그랜드오페라단

삼성카드

| 협찬 | KYOBO 교보생명 상지 E&A 엔지니어링

학교대동병원

SERIM TTC (주)거성 ENG건축사사무소 KYUNG KEE COLOR CO., LTD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2009. **8.18** (화) 오전 **11시** /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피아노 김혜린

모차르트

교향곡 제40번, 제1악장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 제1악장

림스키-코르사코프 교향적 모음곡 「세헤라자데」, 제3, 4곡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주최 부산광역시

후원 THE DAILY FOCUS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4 www.bsculture.busan.kr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607-3100

입장권 균일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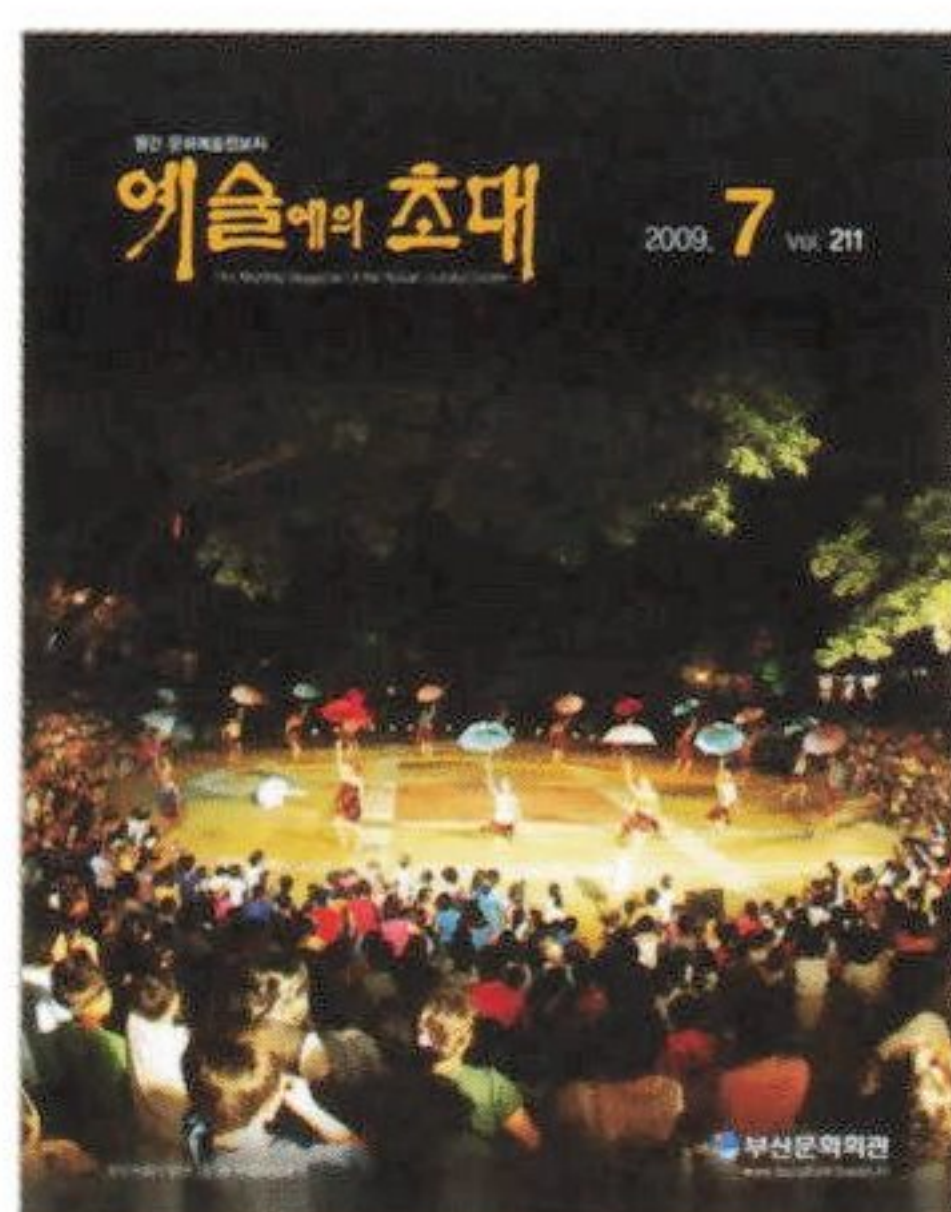
※정기회원 1인 4매까지 20% 할인
(단, 홍보마케팅부 전화예약 후 입금 회원에 한함)

예매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BS 부산은행 전지점



- 10 커버스토리 _ 부산시립무용단 2009 여름마당춤판 '별주부전'
- 12 프리뷰
- 16 반갑습니다 _ 부산상공회의소 신정택 회장
- 18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_ 우연과 필연 · 이재걸
- 22 행복한 오페라 여행 _ 주세페 베르디 이탈리아 오페라의 대가 · 김홍승
- 24 생활속의 판화이야기 _ 라틴미술의 진주, 인디오 타마요 · 채경혜
- 26 불멸의 거장, 말러 _ 말러의 음악이 흐르는 영화 · 김문경
- 27 황윤기의 월드뮤직 여행 _ 그리스Ⅲ 그리스의 음악가들(1) · 황윤기
- 28 리뷰 _ 부산시립교향악단 2009 웰빙콘서트 시리즈 Ⅲ '푸치니의 여인들' · 김창욱
지역방송과 지역문화 · 남인용
- 30 그곳에 가면 _ 세계 최초 오리 테마박물관 '양산오리박물관'
- 32 프로그램 가이드
- 44 우리는 문화가족 _ 파피루스 아침 독서회
- 45 나의 애청음반 _ 칩 코리아(CHICK COREA) & 게리 버튼(GARY BURTON)
IN CONCERT · 김중옥
- 46 새로 나온 음반
- 47 새로 나온 책
- 48 부산문화회관 소식
- 52 100자 토크
- 53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54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2009. 7 Vol.211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1(야간) FAX. 051-607-3109

발행인 정우연 편집인 박원철 편집장 백경옥

발행일 2009년 6월 25일

인쇄처 한글그라픽스 TEL. 051-632-7842 FAX. 051-639-0305

표지설명

전통적인 소재를 해학과 신명이 살아있는 마당춤판으로 재구성,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해온 부산시립무용단 여름마당춤판 무대가 7월 23일과 24일 부산문화회관 야외무대에서 펼쳐진다.

2009. **7** JULY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Sunday 일요일

Monday 월요일

Tuesday 화요일

6/28

중 | 인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 제 35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 · 5천원/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627-8088)

6/29

6/30

소 | JY바이올린 클래스연주회 19:30
무료/권진영(010-5551-5221)

05
대 | 금난새와 유라시안 필이 함께하는
Home plus 'Green Concert' 19:30
초대/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02-3473-8744, 010-9114-8432)

06

소 | 이유미 피아노 독주회 19:30
균일 2만원
(주)부암아트(02-391-9631, 010-3459-2160)

07

중 | 제 18회 부산무용제 19:30
1만원 · 5천원/부산무용협회(632-5116)

12

중 | 이민아의 춤 공연 18:00
초대/이민아(010-5051-0242)

13

14

국제회의장

▶ 제 15회 부산서예대전 시상식
7월 25일(토) 오후 2:00
문의 : 한국서예협회 부산지회
(331-0556, 010-3556-2947)

전시실

- ▶ 부산건축대전 - 대전시실
7월 6일(월)~7월 11일(토)
문의 : 이종기(011-9535-0400)
- ▶ 제 10회 국제서예예술연합한국본부 영남
지회전 및 한일교류전 - 중전시실
7월 12일(일)~7월 16일(목)
문의 : 이상원(515-3974, 010-6601-8582)
- ▶ 제 15회 부산서예대전 - 대 · 중전시실
8월 20일(월)~8월 25일(토)
문의 : 한국서예협회 부산지회
(331-0556, 010-3556-2947)
- ▶ 2009 여름방학 시원한 실내체험전
부산문화회관 별내체험교실
'꾸러기 오감여행' - 중전시실
7월 31일(금)~8월 30일(일)
관람시간 : 오전 10:00~오후 7:00
관람료 : 어린이 12,000원 · 성인 1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00원 할인)
문의 : 허브앤드림(1544-9817, 055-338-0737)

19
대 | 2009 IYF아티스트 콘서트 19:00
8만원 · 6만원 · 4만원
국제청소년연합부산지부(624-0852)

20

21
대 | 7월 한낮의 유U; 콘서트-유U; 콘서트와
유럽여행을 11:00
균일 1만5천원/국제신문(500-5222)

26

27
대 | 중남미 문화축전 부산공연 19:30
초대/부산광역시청 국제협력담당관실(888-3531)

소 | 부산시립극단 제 10기 여름 연극교실
10:00, 14:00
부산시립극단(607-3151)

28

소 | 부산시립극단 제 10기 여름 연극교실
10:00, 14:00
부산시립극단(607-3151)

※ 표 공연은 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607-3100)로 예약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www.bsCulture.busan.kr>을 click하세요.

중극장 무대시설 개보수

7월 13일~8월 21일

Wednesday 수요일

Thursday 목요일

Friday 금요일

Saturday 토요일

01

중 | 유나이티드 코리아오케스트라(UKO)
2009 유망 신예 음악회 19:30
초대/정희자(731-4470, 011-589-3111)

02

대 | YMCA 오페라합창단 창단연주회 20:00
초대/YMCA 오페라합창단(070-8261-6209)

중 | 양옥진 첼로 독주회 19:30
균일 1만원/부산아트메니지먼트(747-1536)

03

대 | 제 26회 부산음악콩쿠르 본선 10:00
부산문화방송(760-1125)

중 | 제 26회 부산음악콩쿠르 본선 10:00
부산문화방송(760-1125)

소 | 제 26회 부산음악콩쿠르 본선 10:00
부산문화방송(760-1125)

04

대 | 세계적인 소프라노 박은주
First Concert in Busan 19:30
15만원 · 12만원 · 8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
솔오페라단(1544-9373)

소 |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08

중 | 제 18회 부산무용제 19:30
1만원 · 5천원/부산무용협회(632-5116)

09

대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51회 정기연주회
'2009부산연주인시리즈 III' 아테르베리의
'West Coast Pictures'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4)

중 | 제 18회 부산무용제 19:30
1만원 · 5천원/부산무용협회(632-5116)

10

대 | 뮤지컬 '퀴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19:30 5만원 · 3만원 · 2만원
아지무스오페라단(526-4048, 011-9520-4649)

중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 8회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4)

소 | 정기연주회 19:30
초대/최인화(010-4845-4758)

11

대 | 뮤지컬 '퀴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15:00, 19:00
5만원 · 3만원 · 2만원
아지무스오페라단(526-4048, 011-9520-4649)

중 | 최지은 피아노 독주회 19:30
균일 2만원/예은예술기획(632-6904)

소 | 토요일상설무대-남산놀이마당 '길 곳'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15

16

대 | 부산상공회의소 창립 120주년 기념음악회
'장사익과 친구들' 19:30
초대/부산상공회의소(990-7081)

17

대 | 부산음악콩쿠르 시상식 및 축하연주회 19:00
무료/부산문화방송(760-1125)

18

대 |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팝음악평론가
임진모와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는 POP합창'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3141)

소 | 토요일상설무대-한국무용협회 공연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22

23

야외무대 | 부산시립무용단 2009 여름마당출판
별주부전-용궁으로 간 토끼 20:00
무료/부산시립무용단(607-3131)
※우천시 대극장

24

야외무대 | 부산시립무용단 2009 여름마당출판
별주부전-용궁으로 간 토끼 20:00
무료/부산시립무용단(607-3131)
※우천시 대극장

25

대 | 부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합창단 창단연주회
19:30
균일 1만원
부산극동방송(017-556-4352)

소 | 토요일상설무대-새울전통타악진흥회 연주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29

소 | 부산시립극단 제 10기 여름 연극교실
10:00, 14:00
부산시립극단(607-3151)

30

소 | 부산시립극단 제 10기 여름 연극교실
10:00, 14:00
부산시립극단(607-3151)

31

소 | 부산시립극단 제 10기 여름 연극교실
10:00, 14:00
부산시립극단(607-3151)

8/1

대 |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과천청소년교향악단의 클래식 향연 15:00
초대/과천청소년교향악단(02-507-1498)

소 | 부산시립극단 제 10기 여름 연극교실
10:00, 14:00
부산시립극단(607-3151)

부산시립무용단 2009. 여름마당춤판

벼주부전-용궁으로 간 토끼-



2009년 7월 23일(목)~24일(금)
오후 8:00 부산문화회관 야외무대

(사진은 2008. 여름마당춤판 '장화홍련')

여봐라 주부야 여봐라 주부야
 니가 세상을 간다 허니 무엇허러 가라느냐
 삼대독자 니 아니냐 장탄식명이
 든들 뉘 알뜰히 구원허며
 네 몸이 죽어쳐서 오연의 밤이 된들 뉘라
 손뻐을 두다리며 휘여치
 날려줄 이가 뉘 있드란 말이나
 가지마라 주부야 가지를 말라면 가지마라
 세상이라 허는디는 수중인갑(水中鱗甲)이
 얼른 허면 잡기로만 위주를 헐다
 옛날에 너의 부친도 세상구경을 가시더니
 십리사장 모래속에 속절없이 죽었다
 못가느니라 못가느니라...

찌는 듯한 여름 더위를 날려줄 부산시립무용단 여름마당춤판이 2009년 여름에도 찾아온다. 부산시립무용단의 여름 프로그램으로 사랑받아온 '여름마당춤판'은 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홍기태 안무로 한국의 전통적인 소재를 해학과 신명, 감동이 살아있는 마당춤판으로 재구성, 매년 여름 부산시민들에게 특별한 재미를 선사해왔다.

올해는 7월 23일(목)과 24일(금) 부산문화회관 야외무대에서 흥겨운 여름마당춤판이 펼쳐진다. 부산시립무용단이 2009년 선택한 작품은 우리 고전 별주부전. 별주부전은 인도의 설화에 뿌리를 둔 불전(佛典)설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토착화된 고전소설이다. 병든 용왕의 약으로 쓸 토끼의 간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온 자라가 토끼를 꼬드겨 용궁으로 데리고 가지만 토끼는 꾀를 내어 죽음을 모면하고 살아 돌아온다는 이야기로 조선후기에는 판소리와 소설로도 정착되었다.

특히 올해는 '03 춘향' '04 흥부 vs 놀부' '05 이쁜이 시집가는 날' '06 男 콩쥐 vs 팥쥐' '07 선녀와 나무꾼' '08 장화홍련' 등 고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기존 마당춤판 레퍼토리들과 달리 '별주부전' 전통 설화를 충실하게 살리면서 태평무, 화관무, 교방춤과 풍악, 수영야류, 훈령무 등 우리 춤의 멋과 흥을 더해 관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산해진미와 기생 그리고 용왕의 주색잡기를 그린 '프롤로그-용궁잔치'를 시작으로 1장 '왕의 병', 2장 '누가 토끼의 간을 구해오느냐', 3장 '토끼화상그리기 대회', 4장 '길 떠나는 자라', 5장 '동물들의 장기자랑 춤', 6장 '자라! 토끼를 만나다', 7장 '용궁으로 간 토끼' 등 전체 12장으로 구성, 각 장마다 에피소드와 개성 넘치는 춤사위를 펼친다.

이번 무대에서는 '06 男 콩쥐 vs 팥쥐'에서 주역을 맡은 단원 최의욱이 자라로, 신입단원 김시현이 토끼, 단원 김병주가 용왕으로 출연한다. 특히 수궁가 완창무대를 가진 바 있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소리꾼 박성희가 특별출연, 해학 넘치는 별주부전의 재미를 더해준다.

이번 공연은 유니세프를 후원하기 위한 모금활동과 구호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이들 담은 유니세프 사진전이 함께 열린다.

※ 여름마당춤판은 7월 23일(목)과 24일(금) 부산문화회관 공연에 이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7월 25일(토) 오후 8:00 동래문화회관 야외공연장에서도 공연됩니다.



2008, 여름마당춤판 '장화홍련'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51회 정기연주회
2009 부산연주인시리즈 III

아테르베리의 'West Coast Pictures'

●7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작곡가 아테르베리



지휘 이동신

제 10대 수석지휘자 리 신차오 취임으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 부산시립교향악단이 7월 9일 부산연주인시리즈 3번째 무대로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동신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스웨덴 작곡가 아테르베리의 'West Coast Pictures' 한국 초연무대와 부산연주인시리즈 주인공으로 선정된 작곡가 최석태와 피아니스트 황성훈의 협연 무대로 화려하게 펼쳐진다.

창작곡 교향시 'Das Leben(인생)'으로 첫 무대를 여는 최석태는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에서 디플롬(작곡전공)을 획득했다. 독일 유학중 다름슈타트, 도나우에싱엔 현대음악제 등 크고 작은 음악제에 참가한 최석태는 2007년에는 한국, 터키 수교 50주년 기념으로 터키 안탈리아 국립 교향악단의 위촉곡으로 '아리랑 환상곡 2007'을 터키에서 초연하였으며, 2008년에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독일 연주 및 창단 35주년 기념 위촉곡 '페스티벌 미사'를 독일에서 초연하여 호평을 받았다. 최석태는 현재 부산시립합창단 작곡, 편곡자로 활동하며 향천회, 향신회 이사, 부산작곡가회, 동아시아 작곡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향시 'Das Leben(인생)'은 온갖 욕구에 가득 찬 인간의 모습을

여러 번의 박자와 템포의 변화를 통해 표현한 곡이다.

교향시 'Das Leben(인생)'에 이어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제 9번 내림마장조 '쥬놈므'로 두 번째 무대를 여는 피아니스트 황성훈은 Maria Canals 국제콩쿠르, Epinal 국제콩쿠르, Porto 국제콩쿠르, Jaen 국제콩쿠르, Luis Sigall 국제콩쿠르, Senigallia 국제콩쿠르, Taiwan 국제콩쿠르 등 총 34개의 국제콩쿠르에 입상한 주목받는 피아니스트이다.

황성훈이 들려주는 '쥬놈므'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원숙기의 첫 작품으로, 베토벤 협주곡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협주곡 형식면에 있어 전형을 제시해 상당히 중요한 작품으로 손꼽힌다. 모차르트의 21번째 생일을 맞은 1777년 1월 잘츠부르크에서 작곡된 이 곡은 잘츠부르크를 방문한 프랑스의 젊은 여류 피아니스트 '쥬놈므'를 위해 쓰여졌다고 하며, 전작들을 훨씬 뛰어넘어 규모와 패기, 모든 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부에서는 스웨덴 작곡가 아테르베리의 숨겨진 명곡 '서부해안의 풍경(West Coast Pictures)'를 들려준다. 'West Coast Pictures'는 스웨덴의 부산이라 할 수 있는 예테보리 해안에 펼쳐진 대서양의 아득한 풍경과 역동적인 장면들을 음악으로 담아낸 곡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독일 브라이트코프 & 헤르텔사의 오리지널 악보로 한국 초연된다.

▶ **관람료** _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좌석을 예약하십시오.)

▶ **문의** _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West Coast Pictures



작곡 최석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어느 누구나 고운 심성을 갖고 태어나지만 그 욕심은 끝이 없기에 세상을 살면서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에는 인생을 한번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교향시 'Das Leben(인생)'은 2006년 작곡가 최석태가 자신의 인생철학을 담아 작곡한 작품이다. 곡의 첫 부분은 음정은 달리 하지만 리듬은 각 파트별로 유니즌으로 시작되며 온갖 욕구에 가득 찬 인간의 모습을 여러 번의 박자와 템포의 변화를 통해 표현하고자 했으며 끝 부분은 모든 악기가 C음을 연주함으로써 태어날 때 본연의 심성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다.

독일 유학중 다름슈타트, 도나우에싱엔 현대음악제 등 크고 작은 음악제에 참가하여 음악의 깊이를 몸소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을 보낸 최석태는 1995년 데트몰트 현대음악제에 작품을 출품하여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귀국 이후에도 개인 작곡 발표회(7회)를 비롯한 여러 작곡 단체를 통하여 잇따라 신작을 발표(50여회)함으로써 차세대 역량 있는 작곡가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다.



피아노 황성훈

“다시 부산의 청중과 교감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저의 인생, 저의 이야기를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 들려드릴 수 있어, 저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큰 책임을 느낍니다. 제만이 느끼는 세계가 아닌, 청중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음악을 하고자 합니다.”

7월 9일 부산시립교향악단 협연자로 고향 부산의 음악팬들과 만나는 피아니스트 황성훈은 부산음악콩쿠르 대상, 해외파견 음악협회콩쿠르 1위, 동아음악콩쿠르 2위에 입상하면서 국내 무대를 석권하고 해외무대로 진출, Maria Canals 국제콩쿠르, Epinal 국제콩쿠르, Porto 국제콩쿠르 등 총 34개의 국제콩쿠르에 입상과 9개의 특별상을 거머쥐며 국제적 피아니스트 계열에 들어섰다. 부산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해 실기최고점수로 졸업한 황성훈은 이탈리아 Santa Cecilia 국립음악원을 최고점수인 만점으로 졸업한 후 프랑스 파리 Ecole Normale de musique 음악원을 거쳐 2008년 Hannover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제 18회 부산무용제

●7월 7일~7월 9일 화-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2008년 대상작 강미리홀무용단 '처음 꽃을 사랑한 사람'

부산지역 무용인들의 개성 넘치는 창작의 장이 될 제 18회 부산무용제가 7월 7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막이 오른다.

올해는 경연에 참가한 현대무용단 3개팀, 발레 2개팀과 부산시립무용단의 개막축하공연 '백두대간', 국립부산국악원의 폐막축하공연 '가인전목단', 2008년도 대상 수상팀인 강미리홀무용단의 축하공연 '처음 꽃을 사랑한 사람' 등으로 화려한 무용축제가 펼쳐진다.

올해 부산무용제는 부산무용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경연 팀 외에 축하공연을 확대해 부산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경연에 한국무용 팀이 참가하지 않아 부산시립무용단과 국립부산국악원의 축하 무대에서 우리 춤을 만날 수 있다.

경연팀으로 7일 첫 무대를 여는 브이쉬발레단은 김희쟁의 안무로 아담과 이브가 선택한 인류 최초의 유혹, 사과를 매개체로 이 시대의 많은 혼돈의 상황 속에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을 즐겁게 강하게, 섬세하게 다룬 'Red Apple'를 선보인다. 현대무용단

주-□은 조영미의 안무로 우리 생을 일깨우는 창조성의 에너지이자 원초적인 생존 욕망인 '에로스'를 발견하는 가치있는 여행을 떠나는 '에로스에게 묻다', 8일에는 박종위의 안무로 부산발레연구회 '끝없는 감동', 손영일의 안무로 휘 Dance Company '미친 개미들'이 경연에 참가한다. '끝없는 감동'은 생존과 이념을 위한 무한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목적적 삶을 이어가게 하는 변화와 격동, 혼란, 감동을 춤으로 표현했고 '미친 개미들'은 위험한 삶 속에서 무너지는 자신의 겉모습과 달리 내적으로 앓고 곪아 가는 삶의 단상을 춤으로 담아냈다. 9일 마지막 무대에 오르는 M-NOTE 무용단은 신승임의 안무로 한사람의 몸에 새겨져 있고 새겨져 가고 있으며 새겨지게 될 공존과 벗겨낼때마다 생기는 유감의 감정들을 춤으로 표현한 '공존, 유감'을 선보인다.

부산무용제 대상수상팀은 전국무용제에 부산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 7일

부산시립무용단 개막 축하공연 '백두대간' (안무/홍기태)
브이쉬발레단 'Red Appel' (안무/김희쟁)
현대무용단 주-□ '에로스에게 묻다' (안무/조영미)

■ 8일

부산발레연구회 '끝없는 감동' (안무/박종위)
휘 Dance Company '미친 개미들' (안무/손영일)

■ 9일

M-NOTE 무용단 '공존, 유감' (안무/신승임)
2008년 대상 강미리홀무용단 축하공연 '처음 꽃을 사랑한 사람' (안무/강미리)
부산국립국악원 폐막 축하공연 '가인전목단' (안무/엄옥자)

▶ 관람료 _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 의 _ 부산무용협회(632-5116)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팝음악평론가 임진모와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는 POP합창

●7월 18일 토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수석지휘자 김강규



팝음악평론가 임진모

5월에 열린 '7080 가요합창음악회'에 이어 부산시립합창단의 또 다른 가요합창시리즈로 사랑받고 있는 팝음악평론가 임진모와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는 POP 합창'이 7월 1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전 장르를 넘나드는 부산시립합창단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열정이 넘치는 무대, 임진모의 맛깔나는 해설로 우리의 감성을 자극할 이번 무대는 Welcome To My World, Let it be, Green, Green grass of home, Mother of mine, You light up my life 등 우리 귀에 익숙한 추억의 팝 음악들로 이야기가 있는 POP 합창음악회를 연다.

부모세대에게는 아련한 시절의 추억을, 중·고·대학생에게는 세대를 초월한 음악으로 새로운 감성을 불러일으킬 '이야기가 있는 POP 합창'은 '가족이 있는 노래들' '사랑이란 이름의 노래들' '영화에 대한 추억' '노래라는 합(合)의 매력'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팝음악을 들려준다.

부산시립합창단과 세 번째 만남을 갖는 임진모는 음악평론가로 라디오 방송진행자, 음악칼럼니스트로 폭넓은 활동을 해왔다.

1990년대 초반 아카펠라 그룹 '인공위성'의 매니저로 활동한 바 있는 임진모는 1992년부터 팝음악평론가로 영역을 확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우리 대중음악의 큰 별들>, <젊음의 코드, 록> 등이 있다. 임진모는 현재 MBC 표준FM 라디오에서 일요일 새벽 2시에 <임진모의 뮤직스페셜>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무대를 위해 부산의 대표적 재즈오케스트라인 부산재즈오케스트라 리더 연관호와 더블베이스 최춘광, 색소폰 최창근, 드럼 김진훈이 활동하고 있는 연관호 콰르텟이 특별출연, 재즈로 듣는 팝음악으로 감동을 선사한다.

부산 시립합창단의 특별연주회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라디오와 음반 그리고 영화를 통해 들었던 당대의 노래들을 통해 아련하고 아름다운 저 옛날의 기억을 더듬어보게 한다. 김강규 지휘의 시립합창단 연주에는 추억의 자극 말고도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다. 바로 합창이라는 큰 스케일의 보컬 하모니가 원곡 이상의 웅장미와 비장미를 전달해준다는 사실이다. 합창단의 울림이 우리의 추억과 그리움을 더 높은 지평으로 끌어올려주는 것이다.

'Mother Of Mine'으로 고락을 함께 해온 가족을 생각해보고, 'When I Fall In Love'로 한창 젊었을 때의 짝사랑에 웃음 지으며, 영화 '미션'의 음악을 들으며 다시금 음악의 아름다움을 환기하고, 'My Way'로 앞으로의 삶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게 될 것이다. 상쾌하고 아름답고 때로 비장한 합창이 한 여름 밤, 토요일 밤을 수놓으며 푸근한 정취를 꾸려줄 것이다.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가 여기 있다. Welcome To My World!!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

▶ **관람료** _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예약하십시오.)

▶ **문의** _ 부산시립합창단(607-3141)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부산상공회의소 신정택 회장

“기업이 사회에서 이윤을 창출한 만큼 지역 사회공헌 사업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메세나 운동을 통해 우리 시민들의 삶이
보다 윤택해지고 지역문화가 활성화되면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또 다른 성공을 이끌어내는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3월 부산상공회의소 제 20대 회장으로 연임되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신정택 회장(61세, 세운철강 회장). 재임 이후 부



산경제의 리더로 바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신정택 회장은 부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화두를 풀어나가기 위해 어느때 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다시 소명을 받은 것은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 기업에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기를 바라는 부산 기업인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3년의 임기동안 항상 출발선상에 선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의 상공인들이 주축이 된 부산상공회의소는 4천 3백여개 회원사의 권익과 목소리를 대변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업을 수행하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개발 사업을 만들고 추진하는 종합경제단체이다.

부산상공회의소의 출발은 1889년 ‘부산객주상법회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랜역사만큼이나 부산 경제사에 있어서 부산상공회의소의 역할과 비중이 높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되어 1967년 부산은행을 설립한 것을 비롯해 부산도시가스(1980년), 동남은행(1989년), 제일투신(1989년), 삼성자동차 부산유치(1994년), 한국선물거래소 부산유치(1998년) 등 부산경제를 견인한 상당수의 기업을 만들고 유치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오는 7월 19일 창립 120주년을 맞은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활동을 되돌아보며 7월 13일부터 창립 120주년을 조명해보는 사진전, 축하공연 ‘장사익과 친구들’ 등을 준비하고 있다.

바쁜 일정 중에도 평소 공연장을 자주 찾는다는 신정택 회장은 개인적으로 우리의 정서가 반영된 우리국악을 즐겨 듣는다. 기업의 메세나 운동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신정택 회장은 지난 1월에는 부산가야금 연주단을 지원, 부산가야금 연주단 신년음악회 ‘세운철강과 함께하는 사랑담은 가야금’ 연주무대를 갖기도 했다. 이번 창립 120주년 축하공연도 장사익의 솔직 담백한 음악을 좋아하는 신정택 회장의 적극적인 추천이 따랐다.

해외 출장길에 오를 때마다 문화의 중요성을 실감해온 신정택 회장은 평소 세계적 도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을 준비하는 부

산과 지역기업이 외형적 성장과 더불어 도시와 기업 브랜드를 가치화 시킬 수 있는 문화적 성장을 이루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21세기는 창조력이 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력이 문화예술을 이끌어 가는 원동력임을 미루어 볼 때 문화예술에 대한 진전은 21세기를 리더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화예술은 단순히 보고 즐기는 차원을 넘어 기업과 도시 경쟁력의 새로운 요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신정택 회장은 기업이 직접 나서 지역사회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사회가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메세나 운동은 부산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의 기업 관계 형성을 위해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과 지역주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소재를 제공하는 데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는 지난 2007년 롯데 신격호 회장과의 만남에서 부산의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롯데로부터 1000억 지원안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최근 신정택 회장은 부산시 시정세일즈 경제대표단 단장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동안 캄보디아 지역에 나눔과 캄보디아 인재 양성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캄보디아 훈센 총리로부터 모하 세네이붓(국가재건) 훈장을 수여받았다.

왕성한 활동력으로 매번 주변을 놀라게 하는 그는 변화하는 경제 용어와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기 위해 지난해 동아대학교에서 늦깎이 대학생활을 시작해 주위사람들을 또 한 번 놀라게 했다.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02년 부산외대에서, 2004년 동아대학교에서 명예 경영학박사학위를 받았지만 배움에 대한 열망을 채울 수 없어 새롭게 도전했다.

부산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는 신정택 회장, 그는 어느새 항상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는 쉽 없는 열정을 가진 청년의 모습을 닮고 있다.



지베르니Giverny마을의
소박한 풍경

우연과 필연

이 재 걸 _ 파리 소르본대학 예술사 박사과정

기차를 타기로 했다.

어디로 간다기보다는 규칙적인 일상을 뒤로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설레기에, 넉넉하지 않은 형편을 보살피며 작은 여행을 하기로 했다.

마침 날씨가 좋은 터라 어울리지 않게 작은 도시락도 준비했다. 삼십 대 중반의 아시아 남자가 홀로 잔디밭에 앉아 도시락을 '까' 먹는 장면이 프랑스 시골마을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일까 하는 상상도 하며 즐겁게 기차에 올랐다.

우연이었을까?

그렇게 단지 관광객들로 북적거리는 5월의 파리를 벗어나기 위해 들러본 모네의 정원¹⁾안 수련들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파리 생-라자르 역에서 출발해 한 시간도 채 안되어 다다른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은 그 유명한 모네가 살았고, 그의 명작들의 배경

이 되었다고 하기엔 너무나 소박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해가 지면 열어놓은 구멍가게 하나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이 곳은 그러나 전 세계에서 몰려든 각기 다른 문화를 지닌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연중 활기를 띄고 있다. 다시 한 번 시간과 공간의 다양성을 아우르는 예술의 힘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다.

어쨌든 인상주의²⁾ 화풍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장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의 그림에 서린 정신적 영감(Inspiration)은 바로 이 곳에 있었다.

모네가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 고개 숙이며 신비로운 세상과 매일 낮설게 조우했을 이 곳.

이 곳에서 모네는 나와 같은 마음으로 수련의 작은 떨림에도 전율했던 것이다. 자연 자체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이 인공 정원과 연못은 모네라는 한 예술가의 자연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열정을 고



파리 외곽의 작은 마을,
지베르니Giverny에
위치한 본인의 자택 겸
아틀리에 앞에서 찍은
클로드 모네의 생전 사진

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백내장 증세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나빠진 노년의 시력으로 그려 낸 거의 추상화에 가까운 수련들이나 1923년에 받은 백내장 수술 후 회복된 시력으로 혼신을 다한 오랑주리미술관의 <수련> 작품 모두가 이 흠모와 열정의 진실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흔히 램브란트(Rembrandt Harmenszoon van Rijn, 1606-1669)의 그림이 주는 웅장하고 극적인 분위기가 강조된 빛과 그림자의 대립관계 안에서 연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인상주의자 모네는 그와는 정반대로 화해구조 안에서 장면(Images)을 재구성한다. 즉, 빛과 그림자 그리고 형태들이 이루는 매 순간 감정들의 지극히 '자발적인 조화'를 통해 장면 안의 분산된 듯 보이는 요소들이 결국 자연 자체의 미(Beaut)라는 큰 주제로 응집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나에게 램브란트의 그림은 뛰어나고 화려한 성량을 지닌 파바로티 같은 성악가로 보이고 모네의 그림은 수줍은 미성으로 조화를 이룬 소년합창단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모네의 그림 안에서는 사람도, 산도, 고딕성당의 웅장함도 모두 예술을 통해 자연의 일부로 화해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관광객들에 섞여 그의 그림 앞에 선 나와 붓을 들고 연못 앞에 섰을 모네는 그렇게 시간과 공간의 거리를 뛰어넘어 만나고 있다. 진정한 거장에게 얽은 깊이의 자극은 존재하지 않듯 그와의 만남은 그래서 늘 설레지만 즐겁고 편안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언제나처럼 초여름의 햇살은 모네의 정원을 뜨겁게 비추고 있었다. 빛은 물 속에서 굴절되고 나뭇잎에 반사되며 새로 피어난 꽃들



램브란트의 자화상, 1661



모네, 수련, 1906

의 진한 향기를 여기저기 흩뿌린다. 하루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아쉬움에 떨려 흩뿌려진 그 향기들은 그렇게 또 과거가 되어버린다. 그러나 과거가 되어버린 어제는 날마다 변하는 삶의 경이를 먹고 끝없이 자라날 것이다.

현실은 쉽게 왜곡된다. 때로는 권위에 의해 때로는 권위를 신봉하는 무지에 의해...

하지만 인류는 위대한 자연 안에서 끝없이 진보한다. 과거의 교훈이 주는 지표들이 상징이 되고 그 상징들이 존재하는 한, 한 사회는 건전한 이상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과거와 미래를 화해시킬 때이다.

모네의 정원 안에 있는 수련못





모네가 아틀리에 겸 자택으로 쓰던 2층 건물

모네의 그림 속에 형상화된 연꽃들은 끊임없이 피고 지었던 그 리고 또다시 끊임없이 피고 질 과거와 미래에 대한 화해의 한 상징 일 수 있을 것이다. 순간의 인상을 담아내던 프랑스 작은 마을의 이 노화가도 영원이라는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겸손했을 결국 우리와 닮은 누구였으리라.

다시 기차에 오른다.

무어라 정의하기에는 모호하기만 한 나의 현실로 돌아간다. 한 시간 후면 파리의 수많은 인파 사이로 사라질 나의 현실은 오늘의 짧은 여행을 기억할 것이다. 아름다운 정원보다 더 아름다운 인상 주의자 모네의 예술혼은 5월의 향기로 내 기억 속에서 자라날 것이다.

최근 한국사회는 친근했던 한 상징의 죽음을 보았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필자마저도 너무나 생생히 지켜본 이 '우연 같은 운명'의 깊이는 너무나 아득하기만 하다. 그 앞에서 냉정해

지기에 다치는 양심들이 너무 많은 오늘 같은 날, 다시 한 번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네 삶 속에 녹아있을 의미가 있는 모든 것에 경의를 표한다.

- 1) 파리에서 서쪽으로 80km 떨어진 노르망디의 시작을 알리는 작은 마을 지베르니에 위치. 1883년부터 후반기 인생 43년을 이 곳에서 보내며 모네는 아름다운 정원과 엠프강의 물을 이용한 연꽃을 조성한다. 훗날 미국 현대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이 곳에서의 작업(수련, 수양버들, 일본식다리가 있는 수련 못...)은 모네 예술세계의 완성이라 할 수 있다.
- 2) 주로 1860~1890년대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미술상의 주의. 자연을 하나의 색채현상으로 보고, 빛과 함께 시시각각으로 움직이는 색채의 미묘한 변화 속에서 사물을 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 결과 아카데미 화풍이 가지지 못한 의외성과 다양성들이 많은 인상주의자들을 통해 획득되었다. 인상주의는 예술사상 가장 자유로운 시도들로 총만할 20세기 예술의 서막을 알리게 된다.

주세페 베르디(Giuseppe Fortunino Francesco Verdi) 이탈리아 오페라의 대가!

김 홍 승 _ 대구 오페라하우스 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오페라 교수

‘이탈리아 오페라의 대가’ 주세페 베르디. 누구도 이 말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오페라를 사랑하고 좋아한다. 한국에서의 오페라 대명사로 불리는 ‘라 트라비아타’ 역시 그의 작품이니 말이다.

오페라에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작곡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알아보고 넘어 가도록 하자!

베르디의 생애

베르디(1813~1901년)는 멜로드라마적인 상황을 작품에서 많이 나타내었는데 그 이유는 그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는 프랑스의 지배 하에 있던 이탈리아에서 태어났고 2살 때 프랑스군을 치기위해 그의 고향으로 온 러시아군에 의해 전쟁을 겪게 되었다. 그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성당 탑 꼭대기로 피신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후 아버지의 여인숙에 오는 떠돌이악사들에게서 듣는 음악으로 음악과 친숙해질 수 있었고 이후 교회의 오르가니스트, 시골악단들과의 접촉으로 편곡을 해주며 음악을 배웠다.

그러던 중 베르디는 밀라노로 가서 밀라노 음악원(Milano Conservatorio)에 입학하기를 희망했지만 낙방했다. 이유인즉슨, 18살에 작곡, 피아노를 배우기엔 너무 늦었다는 것과 피아노를 치기엔 손가락이 짧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베르디가 유명해지고 나서 이 밀라노 음악원은 베르디 음악원(G. Verdi conservatorio)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 않은가?

이후 라 스칼라극장의 일원이었던 빈센초 라비나에게 3년간 노래 공부를 하고 1834년 부세토로 돌아온 베르디는 후원자 안토니오 바레치의 도움으로 음악 감독에 취임하고 1836년에는 그의 딸 마르게리타와 결혼했다. 후년엔 장녀, 또 다음해엔 장남이 태어났고 그는 아주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이러한 행복도 잠시. 그의 딸, 그리고 아들, 부인 마르게리타가 차례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버렸다. 1840년, 행복은 그에게서 오래 머물지 않았다. 이맘때 쓴 작품조차 초연의 실패로 중지되었고 그는 더욱 낙담했으며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1842년 3월 오페라 ‘나부코’를 기점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그는 이후 50년 가까이 오랜 세월을 걸쳐 결정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나부코’에서도 드러나듯 그는 민족주의, 애국주의에 많은 영향을 입었고 작품 내에서는 합창으로 많이 표현하였다. 한동안 독신을 유지하던 그는 ‘나부코’에 출연한 성악가 주세피나 스트레포니와 동거를 하게 되었다. 그녀의 내조로 마음이 한층 안정된 베르디는 곡도 점차 안정되어갔으며 12년이 지난 후 정식으로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의 작품을 보다보면 유달리 1860년대~1870년대 사이의 작품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 이유는 1861년 이탈리아가 독립하면서 베르디는 시의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가면 무도회’ (1859년)가 초연되었을 때 로마 청중들은 모두 “Viva Verdi(베르디 만세!)”를 외쳤는데 그것은 “Viva Vittorio Emanuele Re d'Italia! (이탈리아왕 빅토리오 엠마누에레 만세!)”의 민중의 정치적 희망의 생략적인 의미이기도 했다. 그가 이탈리아 국민에게

Verdi

Giuseppe Fortunino Francesco Verdi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알 수가 있다.

이후 2번째 부인인 스트레포니 역시 폐렴으로 사망(1897년)하고 베르디 역시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는 말년에 종교음악에 흥미를 갖게 되어 성가 4편을 완성(1897년)시키고는 작품 활동을 끝냈다. 1901년 1월 27일, 그는 생을 마감했고 그의 사망소식에 밀라노는 전체가 상복을 입었다고 한다.

베르디의 작품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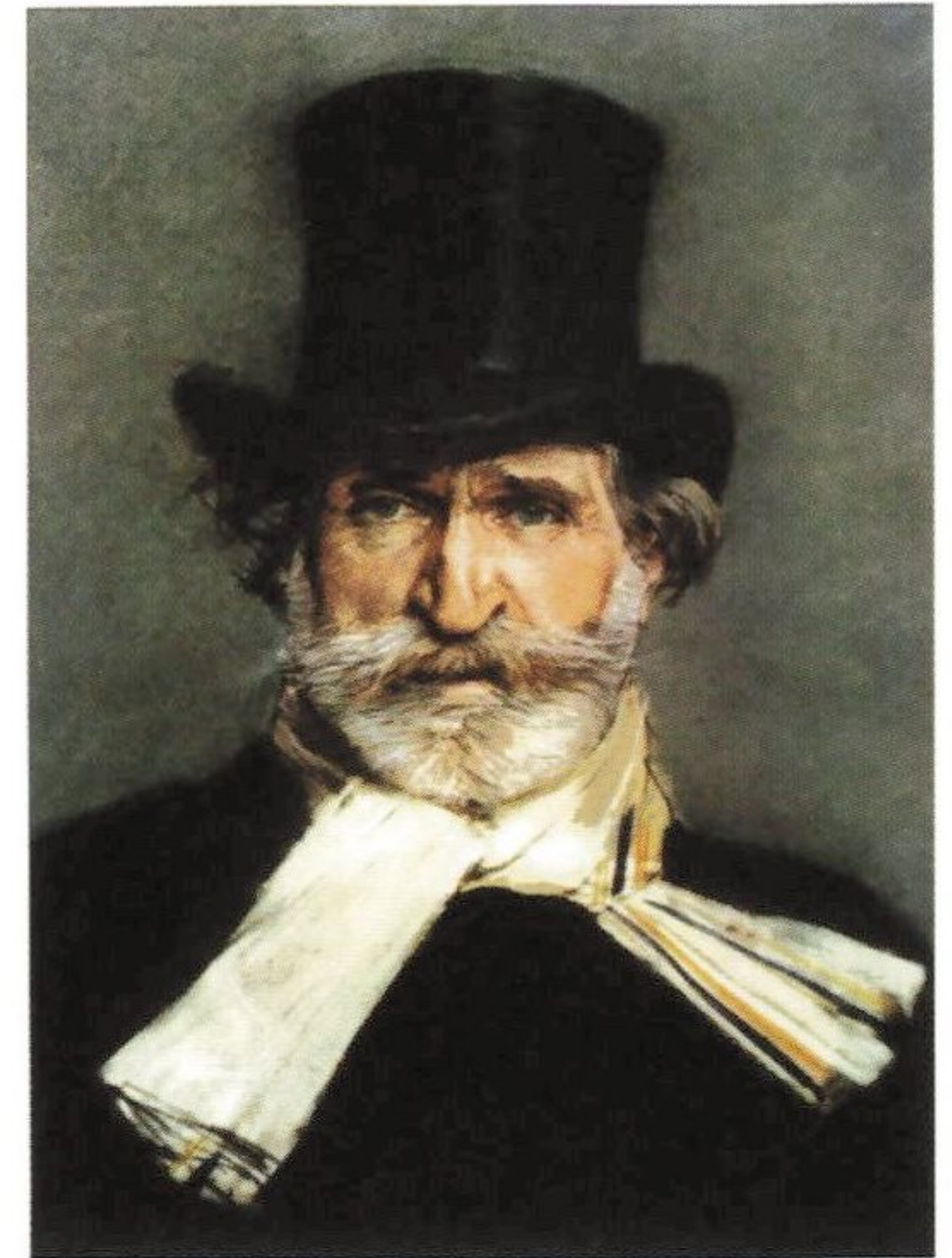
베르디에게는 3가지의 창작시기가 있다.

1기 일부에서는 이 시기를 '고역의 시절'이라 표현한다. '나부코'에서부터 16년에 걸쳐 그의 창작욕망은 계속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베르디 본인에게도 고역이었다. 하지만 대본작가인 프란체스코 마리아 피아베와 공동작업으로 뛰어난 오페라를 만드는 데 한몫을 했다. 이 시기의 작품으로는 '리골레토' '일 트로바토레' '라 트라비아타'로 '국민적 3부작'이라는 별명을 가진, 우리에게도 아주 유명한 아름다운 오페라들로 이루어져 있다. '레냐노의 전투'를 마지막으로 애국정신에서 심리적인 갈등으로 주제가 변화하였다.

2기 2기에는 1기처럼 많은 작품을 쓰지 않고 결정적인 장면에서 독특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주제를 반복해 극적 음악적 통일성을 이루어 내는 실험을 많이 하였다. 이 모든 것을 '아이다'로 결집하여 그의 작품 인생의 절정을 이루었다. 그랜드 오페라의 영웅적 특성과 탄탄한 극적구조, 선율적이고 화성적인 색채가 돋보이는 완성도가 아주 높은 작품이며 주문에 의해 쓰여진 마지막 오페라로 알려져 있다.

3기 의도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였지만 사실상 음악계 소식에 민감했으며 그 이유는 독일의 리하르트 바그너 때문이다. 이탈리아 오페라계에도 바그너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탈리아 오페라계를 이끌어온 베르

디는 초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주변사람들이 베르디가 작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놓았는데 '오텔로' '일 트로바토레'가 그로 인한 작품이다. '오텔로'는 대부분 휴먼드라마이며, 음악의 화성어법과 관현악법은 선율의 표현기능을 침해하지 않고 목소리를 분명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



주세페 베르디

베르디의 작품은 자연은 이용대상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자연에 대해 전혀 감상적이지 않고 인간을 중심으로 한다. 이러한 점이 독일의 오페라와는 다르다. 요즘 피겨 스케이트계에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가 있다면 일본에는 아사다 마오 선수가 있듯 베르디에게도 같은 해에 태어난 독일 작곡가가 있었다. 위에서 언급을 한 리하르트 바그너이다. 바그너는 합리적이고 오케스트라 중심적이며 국민적인 색채를 띄고 있으나 베르디는 서정적이고 멜로디 중심적이며 화려한 이태리풍의 색채를 띄는 점에서 둘은 확연히 다르다.

성악가들 사이에서는 베르디아노(Verdiano)라는 말을 자주 쓴다. 흔히 베르디 콩쿠르에 입상한 성악가들에게 많이 붙는 말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베르디의 음악에 어울리는 색채를 가진 성악가라는 말로 쓰이지만 본뜻은 베르디 노래를 잘하는 '저음가수'를 칭할 때 쓰인다. 베르디는 다른 작곡가들과는 다르게 주인공을 저음가수로 많이 썼다. 대표적으로 '리골레토' 같은 경우가 그러하다. '리골레토'는 언제나 조역의 역할 밖에 하지 못했던 소리 좋은 바리톤들을 주인공의 자리에 두는 특별한 오페라인 것이다. 고전주의의 틀을 받아 낭만주의를 알차게 오페라로 꾸미고 사실주의에까지 영향을 준 베르디..., 정녕 그는 '이탈리아 오페라의 대가'인 것이다.

라틴미술의 진주 인디오 타마요

채 경 혜 _ 한국판화예술연구원 대표



구경거리여자, 유화, 1986

최근 들어 국내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인도 현대미술과 중남미 현대미술의 전시기획이 이루어져 무척 반가웠다. 특히 해외에서 라틴아메리카 작품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힘입어서인지 덕수궁 미술관에서 '20세기 라틴아메리카 거장전' (2008년 7월 26일~11월 9일)에 이어 콜롬비아의 '페르란도 보테로展' (2009년 6월 30일~9월 17일)이 기획되면서 보테로 특유의 따뜻한 풍자 세계를 직접 감상할 수 있다는 기대에 한껏 부풀어 올랐다.

중남미국가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군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단연 멕시코이다. 우리에게 멕시코는 뜨거운 사막과 용설란, 챙 넓은 모자, 축제와 음악, 그리고 손등의 소금을 훔으며 마시는 데킬라 등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습이 우선적으로 연상되지만 무엇보다 마야, 아스텍 등 고대문명이 번창했던 곳이다.

300여년의 스페인 식민지시대를 겪은 탓에 멕시코 현대미술은 벽화미술로 대변된다. 억압된 민중의 모습을 통렬하게 풍자했던 멕시코 근대화화의 선구자 포사다에 이어 멕시코 혁명을 지향하여 벽화운동을 일으킨 3대 거장 디에고 리베라, 시케이로스, 오로스코에

계승된 민중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근간으로 한 멕시코미술의 미학은 라틴아메리카는 물론 미국, 구소련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의 세계미술로 이어져오고 있다.

이들 벽화 3대거장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작가로 멕시코 모더니즘의 기수, 새로운 라틴미술의 창시자라 불리는 루피노 타마요(Rufino Tamayo, 1899~1991년)를 들 수 있다.

루피노 타마요는 인디오출신으로 멕시코의 전통과 모더니즘의 국제주의를 잘 융합시킨 화가, 벽화가, 판화가이다. 멕시코 남부 오와하카주(州)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 부모를 잃고, 멕시코시티의 숙모 슬하에서 초등미술교육을 받고 1917년 숙모의 과일장사를 도우며 산 카르로스미술학교에 들어갔다가 관습적인 교육에 거부감을 느껴 독자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1921년부터 멕시코국립고고학박물관의 연구원으로 3년간 근무하면서 민속적인 주제와 유럽현대양식을 결합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는 타마요가 멕시코적인 작가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조상들의 주술적 심상을 바탕으로 한 카오스적 환상과 서정성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1924년 뉴욕에서 인상주의, 입체파, 야수파의 전시를 보고, 아방가르드의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피카소, 브라크, 마티스를 수용하게 되었으며, 나중에 평소 그가 존경하던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보고는 큰 감명을 받게 된다. 1926년 디에고 리베라의 권유로 리베라가 재직하고 있던 멕시코국립예술학교 교사가 되었으며, 리베라와 함께 멕시코적인 주제와 삶, 벽화, 멕시코 고대문화에 심취했다.

그러나 타마요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입각한 벽화 3대 거장과는 다른 작품세계를 지향하였다. 대다수 멕시코화가들이 그림은 혁명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념 중심적 회화양식을 비판하고 순수한 시각적 요소와 고대 멕시코문명의 소생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민족주의가 선전 선동적인 측면으로 이용하는 것

을 거부하는 이러한 타마요의 신념은 멕시코화단에서 이단시되면서 결국 '변절'이라는 비난 속에 멕시코를 떠나게 된다.

뉴욕에 정착한 타마요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면서 1930년대부터 정기적인 발표로 서서히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1940년대 순수추상화로 파리, 도쿄에서 개인전을 통해 세계적인 화가로 인정을 받게 되자 그를 비난했던 멕시코조차 위대한 화가로 재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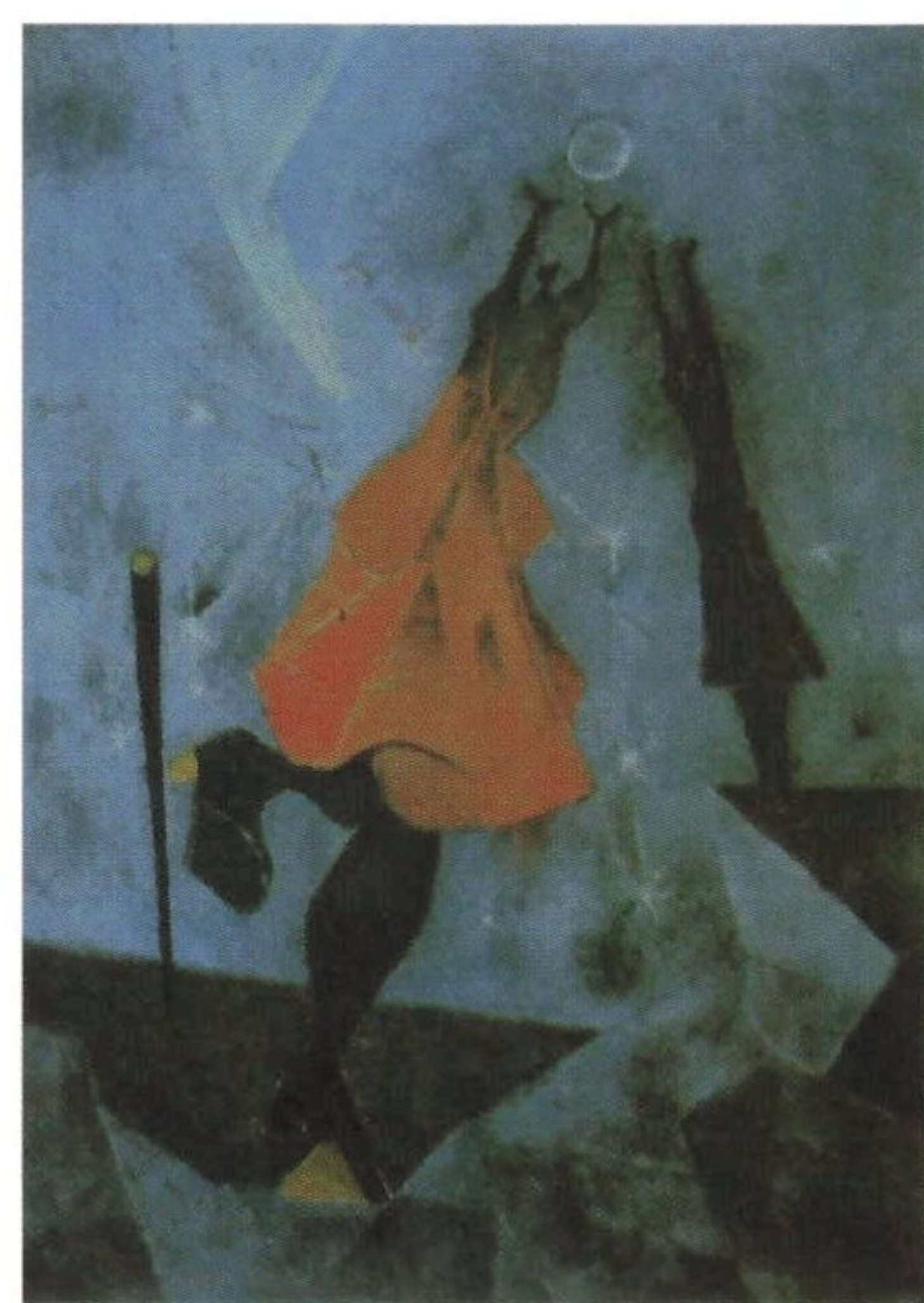
1950년 베니스비엔날레에서 가장 충실하게 혼자서 작업한 작가로 선정되어 명예훈장을 받았으며, 1953년 제 2회 상파울루비엔날레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1960년 드디어 멕시코에 귀국하여 영구 정착하였다.

타마요는 미국 내에 많은 벽화를 남겼다. 특히 도식적이며 세련된 기하학적 구성과 미려한 색채의 조화를 이룬 메사추세츠 스미스 대학 도서관벽화 '자연과 예술가, 1943'는 성공적인 첫 작품으로, 휴스턴의 'America, 1956'는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UN의 유네스코본부벽화는 신비한 색채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타마요는 평생 쉬지 않고 정력적으로 판화작업을 해왔다(1925~1991). 1920년대 초기에는 목판화로 주로 멕시코 인물상을 표현하였으며, 전통 민속악보집의 삽화(1931년), 다양한 색채카드(1934년)를 판화로 제작하기도 하였다. 1930년 후반부터 1940년대 작품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다소 괴기스럽거나 추상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데, '달과 인간의 조화, 1947'는 목판화 중 걸작으로 손꼽힌다. 1950년대 이후에는 추상표현주의적인 경향이 보이며 1960년대 이후에는 다양한 인물들의 표정과 당시의 생활상을 반영하기라도 하듯 과일을 많이 표현하였다. 1973년 이후 10년간 다양한 기법의 실험적인 판화들을 선보였으며 토우, 인형, 인물, 개, 과일, 손 등



전화교환수, 유화, 19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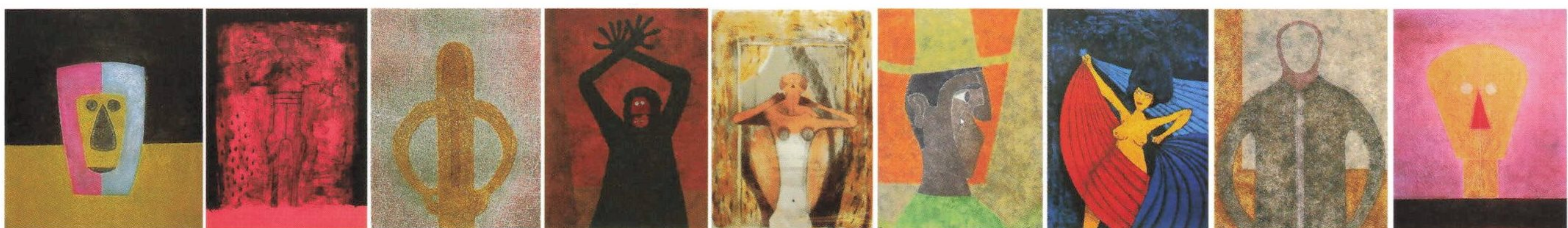


달에 손을 뺀 여인, 유화, 1946

6개의 테마들이 표현되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는 종이나 동판을 이용해 부조적인 입체 화면을 만들어내는 '믹소그라피'라 불리는 새로운 판화양식을 창안하였는데 섬세하고 미묘한 색감과 풍부한 입체감이 특징이다.

또 그의 석판화는 현대적, 민속적, 종교적인 언어로 멕시코의 다양한 대중적 요소들을 반영하고 창의적인 작업을 시도하여 대량으로 찍어냄으로써 판화에 전혀 관심이 없던 당대의 많은 멕시코작가들이 판화작업에 동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파리,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미국, 멕시코 등 여러나라에서 목판화, 에칭, 석판화로 뜻 있는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전통적인 이야기를 판화로 재해석한 첫 번째 작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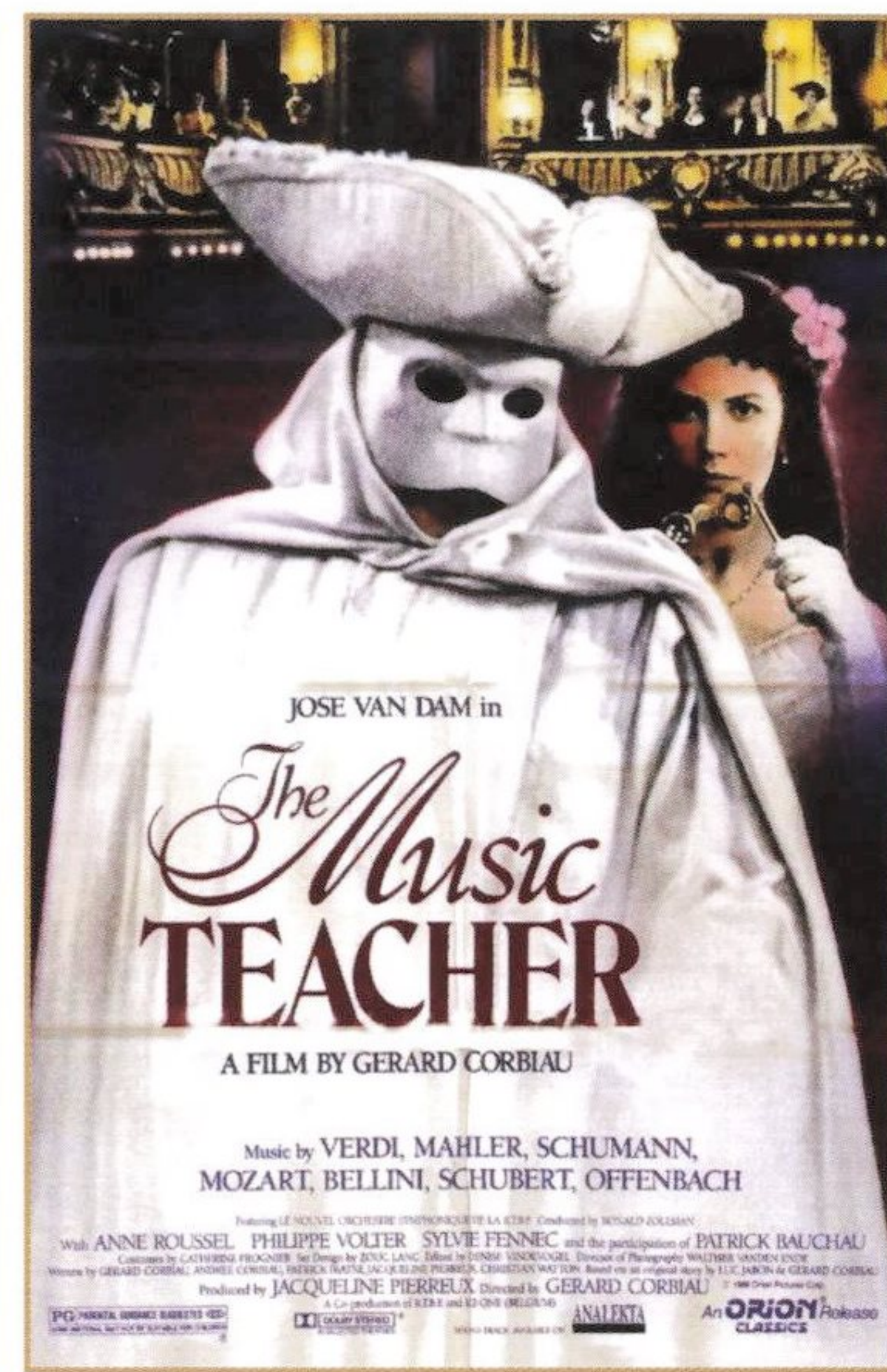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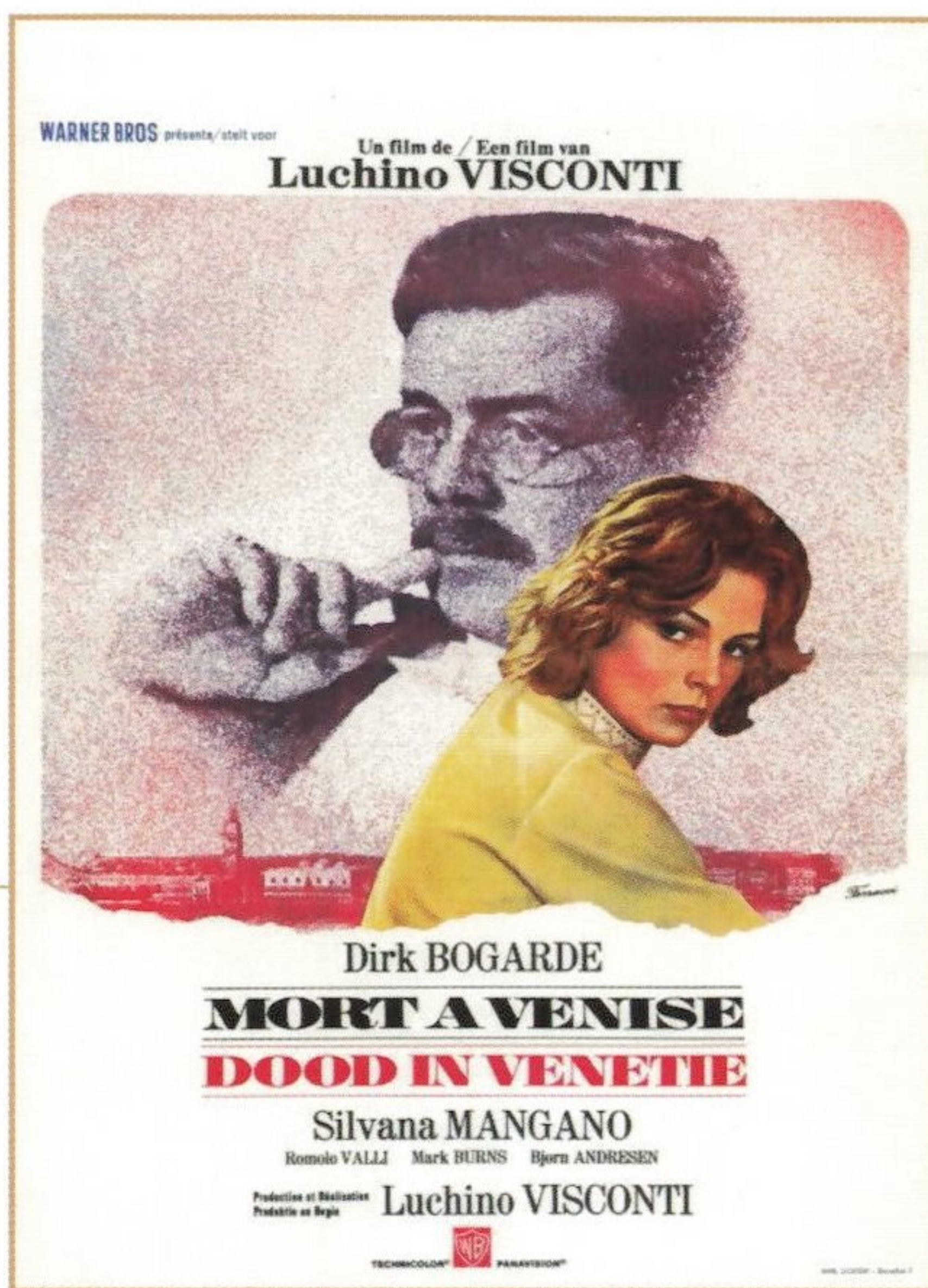
90세 생일을 맞아 석판프린터 앤드류 발디와 함께 자신의 작품을 시리즈로 재현하는 작업을 시작한 타마요는 이듬해 생을 마감하기까지 총 9개의 <90세 기념시리즈>를 남겼다. 누구보다도 치열한 삶을 살았던 타마요! 그는 과거와 미래를 통합하여 새로운 현재를 창조하는 작품세계를 통해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의 우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타마요의 판화들

말러의 음악이 흐르는 영화

김 문 경 _ 음악 칼럼니스트, '구스타프 말러' 3부작 저자



클래식 음악을 친숙하게 접하기에 있어 영화만큼 좋은 장르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음악과 절묘하게 어우러진 영상의 흡인력은 실로 강력하며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새로운 예술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제 아무리 난해하다고 소문난 말러의 음악이라 할지라도 영화와 함께 감상한다면 어느새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말러의 음악이 흐르는 영화 중 우선 '베니스에서의 죽음' (1971)을 꼽고 싶다. 말러 교향곡 5번 4악장 '아다지에도'를 불멸의 멜로디로 만들어 버린 이 영화는 감독 루치노 비스콘티의 작품으로, 독일의 소설가 토마스 만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주인공 구스타프 아센바흐는 소설에서는 작가로 등장하지만 영화에서는 작곡가로 그려져 구스타프 말러와의 연계성이 강조된다.

아센바흐는 요양차 베니스에 들러 지내던 중 미소년 타지오를 보게 된다. 타지오가 소유한 절대적 미에 매혹된 그는 사랑의 고뇌로 인한 질투와 걱정 끝에 자신을 상실해가며 무너져 내린다. 주인공은 콜레라가 창궐하는 베니스의 바닷가에서 미소년을 바라보다 끝내 숨진다.

'베니스에서의 죽음'은 갑작스레 동성애에 빠지게 된 한 중년의 주책을 그린 영화가 결코 아니다. '절대적 미에 도사린 치명적인 독'이 핵심이다. 극한의 탐미가 인간을 해칠 수도 있다는 교훈도 담겨있는 셈이다. 더크 보가드가 아센바흐를, 스웨덴 출신의 절대적 '꽃남' 안데르센 비요른이 타지오를 연기했다. 전편에 흐르는

'아다지에도'는 영화음악이란 도구를 넘어서 하나의 목적이 되고 있다. 감독의 탐미적인 시선과 말러의 관능적인 음악이 한데 어우러져 잊지 못할 미장센을 빚는다.

'파리넬리' '왕의 춤'으로 유명한, 음악영화의 대가 제라르 코르비오의 '가면 속의 아리아' (1989)에서도 말러의 선율을 발견할 수 있다. 유명 성악가 요아킴은 은퇴 후 여제자 소피를 가르치는 일에 열중한다. 그러다 시장에서 도둑질을 하는 장을 만나게 되어 그에게도 노래를 가르치게 된다. 소피는 스승을 점차 사랑하게 되지만 요아킴은 애써 스승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고자 한다. 두 제자는 요아킴의 라이벌이었던 스코티 공작의 제자들과 경연대회에서 노래 대결을 펼치고, 영화는 결국 요아킴의 죽음으로 종결한다. 베이스바리톤 호세 반 담이 요아킴 역을 맡아 훈훈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

원제는 '음악선생님'이지만 '가면속의 아리아'라는 번안 제목이 더욱 근사하게 느껴진다. 요아킴이 장에게 성악을 가르치는 장면에서 '대지의 노래' 3곡 '청춘에 관하여'가 등장한다. 경극 풍의 간드러진 곡상이 특징인 이 곡에서 장은 자꾸 음정을 틀려 스승에게 지적을 받는다. 소피가 스승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에서 흐르는 교향곡 4번 3악장의 고느적한 음률도 놓칠 수 없다. 요아킴의 장례장면에서 흐르는 뢰케르트 가곡집의 '나는 세상에서 잊혀지고'는 영화 전체 중에서도 백미라 할 수 있다.

말러의 선율미에 새삼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 III

그리스의 음악가들(1)

황 윤 기 _ 음악 칼럼니스트, 국악방송 '황윤기의 세계음악여행' DJ

미키스 테오도라키스(Mikis Theodorakis)



‘기차는 8시에 떠나고(To treno fevgi stis okto)’라는 명곡으로 음악애호가들에게 그 이름을 깊이 각인시킨 미키스 테오도라키스는 그리스의 암울했던 현대사의 한 가운데

서 있었던 인물이다. 애수 어린 선율 속에 걸으려는 연인의 이별을 그리고 있는 이 노래는 그리스 민주화 운동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곡으로, 이후 그는 군부 독재정권의 탄압 속에 조국에서 추방당하기도 했다.

미키스 테오도라키스는 1925년, 크레타 섬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비잔틴 성가와 그리스 민속음악을 배우며 작곡가로서의 능력을 쌓았다. 2차 세계 대전으로 독일이 침공했을 때 레지스탕스에 가담했고, 전쟁 이후 내전 속에서는 좌파에 가담해 혹독한 시련과 고초를 겪기도 했다. 이러한 성향은 그의 음악 속에도 반영되어 그리스의 음악 전통을 바탕으로 한 대단히 민족적인 곡들을 쓰게 되는데, 1967년부터 시작된 군부 정권에서는 대부분의 작품들이 금지곡 처분을 당하고 국외로 추방당하기 까지 이른다. 군부 정권이 끝나고 난 뒤에야 조국에 돌아올 수 있었던 그는 부주키의 울림이 담긴 렘베타카 음악의 전통에 특유의 서정성을 부여하며 시대의 아픔을 담아냈고, 네루다의 시를 오라토리오로 표현한 ‘모두를 위한 노래(Canto General)’와 같은 대작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의 많은 음악들은 격랑의 그리스 현대사에 맞서 싸우며 만들어낸 것이었고, 또 그리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기에 음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미키스 테오도라키스는 다섯 개의 교향곡을 비롯해 무용곡, 오페라 등 클래식 작품들도 남겼으며, 여러 편의 영화를 통해 자신의 음악을 알리기도 했다. 그리스의 존경받는 작가인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대표작을 영화로 만들었던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들려주었던 부

주키의 선율들은 지금도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남아 있다. 그는 그리스 배우들이 주연하거나 해외의 인권운동 관련 영화에서 인상적인 음악을 남겼는데, ‘죽어도 좋아’라는 번안제목으로도 유명한 영화 ‘페드라’나 ‘계엄령’ ‘Z’ 등에서도 예술성을 인정받았다.

마노스 하지다키스(Manos Hadjidakis)



영화 ‘페드라’에 등장했던 배우이자 가수였던 멜리나 메르쿠리(Melina Mercouri)가 주연했던 영화 ‘일요일은 참으세요(Never on Sunday)’의 주제곡 등 영화음악 작곡가로 명성을 얻었던 마노스 하지다키스는 미키스 테오

도라키스와 함께 그리스 현대 음악을 대표하는 인물로 손꼽을 수 있다. 특히 나나 무스쿠리를 비롯한 몇몇 가수들이 표현해 낸 그의 음악들은 다소 어두운 색조와 회색빛 서정을 지니고 대단히 특별한 인상을 전한 바 있다. 항상 그리스 음악의 첫 머리에 등장해 ‘투사’의 이미지를 지니고 강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미키스 테오도라키스와는 달리 내성적이고 지적인 이미지로 남아 있지만, 세상을 떠난 지금도 많은 아티스트들이 그의 음악을 해석하고 싶어 할 정도로 뛰어난 음악성을 담은 작품들을 남겨 놓았다. 특히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작품들이 극음악 형태의 모음곡으로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한 발굴과 새로운 레코딩을 통해 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리스 특유의 정서가 때론 난해하게 표현된 곡들도 있지만, 그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서적, 음악적 색채는 그리스 음악 내에서도 대단히 특별한 위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국내 그리스 음악애호가들에게 최고의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는 ‘나의 어머니(Manoula Mou)’ 역시 그의 모음곡에서 발췌된 곡이다.

부산시립교향악단 2009 웰빙콘서트 시리즈 III 푸치니의 여인들

김창욱 _ 동아대학교 초빙교수



고도화된 현대 산업 사회 덕분에 우리는 넘쳐나는 물질적 풍요를 얻었지만, 이에 해당되는 만큼의 정신적 여유를 잃은 것 또한 사실이다. 새로운 세기, 육체적·정신적 삶의 조화를 꾀하는 ‘웰빙’

(well-being) 문화의 등장은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리라. 그렇지만 오늘날 웰빙문화는 음식, 의류, 여행, 신체적 건강을 내세워 오히려 물질적 욕망과 소비만을 집중적으로 부추기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런 점에서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웰빙콘서트’는 새삼 의미가 돋보이는 무대가 아닐 수 없다. 지난 6월 9일 오전 11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는 ‘2009 웰빙콘서트 시리즈 III’이 ‘푸치니의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꾸며졌다. 여기서 ‘여인’이 푸치니의 ‘실제’ 여인인지 ‘가상’ (작품 속) 여인인지 긴가민가하게 한 점이 우선 관심을 끌게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 푸치니는 여성편력이 많은 작곡가였을 뿐 아니라, 오페라에서도 다양한 성격의 여인들을 곧잘 빚어 냈기 때문이다. 부산시립극단의 콩트에서도 나오듯 변덕스러운 마농레스코, 열정적인 토스카, 청순가련형의 미미 등이 그 예이다.

이날 콘서트에는 지역에서 비약적인 활약상을 보이는 테너 김지호, 홍지형, 김화정, 소프라노 이정아, 김유섬 등 젊은 성악가들이 무대에 섰다. 이들은 푸치니 오페라의 아리아와 중창을 잇따라 노래했고, 이동신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간주와 반주를 맡았다. 여기에 달콤하고 유쾌한 장일범의 해설이 곁들여져 줄곧 원활한 무대진행을 도왔다.

김지호는 <마농레스코>의 ‘일찍이 보지 못한 미인’, <나비부인>의 ‘핑크톤과 초초상의 이중창’에서 풍부한 성량(聲量), 리릭 특유의 부드러운 성질(聲質)로 시종 담담하게 노래했다. 그것은 능히 <아이다>의 주역 라다메스 장군다운 품모였다. 또한 <라보엠>의 ‘그대의 찬송’, ‘사랑의 이중창’, 그리고 <투란도트>의 ‘류여, 울지마라!’를 부른 홍지형은 맑고 투명한 음색이 돋보였고, ‘내 이름은 미미’, ‘핑크톤과 초초상의 이중창’에서 이정아는 빼어난 미모와 알차고 충만한 음향을 선보였으며, <토스카>의 ‘마리오, 마리오’를 노래한 김화정은 순도 높은 열정을 가감없이 펼쳐 보였다.

그러나 이날 단연 돋보인 것은 무엇보다 김유섬의 무대가 아니었나 싶다. 그녀는 ‘마리오, 마리오’와 <투란도트>의 ‘들어 주십시오’를 불렀는데, 관록에 따른 여유가 커켜이 묻어났다. 정제된 소리의 탄력성, 폭넓은 음역과 자유로운 패시지 진행, 중·고음에서 한결같이 유지되는 음색 등이 그렇게 보이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콘서트에서 아쉬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첫째 대편성의 오케스트라는 때때로 반주의 기능에 소홀했다. 관현악의 자기 과시적 음량이 성악가의 목소리를 압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까닭이다. 둘째 <라보엠>에서와는 달리, 기대되었던 주요 아리아가 불려 지지 않았다. <토스카>의 ‘별은 빛나건만’,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투란도트>의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등이 그러하다. 셋째 지나치게 많은 오페라가 무대에 올려졌다. 그것은 전달해야 할 정보가 그만큼 많아질 뿐 아니라, 자연히 촌촌하고 긴 해설이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넷째 배역의 시각적 부조화가 노출되었다. 가령 <라보엠>에서 청년 시인 루돌포가 왜소한 반면, 폐결핵을 앓는 소녀 미미는 오히려 듬직하고 당당한 이미지였다. 그것은 ‘사랑의 이중창’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더한층 참신한 음악콘텐츠 개발을 기대한다.

지역방송과 지역문화

남인용 _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부산에서 매출액 상위 순위에 속하는 광고대행사 사장의 하소연을 들었다. 5월 초에 채용한 신입사원이 5월 월급을 한 차례 수령한 후 퇴사하여 서울의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다고 한다. 인재의 역외유출이 심각하다는 말이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부산의 인구감소에 대한 그동안의 문제 진단과 해결노력이 효과적이지 않았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부산의 인구감소에 대한 시사프로그램과 언론의 보도는 많았었다. 부산에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부산의 일자리를 늘리면 인구감소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과연 그럴까? 일자리가 없어서 지역을 떠난다는 주장은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다른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는 현실에 대한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살고 싶은 부산은 단순히 일자리가 있는 부산이라기보다 '살면서 행복한 부산' 일 것이다.

행복은 주관적인 것이어서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지만 교육, 의료와 더불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은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일반인들이 즐기는 문화생활의 대부분이 방송을 비롯한 대중매체를 이용한 것이고, 전시나 공연 또한 대중매체를 통해 간접 경험하는 수용자가 다수이다. 지역방송은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지역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방송을 보도매체로만 인식하는 이들도 있지만, 방송은 보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문화예술매체로 볼 수 있다. 방송사의 임원진이 대부분 보도부문의 인력으로 구성되고, 고위층의 관심은 메인 뉴스프로그램에 집중되지만, 정작 일반 시청자들은 뉴스보다는 교양이나 오락프로그램을 즐긴다. 유력 정치 인사들의 행보에 주목한 뉴스를 보다 보면 저 뉴스가 나와 무슨 상관있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접하는 뉴스의 대부분은 뉴스 제작자와 뉴

스 대상 인물만 관심 있는 뉴스일 수도 있다.

뉴스에서도 문화예술 관련 뉴스는 시간 남으면 끼워 넣는 형국이다. 서울에서 전국으로 전해지는 메인뉴스 프로그램의 앞 쪽지는 대부분 정치 또는 경제 뉴스들이고, 생활뉴스 또는 문화뉴스가 나올 때쯤이면 지역뉴스로 바뀌어 또다시 정치 또는 경제 뉴스들로 채워진다. 전국뉴스와 지역뉴스의 이중구조 속에서 문화뉴스는 보도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문화적 사건은 정치 또는 경제적 사안과 관련이 있게 될 때만 크게 보도된다. 신정아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역방송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은 몇 개 되지 않고 그나마 번두리 시간대에 방영된다. 지역의 문화관련 소식을 전하는 KBS1 TV의 'TV 문화속으로' (금요일 밤 12시-12시 35분)와 부산MBC의 '부산, 부산문화' (월요일 밤 12시-12시15분)가 있으며, 영상문화도시 부산을 선도하는 영화 프로그램으로 KNN의 씨네포트(토요일밤 11시 10분-12시 10분)와 부산MBC의 '시네마월드' (일요일 오후 12시 10분-13시 10분)가 있다.

전국방송의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방영되는 지역방송의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시청자들로서는 아쉬움이 많은 편성이다. 지역방송이 지역주민의 외면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전국방송의 프로그램 구성이나 편성을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왕 낮은 시청률로 고전할 형편이면 지역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좀더 나은 시간대로 옮기는 파격적인 편성을 하면 어떨까?

지역방송의 문제는 지역방송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없다. 미디어발전의 방향을 정립하고 발전을 선도해야 할 미디어발전국민회의는 지역방송을 의제로 삼지도 않은 채 파국을 맞았다. 결국 지역방송의 발전은 지역주민, 지역방송인, 지역방송학자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지역의 문화예술을 널리 알리고 지역민들이 고루 향유하도록 이끌어 가는 지역방송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복돋워 나갔으면 한다.

세계 최초 오리 테마박물관

양산오리박물관

‘오리’를 테마로 한 박물관이라, 언뜻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오리만’ 가지고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 속에 도착한 곳은 양산 오리박물관. 통도사 인근 하북면 삼수리 전원주택단지 입구에 자리잡은 ‘오리박물관’은 자칭 ‘오리아빠’ 박상용 씨가 지난 2006년 11월 문을 연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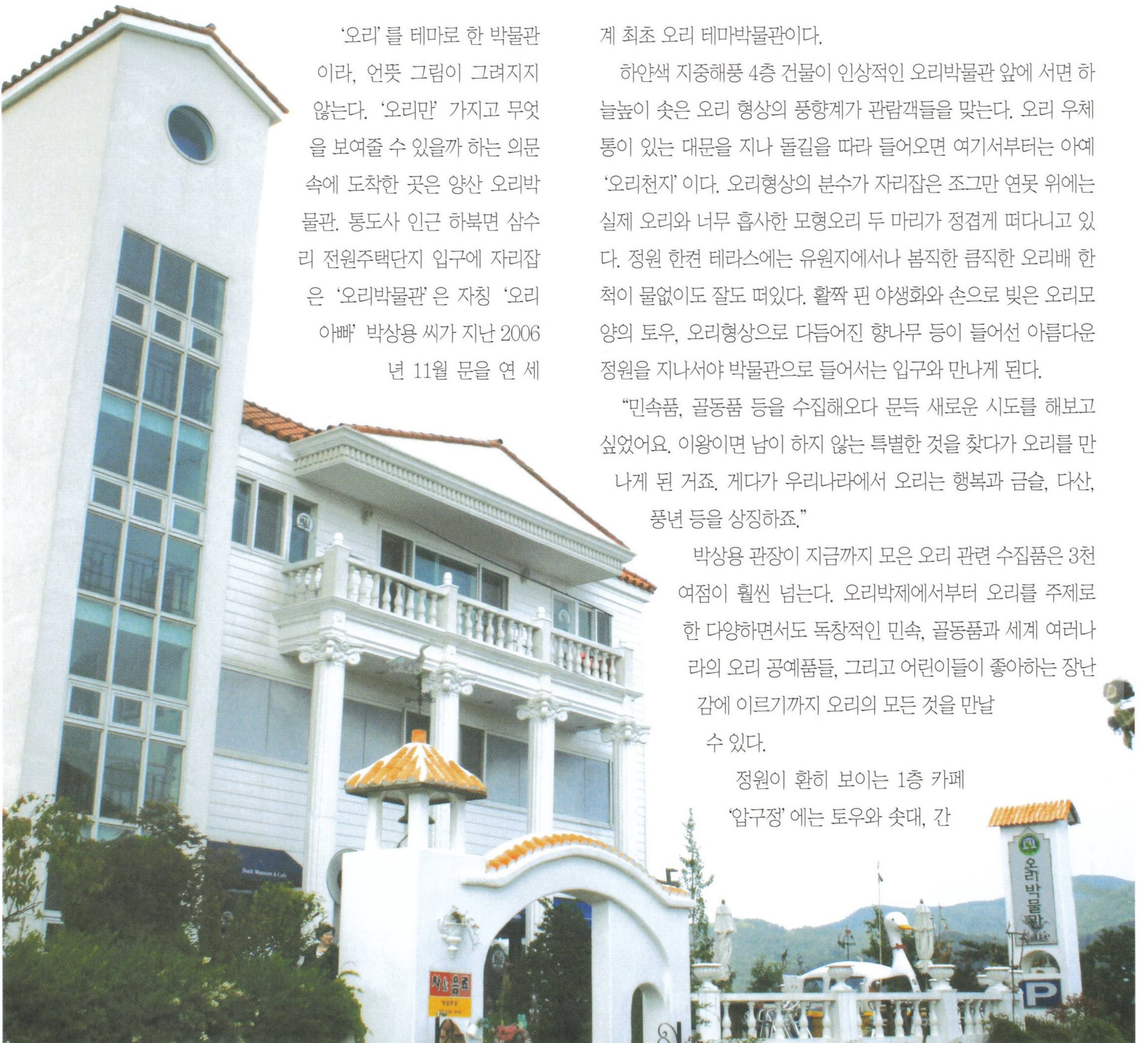
계 최초 오리 테마박물관이다.

하얀색 지중해풍 4층 건물이 인상적인 오리박물관 앞에 서면 하늘 높이 솟은 오리 형상의 풍향계가 관람객들을 맞는다. 오리 우체통이 있는 대문을 지나 돌길을 따라 들어오면 여기서부터는 아예 ‘오리천지’이다. 오리형상의 분수가 자리잡은 조그만 연못 위에는 실제 오리와 너무 흡사한 모형오리 두 마리가 정겹게 떠다니고 있다. 정원 한편 테라스에는 유원지에서나 봄직한 큼직한 오리배 한 척이 물없이도 잘도 떠있다. 활짝 핀 야생화와 손으로 빚은 오리모양의 토우, 오리형상으로 다듬어진 향나무 등이 들어선 아름다운 정원을 지나서야 박물관으로 들어서는 입구와 만나게 된다.

“민속품, 골동품 등을 수집해오다 문득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왕이면 남이 하지 않는 특별한 것을 찾다가 오리를 만나게 된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오리는 행복과 금슬, 다산, 풍년 등을 상징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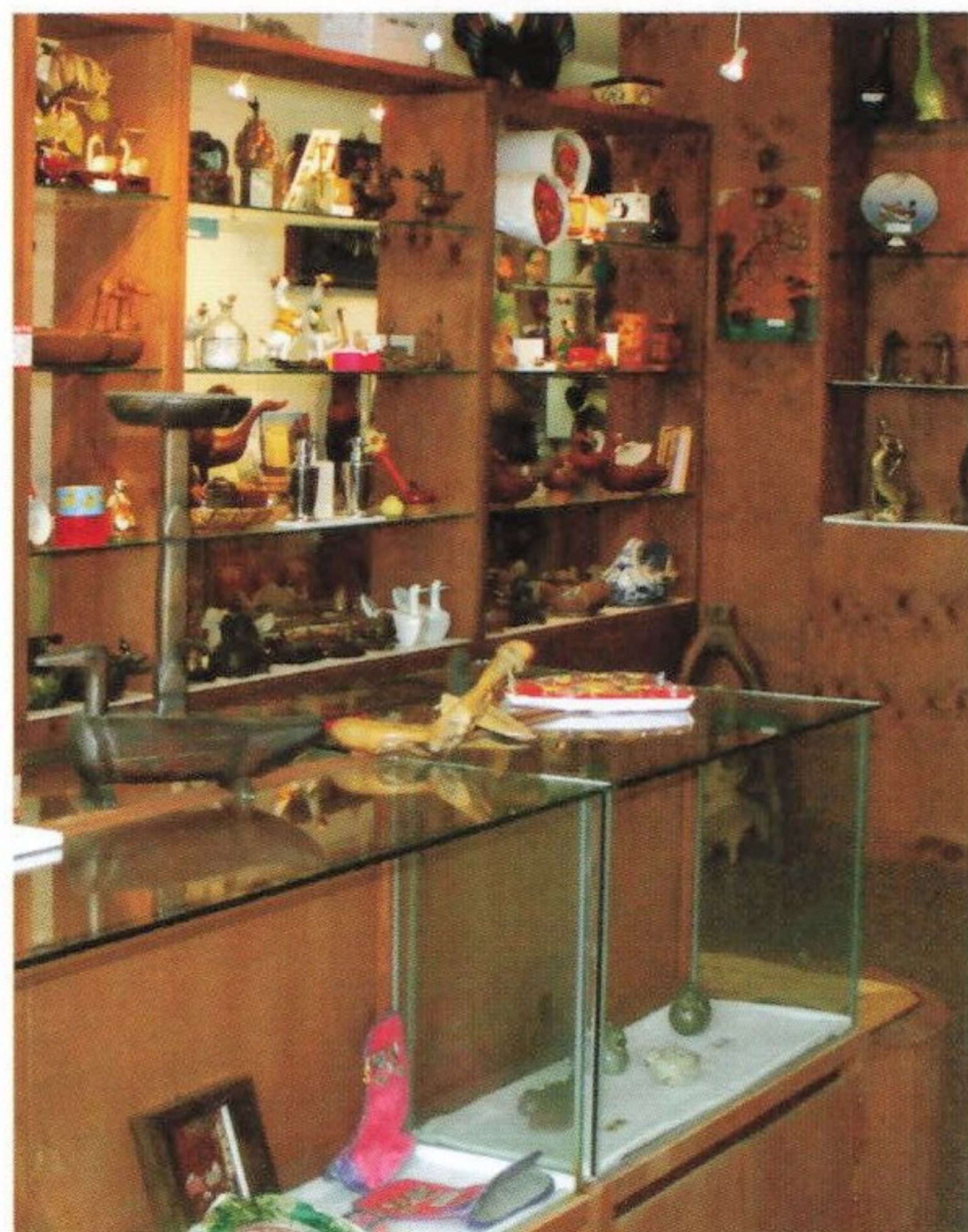
박상용 관장이 지금까지 모은 오리 관련 수집품은 3천여점이 훨씬 넘는다. 오리박제에서부터 오리를 주제로 한 다양하면서도 독창적인 민속, 골동품과 세계 여러나라의 오리 공예품들, 그리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에 이르기까지 오리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다.

정원이 환히 보이는 1층 카페 ‘압구정’에는 토우와 솟대,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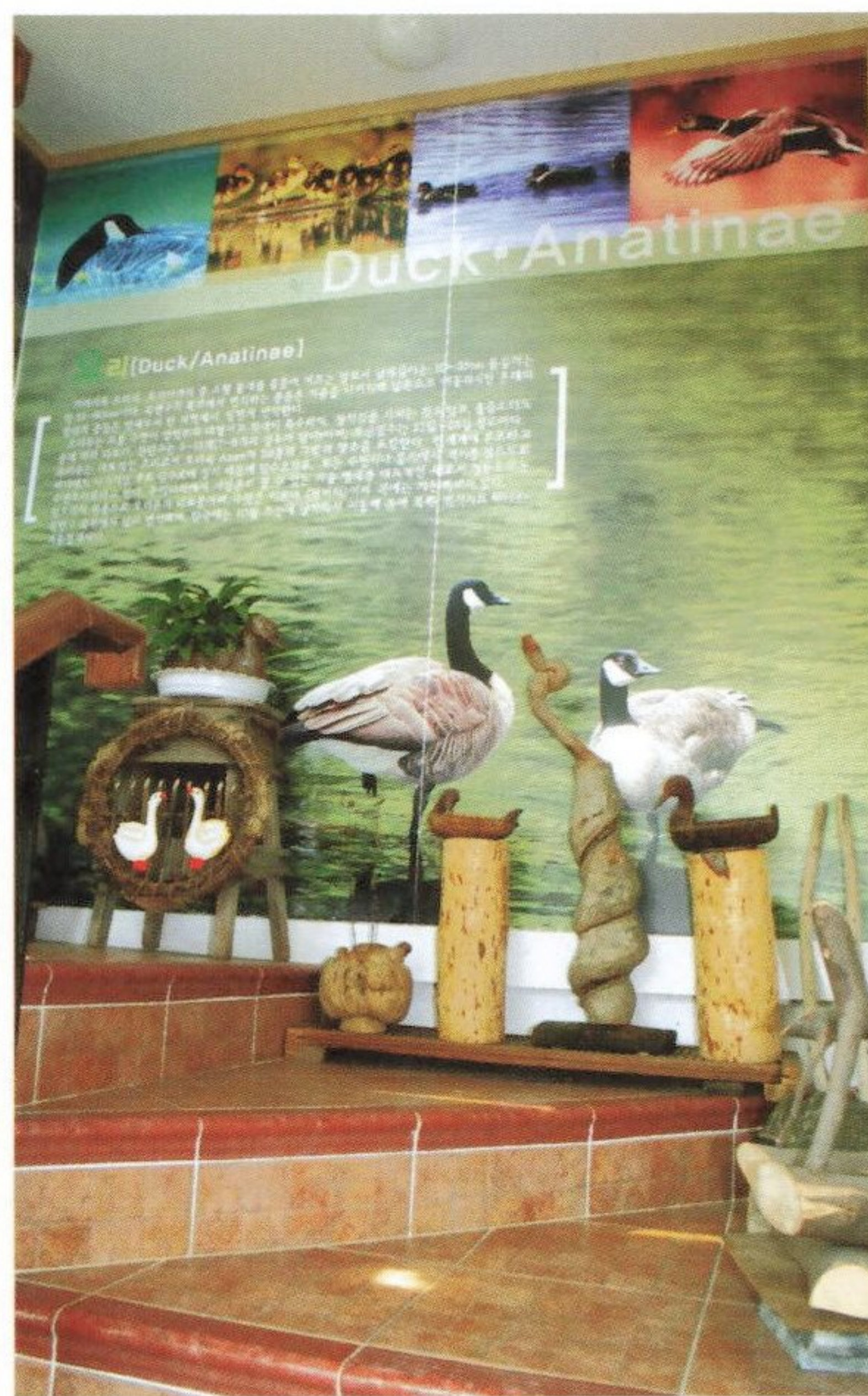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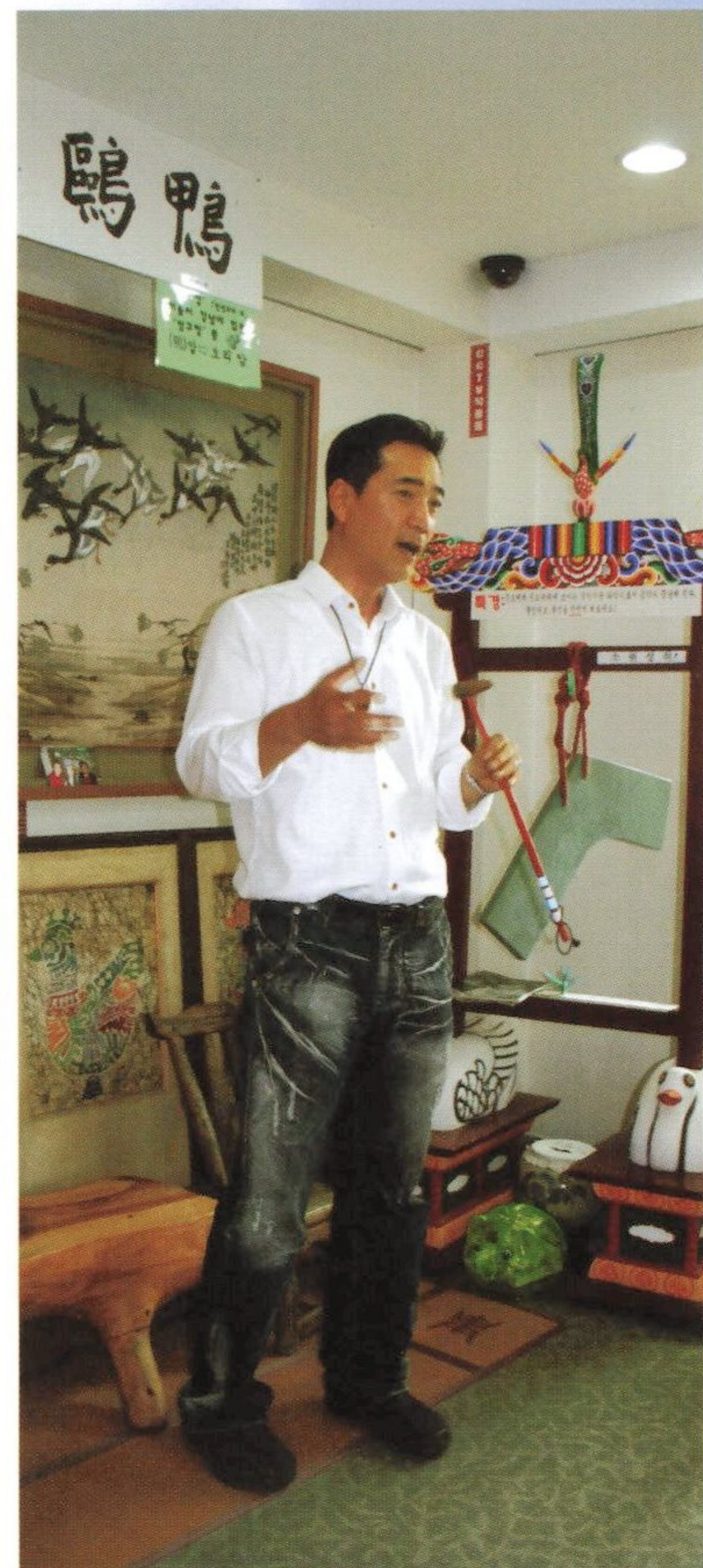
활짝핀 야생화와 오리모양 토우 등으로 꾸며진 정원



오리박물관 내부



오리박물관 내부



우리전통악기 '특경'을 설명하고 있는 박상용 관장

단한 생활소품과 장난감 등이 전시되고 있다. 한 쪽 벽면에는 박관장이 가장 애

낀다는 아내의 오리 조각 작품과 오리사냥개를 그린 딸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다. 초창기만 하더라도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응원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다.

2층 전시관은 보다 다양한 작품들이 체계적으로 전시되고 있다. 우선 입구에 들어서면 우리 전통악기인 '특경'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7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제작한 특경은 큰 경(磬) 하나를 틀에 매단 악기로 음악을 끝낼 때 치는 악기인데, 바로 이 악기 하단모형이 오리이다. 오리가 등장하는 그림과 오리가 수놓아진 조각보를 지나 오리모형의 도자기, 목공예, 숯대, 오리알공예, 심지어 오리발까지 전시된 이 곳을 돌다보면 '오리아빠' 박상용 씨의 열정에 절로 탄성이 나온다.

또, 어린이 관람객을 위해서는 오리탁본 만들기, 오리모형 악기 오카리나 연주하기, 오리종이 접기, 오리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간혹 오리전문음식점으로 아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요

즘은 조금씩 입소문이 나면서 부산과 울산, 양산 등에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오리의 모든 것을 알리고 싶다는 박상용 관장. 오리박물관이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문의/오리박물관(055-389-1311, www.duckmuseum.co.kr)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대극장 >> 중극장 >> 소극장 >>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United Korean Orchestra) 2009 유망 신예 음악회

7월 1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음악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부산 최초의 민간 자선 오케스트라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와 신예유망주들이 들려주는 신예 음악회.

프로그램

드보르작/첼로 협주곡 나단조 작품 104, 제 1악장
생상/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작품 28
로자로/마림바 협주곡 제1번, 제 3, 4악장 등 수곡
· 지휘/이동신

· 협연/안수빈(첼로, 부산예중 3년), 이유진(마림바, 부산예중 3년), 최진웅(호른, 부산예고 2년), 조세실(바이올린, 브니엘예고 3년), 박송희(마림바, 부산예고 1년), 김선훈(플루트, 신라대 1년), 조기준(비올라, 알로이시오 전자기계고 3년), 김소정(마림바, 동의대 1년)

■ 관람료 초대

■ 문의 UKO(731-4470, 011-589-3111)

YMCA 오페라합창단 창단연주회

7월 2일 목요일 오후 8:00 대극장



지난 3월, 부산YMCA의 사회적 일자리 참여기관으로 출발한 YMCA 오페라합창단은 문화 소외계층 및 일반인,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예술계에 활력을 불어 넣고, 대중들과 소통하는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예술감독인 동아대학교 김명규교수 지휘로 존 레빗의 '페스티발 미사곡', 액팅을 곁들인 오페라합창, 뮤지컬합창 등을 들려준다.

· 지휘/김명규(동아대학교 교수, YMCA오페라합창단 예술감독)

■ 관람료 초대

■ 문의 YMCA오페라합창단(070-8261-6209)

양옥진 첼로 독주회

7월 2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이화 경향콩쿠르, 예원콩쿠르, 줄리아드 콩쿠르에 우승한 양옥진은 줄리아드 오케스트라, 코리안 심포니, KBS 교향악단,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New Amsterdam 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 베토벤 첼로 소나타 전곡연주회, I 트리오 연주회, 2009 부산국제음악제 등에서 음악애호가들과 만나왔다.

미국 College of Morris에서 음악교수 겸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을

세계적인 소프라노 박은주 First Concert in Busan

7월 4일 토요일 오후 7:30 대극장

크리스탈 같은 음질과 때론 세련되고 우아하게 때론 거침없는 불꽃같은 열정적인 연기력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소프라노 박은주 부산독창회.

1991년 에리카 퀘르 성악콩쿠르 1위를 시작으로 룩셈부르크 국제 콜로라투라 성악콩쿠르 장려상, 로베르트 슈톨츠 콩쿠르 관객상, 브레머하펜 관객상을 수상한 박은주는 아당의 오페라 '롱 쥐모의 우편배달부' 공연으로 성악가에게 있어 큰 영광인 독일 노드라인 베스트팔렌 주 2003 최고의 성악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프로그램

R.슈트라우스/위령의 날, 자유로움, 체칠리에, 밤에 사랑, 굶은 날씨
C.드뷔시/무언극, 광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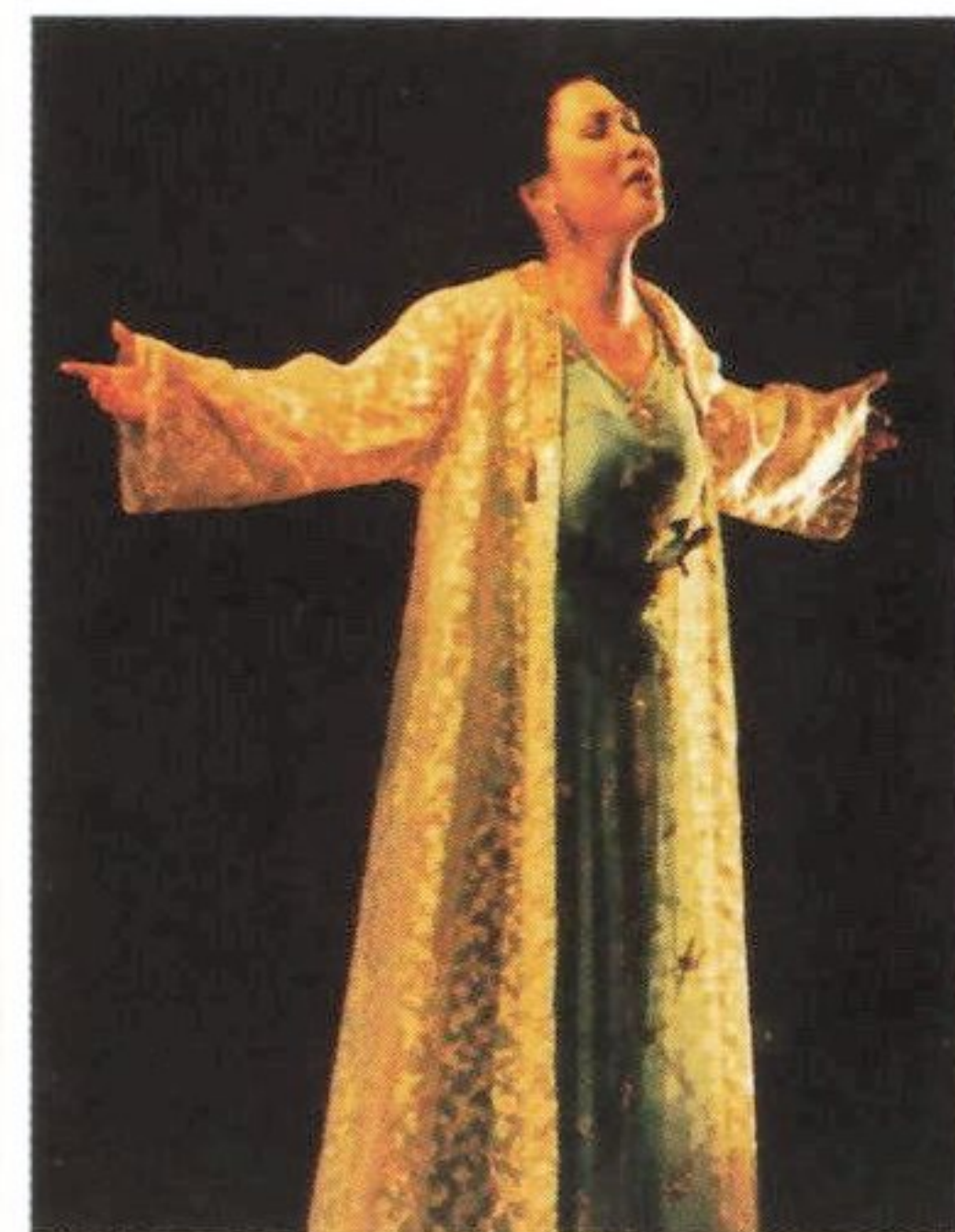
김동진/수선화

푸치니/오페라 '토스카' 중 '별은 빛나건만' 등 수곡

· 특별출연/테너 이정원 · 피아노/알렉산더 빈터슨

■ 관람료 VVIP 150,000원 · VIP 120,000원 · R석 80,000원 · S석 50,000원
A석 30,000원 · B석 20,000원

■ 문의 솔오페라단(1544-9373, 500-5222)



금난새와 유라시안 필이 함께하는 Home plus Green Concert

7월 5일 일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재치있는 해설로 청중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지휘자 금난새와 유라시안 필, 홈플러스가 함께 하는 'Green Concert'.

1부에서는 스페인을 무대로 정열의 집시 카르멘과 순진하고 고지식한 하사관 돈호세의 사랑을 그린 오페라 '카르멘', 2부에서는 비제의 교향곡 1번을 들려준다.

계명문화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메조소프라노 김정화와 베르디, 파르마, 비오티 베르첼리, 몽세라 까바예, 비냐스 등 세계 유명 국제 성악콩쿠르에서 우승하고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계명대학교 교수 하석배가 협연한다.

프로그램

비제/오페라 '카르멘' 하일라이트

비제/교향곡 제 1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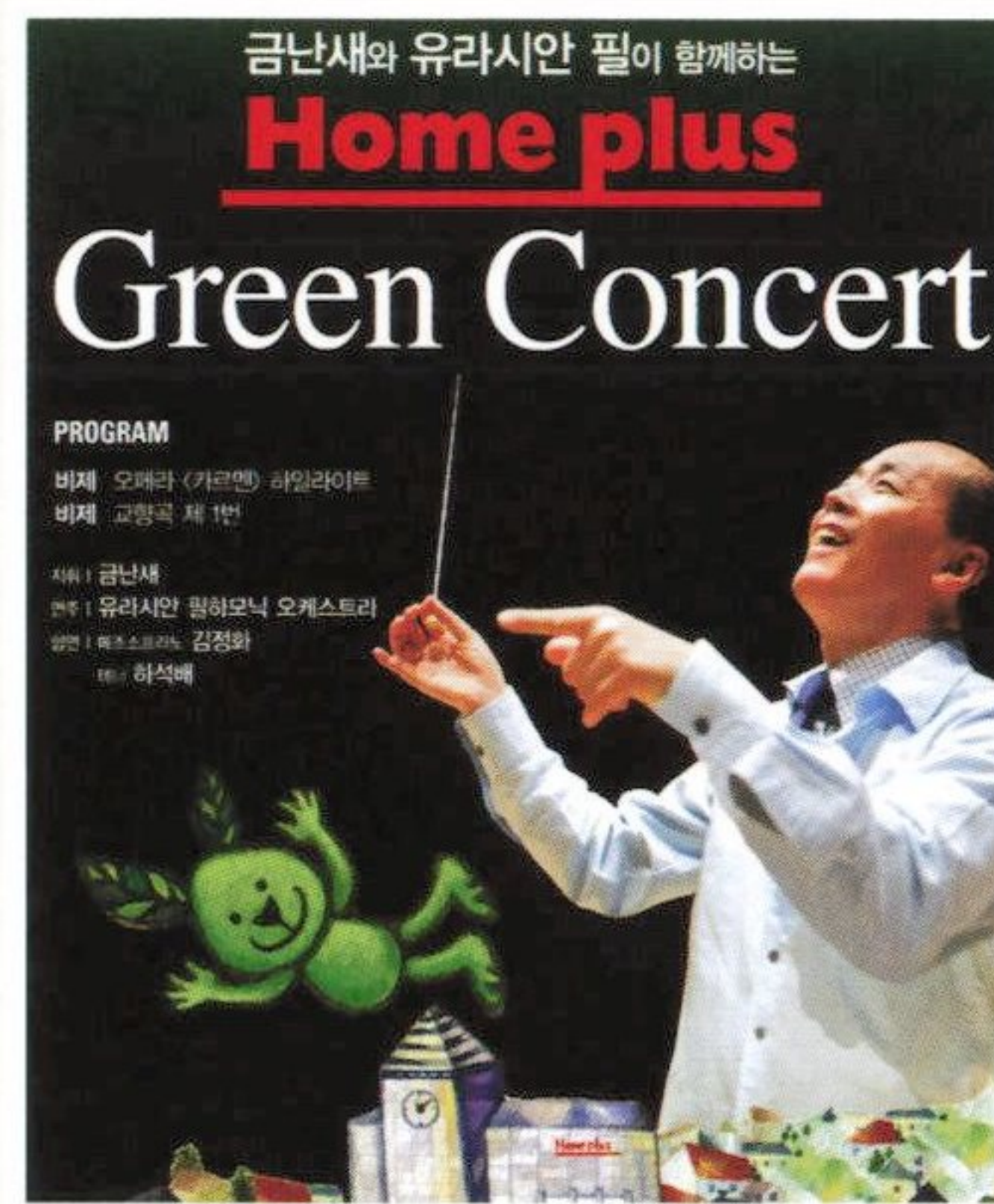
· 지휘/금난새

· 연주/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협연/테너 하석배(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교수), 메조소프라노 김정화(계명문화대학 생활음악과 교수)

■ 관람료 초대

■ 문의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02-3473-8744, 010-9114-8432)





역임하고 2007년 귀국,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양옥진은 이번 무대에서 현대작곡가인 리게티와 크롬브의 첼로 솔로소나타를 부산에서 초연한다.

프로그램

포퍼/첼로솔로 소나타
크롬브/첼로솔로 소나타(부산초연)

부루흐/콜 니드라이 등 수곡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제 18회 부산무용제

7월 7일-9일 화-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지역 무용인들의 개성 넘치는 창작의 장이 될 제 18회 부산무용제. 올해는 현대무용단 3개팀, 발레 2개팀, 축하공연 3개팀이 참가 화려한 무용축제를 펼친다.

- 7일
부산시립무용단 개막 축하공연 '백두대간' (안무/홍기태)
브이쉬발레단 'Red Appel' (안무/김희정)
현대무용단 주-□ '에로스에게 묻다' (안무/조영미)
- 8일
부산발레연구회 '끝없는 감동' (안무/박종위)
휘 Dance Company '미친 개미들' (안무/손영일)
- 9일
M-NOTE 무용단 '공존, 유감' (안무/신승임)
2008년 대상 강미리 홀무용단 축하공연 '처음 꽃을 사랑한 사람'
부산국립국악원 폐막 축하공연 '가인전목단' (안무/엄옥자)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부산무용협회(632-5116)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 8회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7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강경희 김옥규 박정은 김한솔 전주희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우수 단원들이 들려주는 다양한 협주곡의 세계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51회 정기연주회 2009 부산연주인시리즈 III 아테르베리의 'West Coast Pictures'

7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제 10대 수석지휘자 리신차오 취임으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들려주는 제 451회 정기연주회.

이동신 부지휘자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스웨덴 작곡가 아테르베리의



지휘 이동신 피아노 황성훈 작곡 최석태

'West Coast Pictures' 한국 초연무대와 부산연주인 시리즈 주인공으로 선정된 작곡가 최석태와 피아니스트 황성훈의 피아노 협연 무대로 어느 때 보다 화려하게 펼쳐진다.

교향시 'Das Leben(인생)'으로 첫 무대를 여는 최석태는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에서 디플롬(작곡전공)을 획득했다. 독일에 머물고 있는 황성훈은 Maria Canals 국제콩쿠르, Epinal 국제콩쿠르, Porto 국제콩쿠르, Jaen 국제콩쿠르 등 총 34개의 국제콩쿠르에 입상한 바 있는 주목받는 피아니스트이다.

프로그램

최석태/교향시 'Das Leben(인생)'
모차르트/피아노 협주곡 제 9번 내림마장조 '쥬놈' 작품 271
아테르베리/교향곡 제 3번 라장조 '서부 해안의 풍경' 작품 10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4)

아지무스 오페라단 뮤지컬 '퀴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7월 10일-11일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00 대극장

6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선보인 아지무스 오페라단이 선보이는 뮤지컬 '퀴바디스'.

베드로의 고백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를 부제로 하는 이 작품은 예수를 부정한 베드로가 로마로 가게 된 이유와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기까지의 사건을 감동적인 장면들로 묘사하고 있다.

뮤지컬의 감동을 위하여 클래식, 랩, 락, 국악, 퓨전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김종상 화백의 성화 31점을 사용한 무대배경, 춤, 마술, 서커스 등의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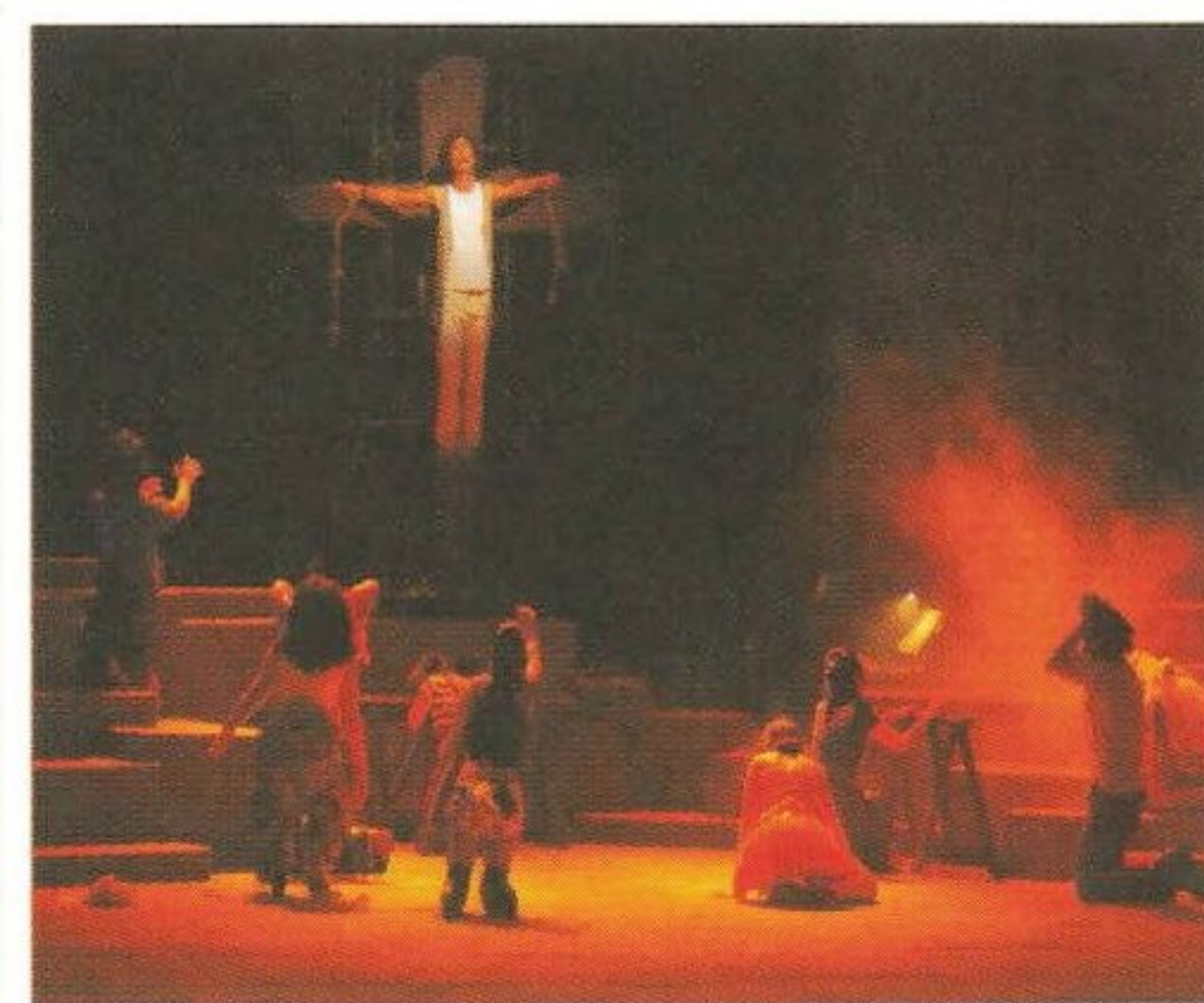
경희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독일 카셀국립음악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카셀국립극장 정단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친 바 있는 테너 최윤호가 예수로, 서울대학교와 이태리 로마 산타세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오페라 무대에서 활약해온 소프라노 백선아가 마리아로 출연한다.

· 대본, 작곡/정석훈 · 무대/김종상, 남영우 · 미디어곡/윤제

출연

최윤호(예수), 원경하(베드로), 구원모(시몬), 정은주(막달라리아), 백선아(마리아), 구태형(네로황제), 최윤성(성모마리아), 이정민(서기관), 이주영(제사장), 임대균(안드레), 김명훈(요한) 외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 문의 아지무스오페라단(526-4048, 011-9520-4649)



프로그램

비외탕/바이올린 협주곡 제 4번 중 제 4악장
 라이네케/플루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발라드'
 드보르작/바이올린 협주곡 중 제 1악장, 첼로 협주곡 중 제 3악장
 브루흐/ '스코틀랜드 환상곡' 중 제 4악장
 · 지휘/이동신(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 협연/강경화(바이올린, 부산대 4년), 김옥규(바이올린, 부산대 2년),
 박정은(바이올린, 부산예고 2년), 김한솔(첼로, 부산예고 2년),
 전주희(플루트, 인제대 4년)

- 관람료 균일 2,000원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4)

최지은 피아노 독주회

7월 11일 토요일 오후 7:30 중극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피바디 음악원, 오스틴대학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귀국, 다양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최지은 피아노 독주회.
 최지은은 부산음악콩쿠르 피아노부 1위에 입상,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한 바 있다.

프로그램

베토벤/폴로네이즈 다장조 작품 89
 프로코피예프/피아노 소나타 제7번 작품 83
 슈만/카니발 작품 9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 의 예은예술기획(632-6904)

이민아의 춤 공연

7월 12일 일요일 오후 6:00 중극장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 중요무형문화재 제 97호 살풀이춤 이수자로 우리 춤을 전승, 보급해온 이민아의 춤 공연.

프로그램

이매방류 기원무, 입춤, 이매방류 '승무', 이매방류 살풀이춤, 채상놀이, 진도북춤
 · 특별출연/김상헌(부산예술단 대표), 김수진(울산시립무용단 차석), 류지연(대구

국악원 단원), 하정화, 안인영(이상 부산예술단 단원), 김혜미(국립부산국악원 단원), 노유나(브니엘예고 강사)

- 관람료 초대
- 문 의 이민아(010-5051-0242)

부산상공회의소 창립 120주년 기념음악회 장사익과 친구들

7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부산상공회의소 창립 120주년을 맞아 부산경제인과 부산 시민을 위해 마련하는 부산상공회의소 창립 120주년 기념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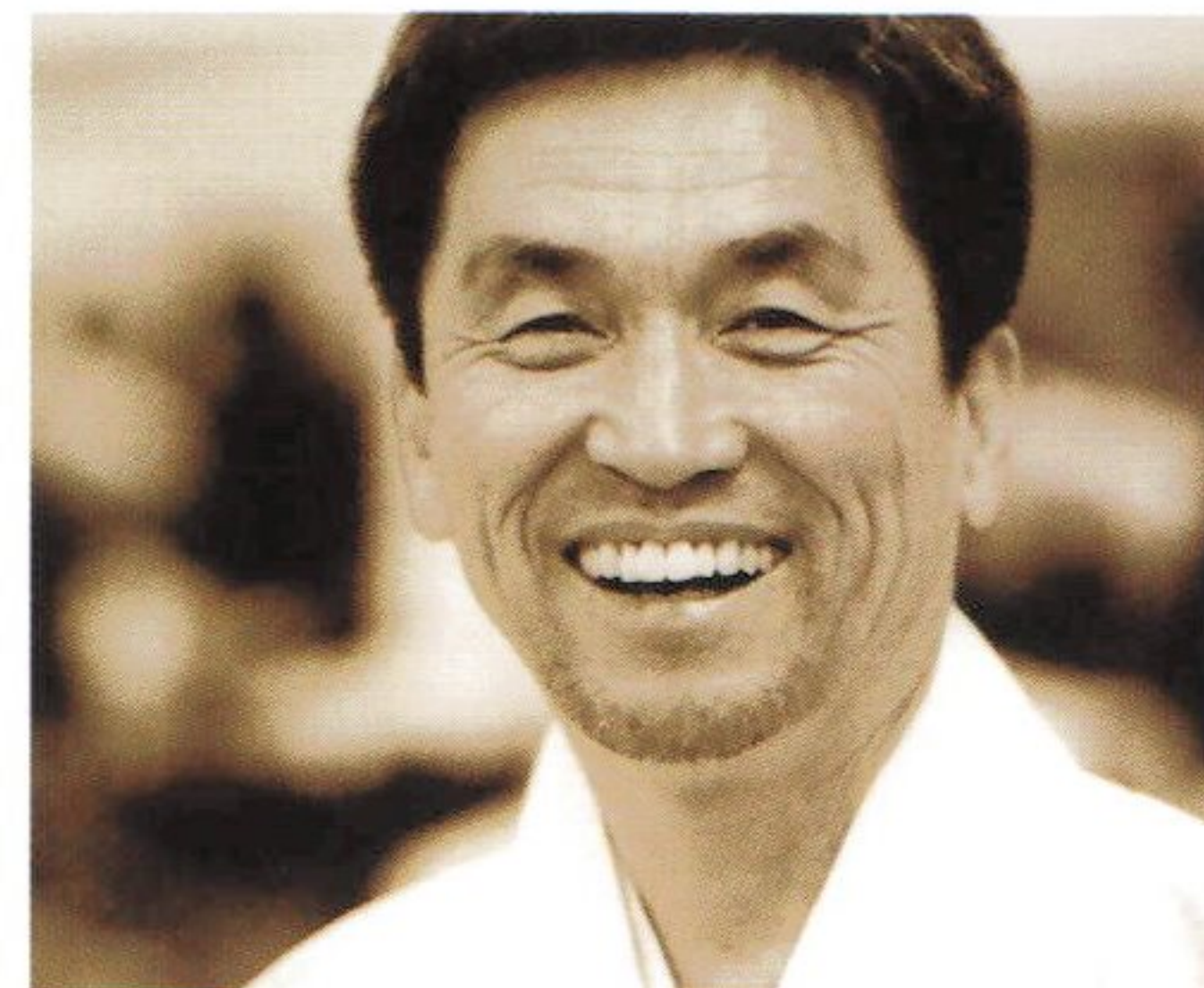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해나가는 부산경제인의 화합의 마당이 될 이번 무대는 구수한 소리로 사랑받고 있는 '장사익과 친구들'이 화려한 무대를 열어준다.

1980년 국악에 입문한 장사익은 1994년 '장사익 소리판 하늘가는 길'을 초연하면서 소리꾼으로 정식 데뷔했다. 미국, 베트남, 이란,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공연을 통해 국내에 이어 해외에도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장사익은 전주 대사습놀이 공주 농악 장원을 비롯해 KBS 국악대상 대통령상, 2006년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상을 수상했다.

프로그램

허허바다, 황혼길, 아버지, 여행, 이게 아닌데, 국밥집에서, 찔레꽃, 삼식이+바보천사
 대전부르스, 댄서의 순정+19살 순정, 눈동자, 봄날은 간다 등 수곡

- 관람료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해 입장 가능)
- 문 의 부산상공회의소(990-7081)



7월 한낮의 유U; 콘서트 '유U; 콘서트와 유럽여행을'

7월 21일 화요일 오전 11:00 대극장

유럽 여러 나라의 클래식 음악과 팝, 우리 가요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한낮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7월 유U; 콘서트.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를 시작으로 헝가리, 스페인,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의 음악을 들려주는 이번 무대

는 음악감독 박성완 교수(부산대 음악학과)가 이끄는 가마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Gamamoi Philharmony Orchestra), 소프라노 김문희(전 부산대 교수), 바이올린 황지원(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클라리넷 손기영, 남성 클래식 보컬 그룹 The Feel 등이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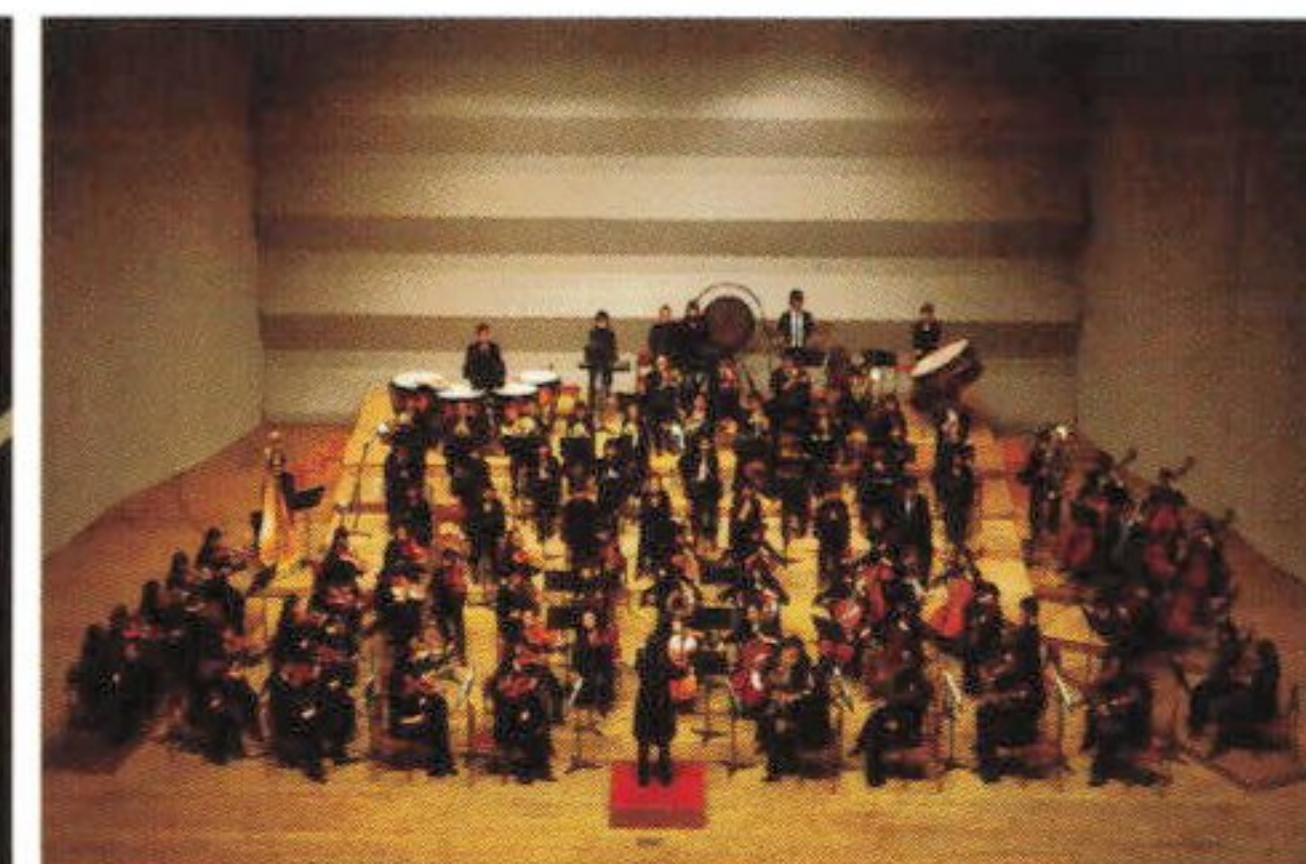
출발 여행을 떠나요(조용필), Fly me to the Moon(Bart Howard)
 헝가리 '헝가리 무곡 제 6번' (J.브람스),차르다시(V.몬테)
 오스트리아 '관광열차' 폴카(J.스트라우스 II), 클라리넷 협주곡 가장조 K.622 제 2악장(W.A.모차르트), 스페인 '그라나다' (A.라라), 스페인 교향곡 3-5악장(E.랄로) 등 수곡

- 지휘/박성완
- 관현악/가마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 소프라노/김문희 · 클라리넷/손기영 · 바이올린/황지원
- 특별출연/남성 보컬그룹 'The Feel'

- 관람료 균일 15,000원(국제신문 및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국제신문 문화사업국(500-5222)



지휘 박성완



가마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팝음악평론가 임진모와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는 POP 합창

7월 18일 토요일 오후 7:30 대극장



팝 칼럼니스트 임진모의
맛깔나는 해설로 만나는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
회 팝음악평론가 임진모와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는
POP 합창.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번 무대는 Welcome

To My World, Let it be, Green grass of home,
Mother of mine 등 추억의 팝 음악을 들려준다.

- 지휘/김강규 · 해설/임진모
- 특별출연/연관호과르렛(연관호, 최춘광, 최창근, 김진훈)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 문 의 부산시립합창단(607-3141)

2009 IYF Artist Concert

7월 19일 일요일 오후 7:00 대극장

2009 IYF 세계대회를 기념한 이번 무대는 마리아
칼라스 국제 콩쿠르에서 수상한 리릭&드라마티코 소
프라노 베로니카 지오에바(Veronica Dzhioeva), 상
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 교수로 있는 메조소프라노 라
리사 테드토바, 마린스키 극장 오보이스트인 빅터 후
쑤, 마리아 유디나 국제 경연 우승을 차지한 첼리스
트 드미트리 어민 등이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프로그램

벨리니/오페라 '노르마' 중 'Casta Diva'
라흐마니노프/Vocalise 작품 34 제 14번 등 수곡

■ 관람료 R석 80,000원 ·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문 의 사단법인 국제청소년연합부산지부
(624-0852)

부산시립무용단 2009 여름 마당춤 별주부전-용궁으로 간 토끼

7월 23일-24일 목-금요일 오후 8:00 야외무대

매년 여름 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홍기태가 한국
의 전통적인 소재를 해학과 신명, 감동이 살아있는

마당춤으로 재구성, 부산시민들에게 특별한 재미를
선사해온 부산시립무용단의 2009 마당춤.

'별주부전' 전통 설화를 충실하게 살리면서 태평
무, 화관무, 교방춤과 풍악, 수영야류, 훈령무 등 우리
춤의 멋과 흥을 더해 관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
사한다.

- 안무, 구성/홍기태(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 연출, 각색, 대본/황해순
- 특별 출연/박성희(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단
원), 신문범(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 관람료 무료(우천시 대극장)

■ 문 의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부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합창단 창단연주회

7월 25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2008년 8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60여명의 단
원으로 구성된 부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합창단은 그동
안 2차례의 수련회와 10여 차례의 공연을 통해 부산
극동방송의 사역과 함께 활동해왔다. '선물'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연주회는 정통성가 등 다양한
장르 음악과 핸드벨과 신나는 율동을 함께 선보인다.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 의 부산극동방송(017-556-4352)

중남미 문화축전 부산공연

7월 27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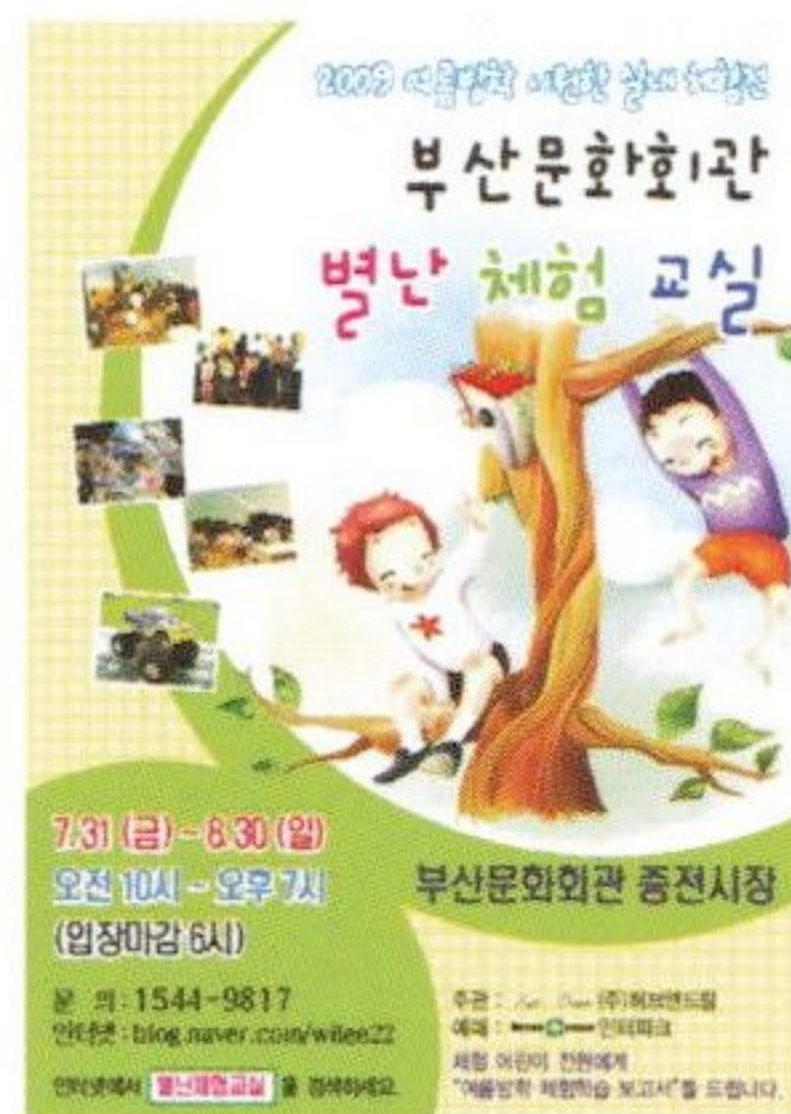
2003년 유네스코 '인
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
작'으로 지정된 콜롬비아
'바랑키야 카니발' 팀과
안데스 현악기, 10여 가
지 안데스 전통 관악기를
들려줄 페루의 '라파엘 몰리나', 남아메리카 전역에
걸쳐 보급된 도미니카 메렝게그룹 '엘 프로디쥬' 등
중남미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 관람료 초대

■ 문 의 부산광역시청 국제협력담당관실(888-3531)

2009 여름방학 시원한 실내 체험전 별난 체험 교실 '꾸러기 오감여행'

7월 31일-8월 30일(일) 오전 10시 ~ 오후 7
시까지(입장 마감 오후 6시) 중전시실



감성과 창의력, 재능을
키워주는 온가족 어린이
체험전으로 별난미술관 과
자 갤러리, 곡식 갤러리,
거꾸로 방/세계명화 틀린
그림 찾기 등 전시 행사와
친환경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 바람나라 스펀지 놀
이터 등 놀이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관람료 어린이 12,000원 · 성인 10,000원

(24개월 미만 유아-보호자 동반시 무료입장,
장애인, 군경, 경로우대 50%할인, 부산시립예술
단 정기회원 카드 제시시 2,000원 할인)

■ 문 의 허브앤드림(1544-9817)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과천청소년교 향악단의 클래식 향연

8월 1일 토요일 오후 3:00 대극장



탄탄한 구성과 수준높은 연주로 창단 4년만에 예
술의전당에서 말려 교향곡 시리즈를 성공리에 공연,
화제를 모은 과천청소년교향악단의 부산연주회.

프로그램

베르디/오페라 나부코 서곡
브람스/헝가리무곡 제 1번
무소르그스키/전람회의 그림 등 수곡

- 지휘/박진기
- 협연/김민지(피아노 · 과천중 3년, 과천청소년교향악
단 단원), 강민지(첼로 · 부산센텀초등 6년)

■ 관람료 전석 초대

■ 문 의 과천청소년교향악단(02-507-1498)

음악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1일 부산 피아노 트리오 연주회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 첼리스트 배종구, 피아니스트 제갈삼으로 구성된 부산피아노트리오 초청무대.

프로그램

하이든/교향곡 제 104번 '런던' 2악장

제갈삼/피아노와 첼로, 바이올린을 위한 'Elegy' 등

· 찬조출연/소프라노 김유진 · 피아노/안준희



■8일 이리나 바이올린 독주회 'Passion'

미국 줄리어드음대와 메네스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이리나 독주회.

이리나는 현재 마산시립교향악단 악장, 앙상블 '아

이리스 인 부산'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프로그램

이차이/바이올린 소나타 작품 27 제 4번

라흐마니노프/보칼리제 작품 34 제 14번 등 수곡

· 피아노/김란

■15일 백동훈 클라리넷 독주회

러시아 노보시비리스크 중앙영재음악학교와 프랑스 뫼동 에콜노르말을 졸업하고 현재 말메중국립음악원에 재학중인 클라리네티스트 백동훈 연주회.

프로그램

메시앙/ '시간의 종말' 중 3악장

풀랑크/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등 수곡

· 피아노/이진성

■22일 조성철 & 최낙주 플룻 듀오 리사이틀



조성철



최낙주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단원이자 페르티바 플루트 라이어 음악감독 겸 리더로 활동중인 조성철과 부산 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낙주가 함께하는 플루트 듀오무대.

프로그램

Koechlin/두대의 플루트를 위한 소나타 작품 75

도플러/La Sonnambula 작품 42 등

· 피아노/장효진

■29일 여름방학 청소년을 위한 특별음악회(1)

차세대 연주자들이 마련하는 여름방학 특집 청소년을 위한 특별음악회.

· 출연/손소정(플루트), 정상윤(바이올린), 이준(바이올린), 김지영(소프라노), 이정형(테너), 박진영(피아노)

■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우크라이나 프로코피에프 심포니 오케스트라 초청음악회

7월 3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김대영

방미애

우경준

75년의 역사를 지닌 우크라이나 프로코피에프 심포니오케스트라 초청음악회.

기량이 우수한 300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프로코피에프 심포니오케스트라는 우크라이나 음악계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악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슬라브행진곡

라흐마니노프/피아노협주곡 제 2번 등 수곡

· 지휘/알렉산더 돌린스키

· 협연/김대영(피아노), 방미애(소프라노), 우경준(테너)

■ 관람료 VIP 80,000원 ·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학생 10,000원

■ 문의 이진옥(010-9798-9434)

국립부산국악원 토요일신명무대 우리소리, 우리춤

매주 토요일 오후 3: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국립부산국악원 예술단이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신명넘치는 우리소리, 우리춤 한마당.

■4일 프로그램

만파정식지곡, 가인전목단, 가야금병창 '심청가', 가곡



'언락, 태평가, 승무 등

■11일 프로그램

수제천, 입춤, 여창가곡 '우락', 가야금중주 '뱃노래', 검무, 판굿 등

■18일 프로그램

중광지곡 중 '상령산', 판소리 '수궁가', 무산향, 한세현류 피리산조, 가야금병창 '사철가' 등

■25일 프로그램

수요남극지곡, 판소리 '적벽가', 춘앵전,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살풀이, 동래학춤 등

■ 관람료 무료

■ 문의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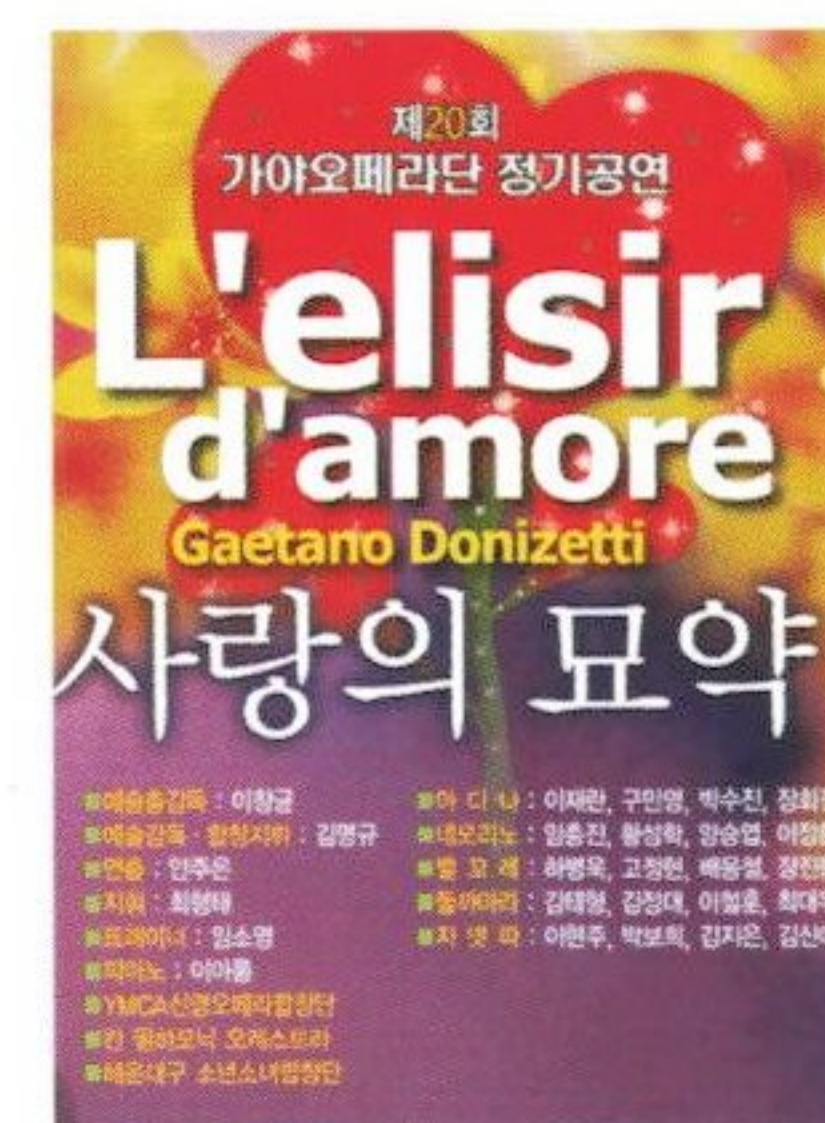
가야오페라단 제 20회 정기공연 사랑의 묘약

7월 4일 토요일 오전 10:00, 오후 12:00,

3:00, 6: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7월 6일-10일 월-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온 동네 청년들이 흠모하는 아디나와 그녀를 사랑하는 가난한 청년 네모리노의 이야기를 그린 도니체티의 희극 오페라 '사랑의 묘약'.

· 예술총감독/이창균

· 연출/안주은

· 예술감독, 합창지휘/김명규

· 지휘/최형태

· 출연/이재란, 구민영, 박수진, 장화진, 임충진, 황성학, 양승엽, 이정환, 하병욱, 고정현, 배웅철, 장진웅, 김태형, 김경대 외

· 오케스트라/칸필하모닉오케스트라

· 합창/YMCA오페라합창단, 해운대구소년소녀합창단

· 피아노/이아름

■ 관람료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 문의 가야오페라단(747-6139)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송학 피아노 리사이틀

7월 4일 토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동아대학교 기악과를 졸업하고 현재 동 대학원에 재학중인 송학 피아노 독주회.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작품 10 제 7번
슈만/카니발 제 9번

아렌스키/피아노 트리오 작품 32 제 1번
· 특별출연/방효준(바이올린), 배성애(첼로)

- 관람료 무료
- 문의 송학(010-7450-5657)

김기자의 첫 번째 판소리 발표회 홍보가 완창

7월 5일 일요일 오후 2:00 시민회관 소극장



현재 부산, 경남 동초제 판소리연구회 이사로서 있는 국악인 김기자의 '홍보가' 완창무대.

지난 2004년 캐나다 밴쿠버 순회공연을 가졌던 김기자는 그동안 부산국악대전과 진주개천예술제 전국국악대전 등에서 입상한 바 있다.

- 관람료 초대
- 문의 김현(010-2044-6236)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화요음악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가톨릭센터 소극장

- 7월 제 37회 부산작곡가협회 정기 창작발표회 '피아노 페스티벌'
부산의 창작음악 발전을 위해 작품활동을 가져온 부산작곡가협회 회원들이 들려주는 창작곡 발표무대.
· 작곡/박규동, 태미, 정수란, 이옥영, 김성덕, 조희주
정원상
· 피아노/양광기, 서숙지, 최민경, 김은희, 이미라, 서양지
- 14일 한 여름의 피아노 트리오
'알츠부터 탕고까지'

뉴프라이ム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동민청과 뉴프라이ム 오케스트라 수석 첼리스트 박정열, 피아니스트 최지혜가 들려주는 앙상블 무대.

21일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알고 듣는 가곡과 아리아의 밤'
소프라노 이수진, 윤지영, 장은영, 테너 이정환, 장진규, 베이스 김정대가 출연,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피아노/전은영 · 해설/장진규

28일 소프라노 조지현과 국악양상블 날빛의

가슴으로 부르는 노래 'Preghiera(기도)'
교과서 음악회와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통해 관객들과 만나온 소프라노 조지현과 국악양상블 날빛이 함께하는 크로스오버 무대.

- 관람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 문의 가톨릭센터(441-3788)

계명대학교 성악과 귀향음악회

7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 출신의 계명대학교 성악과 재학생 김은혜, 김성주, 이세기, 남경호, 김민경, 강나경이 함께하는 귀향음악회.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학구적인 무대로 마련된다.

- 관람료 초대
- 문의 김성주(010-9733-4540)

소프라노 장은영, 테너 김지호 2색 듀오 콘서트

7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다목적홀



장은영



김지호

독일 카를스루에 국립음대 석사과정을 졸업한 소프라노 장은영과 독일 쾰른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블루클라시아합창단 지휘자로 있는 테너 김지호가 함께하는 듀오무대로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슈만/아름다움을 좋아하고
베르디/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헨델/그리운 나무 그늘이여 등 수곡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부산우드윈드앙상블 반갑다 클래식

7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다목적홀



2005년 창단, 그동안 5차례 정기연주회와 금정수요음악회, 을숙도문화회관 '토요뮤직점프', 부산시립미술관 '토요라이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책사랑54년 대형서점
지하1층~지상5층

전국최고 종합지도(지구본)센터(과장아님)
국산/외국산 최상품 지구본 취급

▶국산:소·중·대·초대형·위성·지세·행정 20%할인
▶외국산:세계·매출·최고·독일·스텔라노바·소·중·대·초대형·공중부양, 뜨고 돌고, 한·영문 지명 선물 최고(교구용)

지도의모든것! 종류가 많아서 일부만 안내

★정부발행지도 지정판매처!
▶1:3000도 판매 각처의 사용 용도에 맞게 주문하는 크기로 연결코팅해 드림
▶관내도, 금융기관, 부동산업, 작업소 참고도면
▶건설, 유통업, 택배, 기타 작업체 필요부분

◎전국전자지도 PC로 지적, 지번도면 확대축소
★전국시·도별, 전국교통관광, 국내외 관광책자

대형액자지도, 지구본 매장관람환영!

각종일부안내
1. 해사도서
2. 기술 전문서적, 국정교과서
3. 경제경영일반, 서고, 컴퓨터관리실
4. 문학, 청소년, 만화, 여성도서

초지일관 · 양심경영
해사도서전문 취급 및 출판 · 전국 최고의 종합지도센터

Since 1955

문우당서점

남동점: 부산광역시 남동구 남동 1171-1 (051-241-5551) 내선
전북점: 051-241-5551 내선
부산점: 051-241-5551 내선
부산광역시 중구 남동 4-6-1

각종일부안내
1. 각종지도
2. 각종외국어서적, 각종사전
3. 국산지구본, 수입지구본, 소·중·대형
4. 아동, 유아, 잡지, 도서문화상품권

Since 1955

문우당

MUN WOO DANG BOOK STORE
www.munbook.co.kr

문우당서점

Tel: 241-5555(대표)
245-2714(공연문의)

자갈치시장 정문이 보이는 아치탑 앞
[미니를 건너편]

각종 공연 예매처
CGV 10%적립, 통도환타지아, 경주월드
할인판매처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음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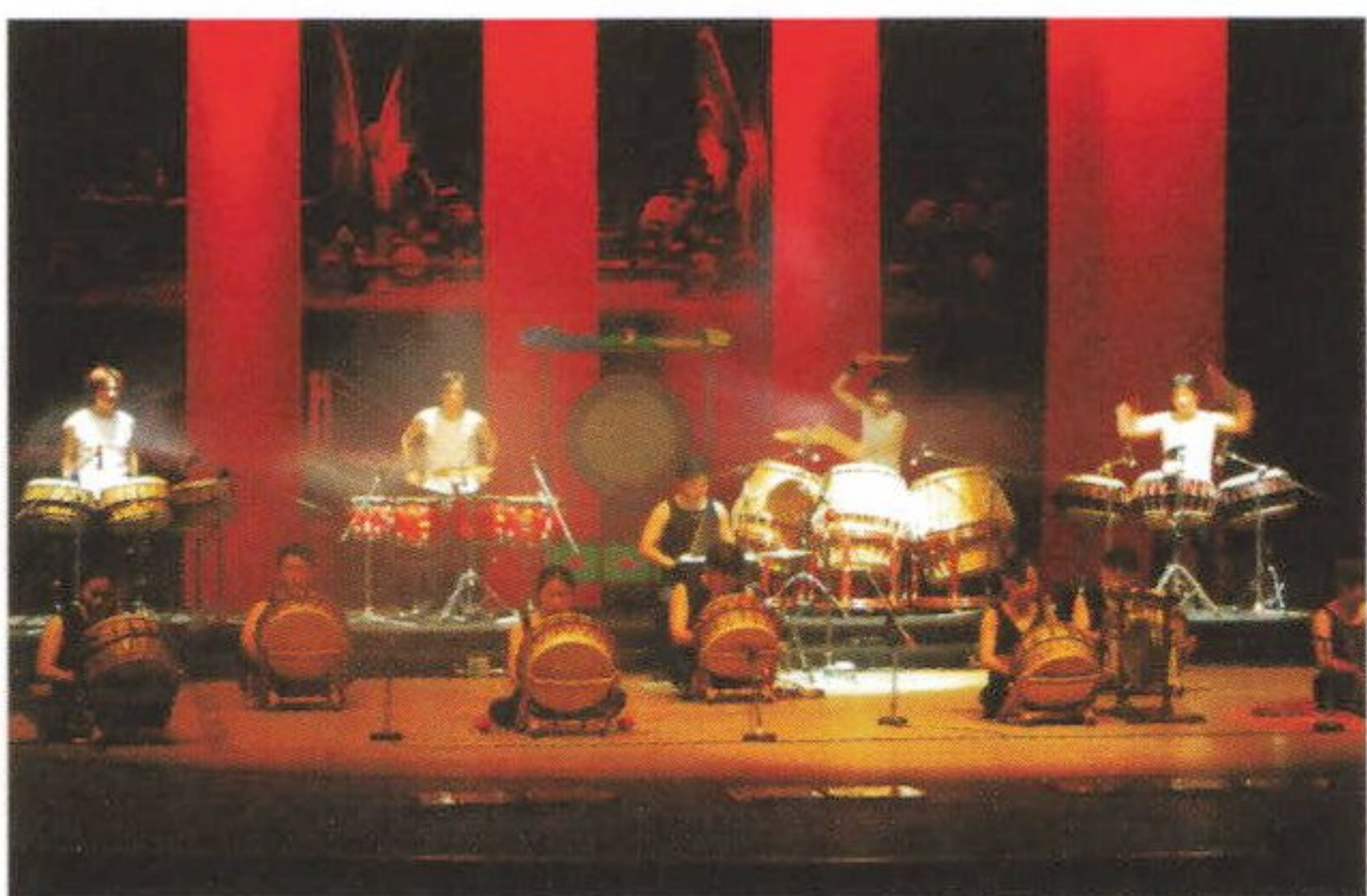
만나온 부산우드윈드앙상블 무대.

페르귤트 모음곡, 나부코 서곡 등 우리에게 친숙한 곡을 목관 5중주로 새롭게 편곡, 감미로운 목관 5중주의 매력을 선사한다.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우리소리 우리가락 터벌림 타로(打路)

7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의 젊은 타악 전문연주자들로 구성된 새울전 통타악진흥회와 악(樂)·가(歌)·무(舞)의 전문 예인 모임 '공유'가 뭉친 신명나는 무대 '타로'.

프로그램

사물놀이, 판소리 '수궁가' 중, 장구합주 '다드리', 국악가요 '천지여 천지여, 배 띄워라', 모듬북합주 '새 울림'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Compagna - 임명진, 김동현 클라리넷 듀오 리사이틀

7월 19일 일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와 에센 폴크방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성남시립교향악단 수석단원으로 활동중인 클라리네티스트 임명진과 한국예술

종합학교에 재학중인 제자 김동현이 함께하는 듀오 무대.

프로그램

슈만/3개의 로망스 작품 94
플랑크/소나타
크루셀/클라리넷을 위한 듀오
거쉬인/세계의 프렐류드 등 수곡
· 피아노/신지아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경기민요와 한국무용

7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다목적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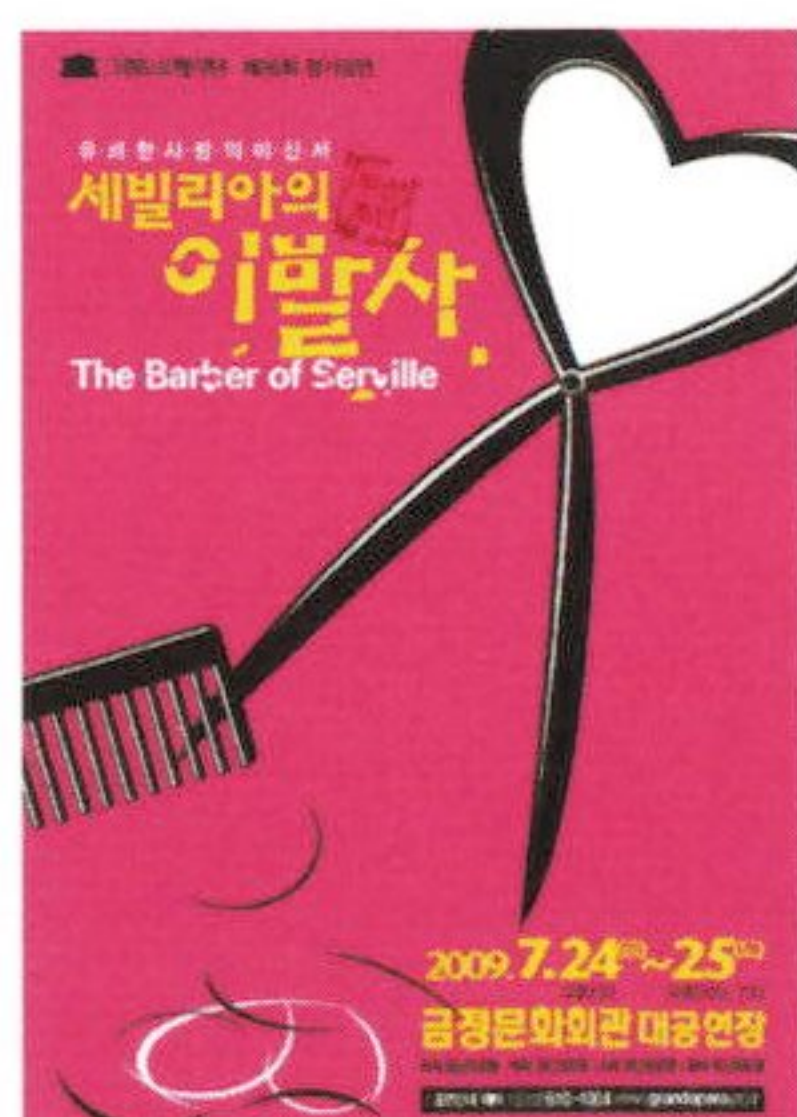


중요무형문화재 제 57호 경기민요 전수자로 활동하는 국악인 이나영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대금 부수석 강영진, 부산시무형문화재 제 3호 동래학춤 이수자 엄선미, 우리소리국악원 단원들이 출연하는 경기민요와 우리춤 한마당.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그랜드오페라단 제 26회 정기공연 롯시니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30, 25일 토요일
오후 4:00,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젊고 유능한 알마비바 백작과 아름답고 영리한 로지나가 세빌리아의 이발사 피가로의 도움으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코믹하게 그린 오페라 부파의 걸작 '세빌리아의 이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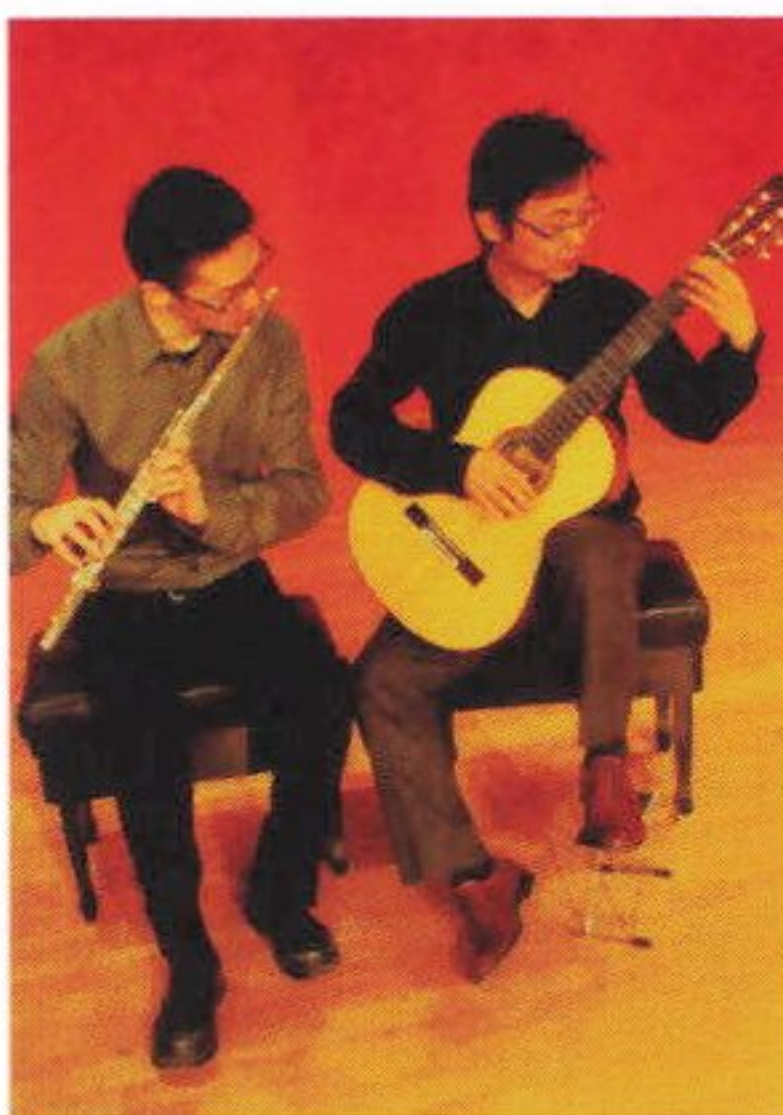
- 예술총감독/안지환(그랜드오페라단 단장)
- 연출/안주은(러시아 노보시비리스크 국립오페라발레극장 조연출)
- 지휘/윤상운(동의대학교 교수)

· 출연/김종화, 강경원, 박현정, 조윤환, 이철훈, 김유진, 김동우, 김성엽, 이지훈, 박연경 외
· 오케스트라/김해필하모닉오케스트라
· 합창단/YMCA오페라합창단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B석 10,000원
- 문의 그랜드오페라단(610-1004)

기타를 사랑하는 사람들 2009 아듀 연주회

7월 26일 일요일 오후 7:00 시민회관 소극장



1999년 창단 후 꾸준한 활동을 펼쳐온 기타를 사랑하는 사람들 2009 아듀 연주회.

독일 뮌스텐음대 동문으로 2004년부터 듀오로 활동하고 있는 클래식기타리스트 배광수, 플루티스트

츠치다 타케시 듀오무대로 마련된다.

프로그램

아구아도/화려한 론도
차이코프스키/꽃의 왈츠
피아졸라/탱고의 역사 등 수곡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김윤중(010-9492-4180)
신성진(010-9603-2009)

지역 주민과 부산 시민이 함께하는 제 19회 글로벌 행복음악회

7월 26일 일요일 오후 5:00 글로벌아트홀



클래식명곡을 비롯해 우리 귀에 친숙한 다양한 레퍼토리로 마련되는 글로벌아트홀 행복음악회.

19회를 맞는 이번 무대는 추계예술대학교와 독일 Hochschule fuer Musik 'Carl Maria von Weber'

Dresden, Hamburger Konservatorium를 졸업하고 2009 글로벌전국음악콩쿠르 일반부 1위없는 2위에 입상한 피아니스트 김민정이 출연한다.

- 관람료 자율 이웃돕기 성금
-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윤대우 피아노 독주회

7월 30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한양대학교 피아노과를 수석졸업하고 미국 맨하탄 음대 석사, 연주자과정, 박사학위를 취득한 피아니스트 윤대우 독주회.

현재 목원대학교 교수로 있는 윤대우는 그동안 뉴욕과 보스턴, 워싱턴, 파리, 서울, 부산, 대전에서 연주회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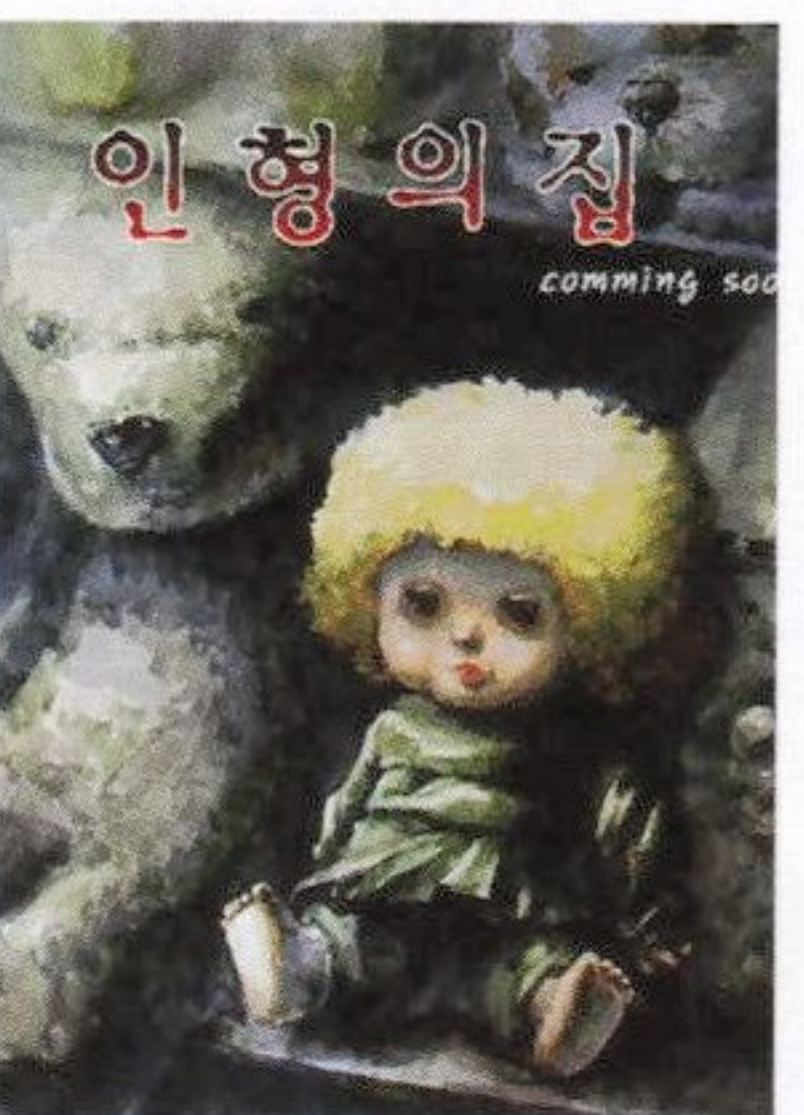
프로그램

슈베르트/소나타 가장조 D.664
 베토벤/소나타 제 28번 가장조 작품 101
 리스트/소나타 나단조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5,000원
- 문의 윤대우(010-3670-8166)

코리아쇼페라단 남량특집 방학숙제 음악극 인형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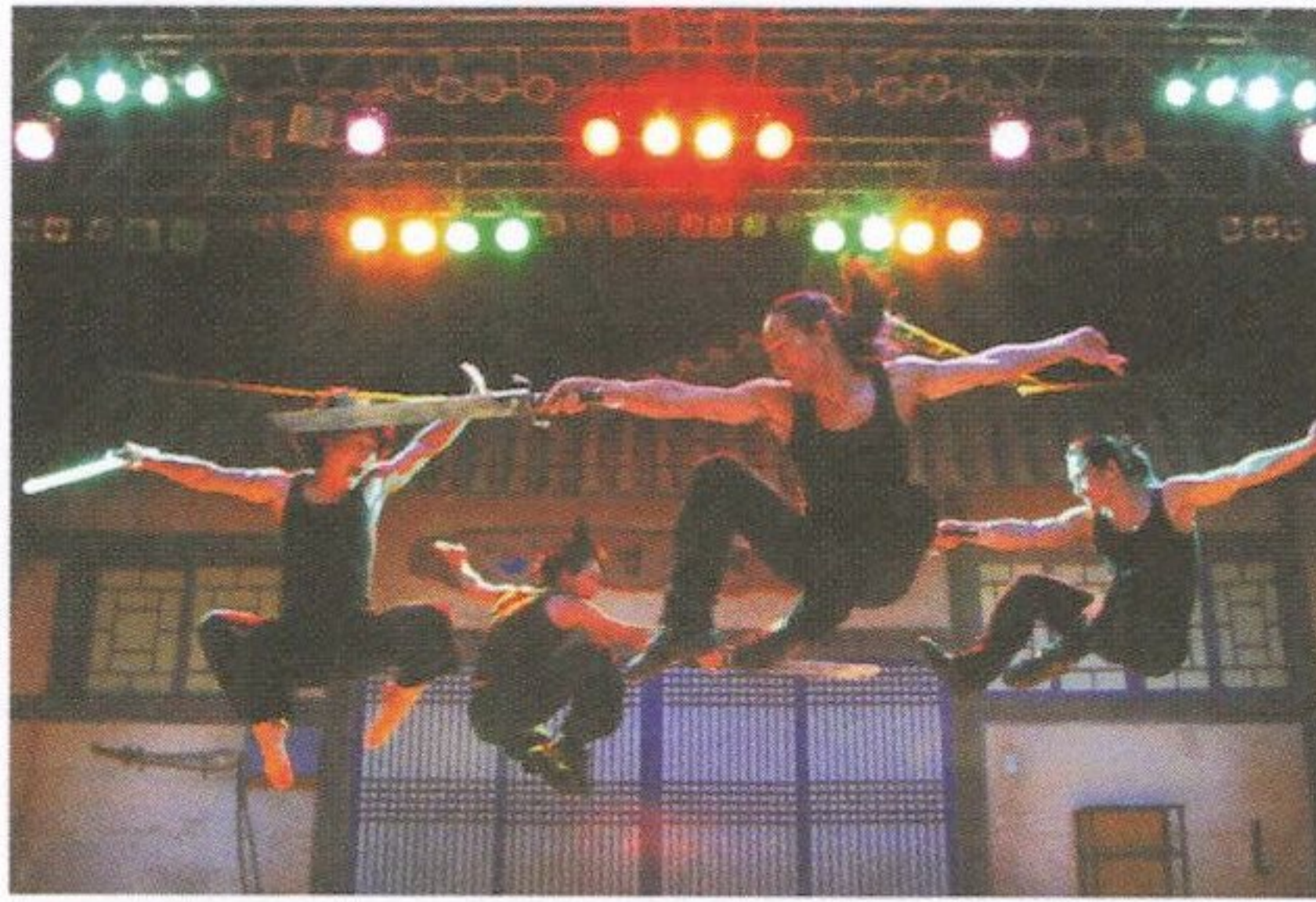
7월 30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다목적홀



퓨전오페라 무대를 선보여왔던 코리아쇼페라단이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한 남량특집 음악극 '인형의 집'.

·출연/오정민, 배수진, 윤석, 김도형, 윤장미 외
 ·피아노/황다운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아크로바틱과 유쾌한 코미디가 혼합된 년버벌 퍼포먼스 '점프'.

-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주)아트포(744-4885)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6월 3일(수)-7월 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 조은극장 1관

7년만에 만난 두 형제의 갈등과 가슴 따뜻한 형제애를 그린 창작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예술감독, 작곡/최귀섭
 ·작/오은희, 최명섭

- 관람료 균일 3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여성극시리즈-연극 COLOR를 입다 1 로망스2

6월 5일(금)-7월 12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4:00(화요일 공연없음) 미리내소극장

철없는 엄마와 괴팍한 노처녀 딸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감동을 전하는 '로망스2'.

·연출/호민
 ·출연/구민주, 이진희

- 관람료 일반 25,000원 · 대학생 20,000원
 청소년 15,000원
- 문의 미리내소극장(504-2544)

연희극 어느 골짜기에 관한 논쟁

6월 18일(목)-7월 4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월-수요일 공연없음)
 소극장 실천무대

비무장지대 어느 골짜기를 둘러싼 소유권 논쟁을 통해 현재 한국사회의 남북분단 상황을 그린 연희극 '어느 골짜기에 관한 논쟁'.

·원작/브레히트 ·재구성, 연출/이성민
 ·출연/유미희, 변현주, 이현식, 김재형, 임태성 외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 문의 소극장 실천무대(245-5919)

죽여주는 이야기

6월 25일(목)-8월 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멀티미디어소강당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소재로, 자살마저도 하나의 흥밋거리로 전락해버린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유쾌한 조롱과 풍자의 블랙코미디극 '죽여주는 이야기'.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의 SM기획(1600-1602)

연극

2009 점프 부산

1월 1일(금)-오프런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8:00, 일 · 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IBK 점프부산전용극장

한국의 전통무예인 태권도와 태권을 중심으로 한 동양무술에 신체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고난이도의

국제수준 어쿠스틱 음향 녹음홀 · 연주홀

GloVil Art Hall

대관 녹음 음반제작
 음악영재대안학교 사론국제음악원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육장
 음악목사 찬양사 교육기관 미네소타찬양신학대학원
 말씀 · 찬양 · 시편의 교회 살롱채플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1243-21
 T:051-505-5995 Fax:051-505-5935
 www.glovil.org email:glovil@paran.com



극단 하늘개인날 옛날 남자, 지금 여자

6월 26일(금)-7월 19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휴관) 공간소극장



과거에 잘나가던 인기배우인 남자주인공과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초년배우 여자주인공이 2인극을 준비하면서 겪게 되는 에피소드를 통해 연극인들의 애환과 환희를 그린 작품.

· 작/윤수진 · 연출/김태호
· 출연/권철, 이용희

■ 관람료 균일 20,000원(사랑티켓 참가작)
■ 문 의 공간소극장(611-8518)

어린이 뮤지컬 구름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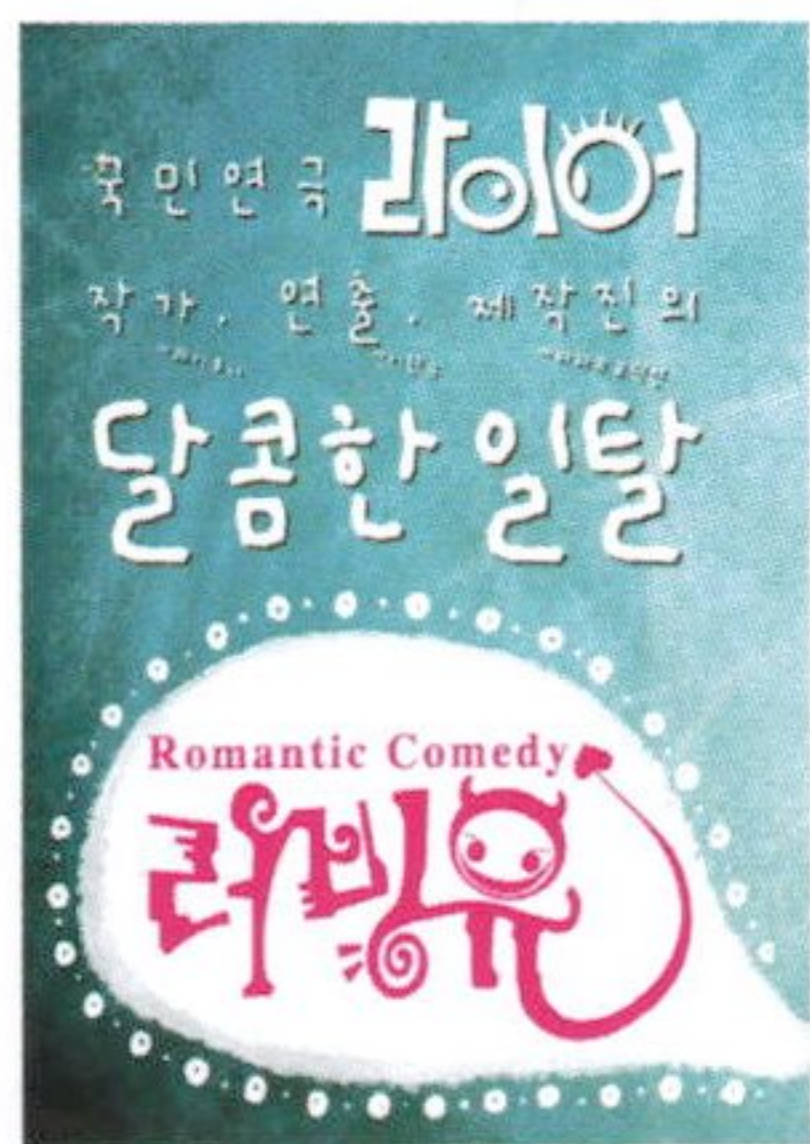
6월 26일(금)-7월 12일(일) 오후 2:00, 4:00
(토요일 오전 11:00 공연 추가, 월요일 공연없음)
동서대학교 소향아트홀

노란우비를 입고 하늘을 나는 귀여운 흥비, 흥비의 환상의 대모험이 펼쳐지는 어린이 뮤지컬 '구름빵'.

■ 관람료 R석 25,000원 · S석 20,000원
■ 문 의 (주)뮤지컬구름빵무화산업전문회사
(1577-7905)

러빙유

6월 26일(금)-7월 2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BS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마흔넘은 이혼남과 스무 살 만삭의 여자, 절대 흔하지 않는 상황의 두 남아가 펼쳐는 흔해빠진 사랑이야기 뮤지컬 '러빙유'.

■ 관람료 균일 25,000원
■ 문 의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카툰뮤지컬 두근두근

6월 27일(토)-7월 2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 사랑과혁명소극장



만화에서나 나올만한 의성어, 의태어로 상황을 표현하고 아카펠라와 탭댄스만으로 음악이 완성되는 독특한 발상의 창작뮤지컬 '두근두근'.

별볼일 없는 한 남자의 사랑찾기 프로젝트가 참신

한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폭소속에 펼쳐진다.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 의 SM기획(1600-1602)

매직쇼

7월 2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다목적홀

비둘기마술, 풍선마술, 로프마술, 변검공연, 일루전 매직 등 다양한 마술의 세계가 펼쳐지는 한여름밤 환상적인 마술쇼.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 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영어뮤지컬

Twelve Singing Animals

7월 2일(목)-5일(일) 목요일 오전 11:00,
오후 4:00, 금요일 오전 11:00,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6:00 MBC롯데아트홀

영어연극을 처음 접하는 관객들도 편하고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영어뮤지컬 'Twelve Singing Animals(노래하는 열 두 동물 이야기)'.

■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MBC롯데아트홀(760-1357)

소극장 6번출구 개관 기념시리즈 내 마음의 풍경

7월 3일(금)-24일(금) 오후 8:00
(월요일 공연없음) 소극장 6번출구

아동문학가 이주홍의 원작소설 '메아리'를 모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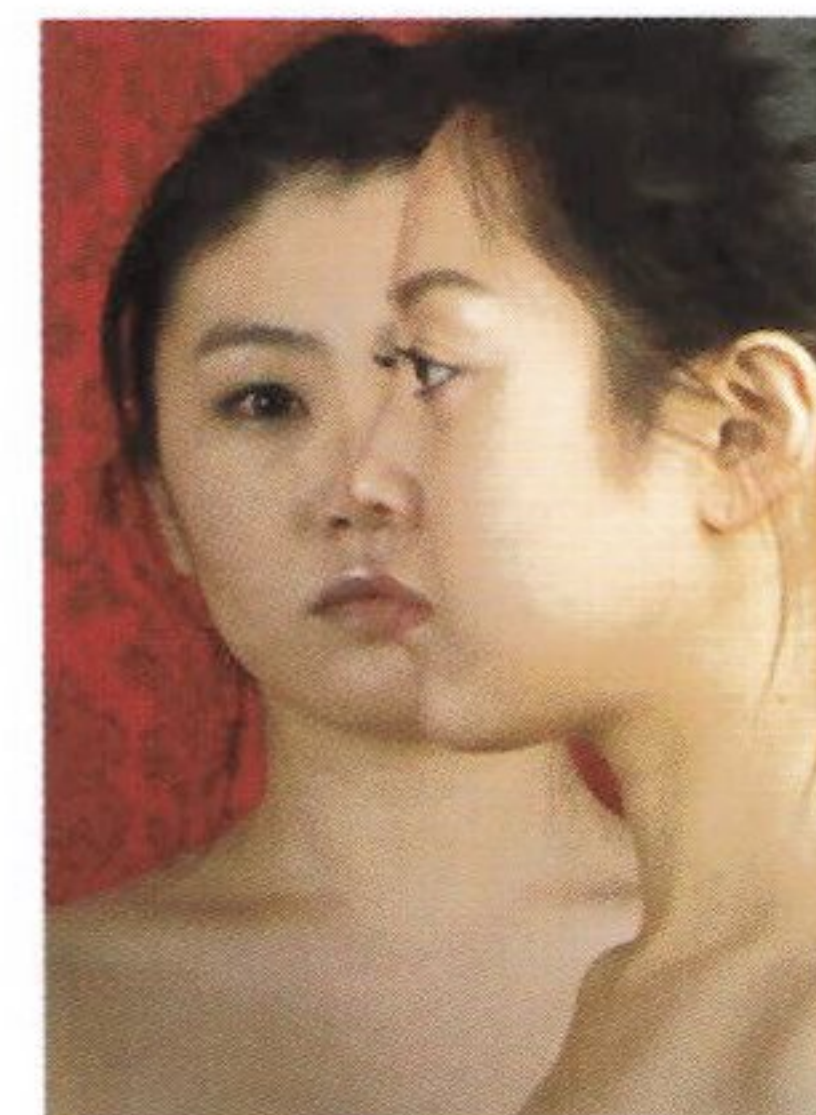
로, 어린시절 추억이 묻어나는 그 때 그 시절로 추억 여행을 떠나는 '내마음의 풍경'.

■ 관람료 일반 15,000원 · 학생 10,000원
■ 문 의 소극장 6번출구(625-2117)

극단 누리에 제 21회 정기공연 몽실

7월 3일(금)-8월 2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용천지랄소극장



장 주네의 '하녀들'로 알려진, 프랑스 '파팽자매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소통의 단절이 불러온 잔혹한 결말을 그린 심리스릴러극 '몽실'.

· 작/송희연
· 연출/강성우

· 출연/최현경, 최성희, 강봉금, 이지혜, 우영태

■ 관람료 균일 20,000원
■ 문 의 극단 누리에(621-3573)

가족인형극

편편과 함께하는 유쾌한 콘서트

7월 3일 금요일 오전 10:10, 11:2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9일 목요일 오전 10:10, 11:20 을숙도문화회관

10일 금요일 오전 10:10, 11:20

부산민주공원 중극장



세계 최고의 인형극장인 러시아 국립모스크바 중앙인형극장 연출가 베쉬키코프 아나톨리 연출로 제작된 가족인형극 '편편과 함께하는 유쾌한 콘서트'.

과일로 만드는 줄인형 마리오네뜨, 눈사람, 개구리 체조 등 9가지 다양한 에피소드가 신나는 콘서트 형식으로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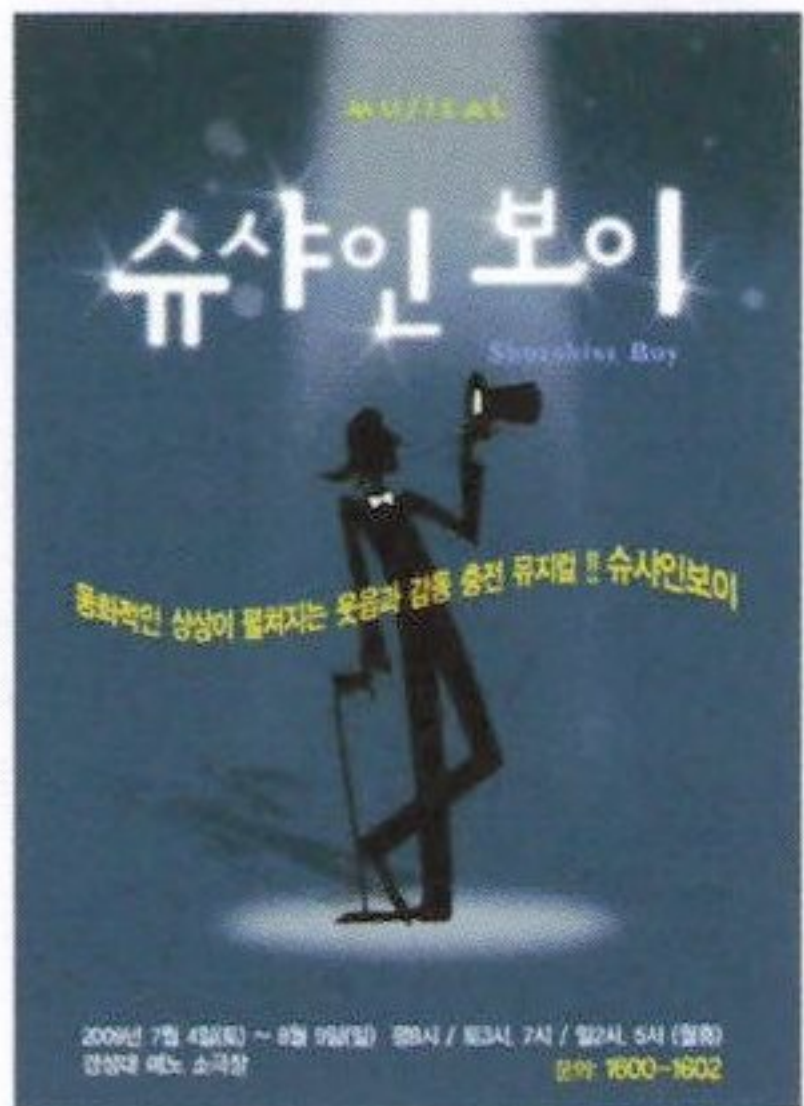
■ 관람료 균일 12,000원(전화예매 필수)
■ 문 의 두부기획(02-2654-6854)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안내 >> 연극 >>

뮤지컬 슈샤인보이

7월 4일(토)~8월 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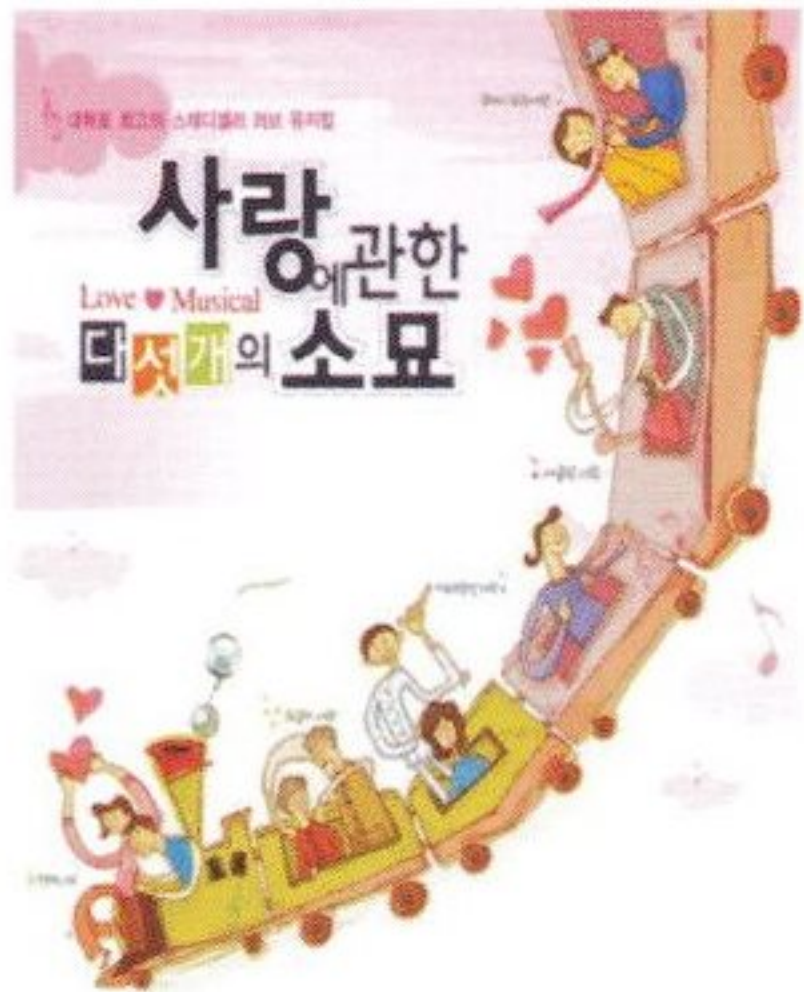


얼떨결에 대기업에 입사하게 된 구두닦이 주인공이 대그룹 총수의 외동딸과 사랑에 빠지는 동화같은 이야기 '슈샤인보이'.
· 작, 연출/유경호
· 출연/김영완, 오소연, 윤진호, 김성현

- 관람료 균일 30,000원
- 문의 SM기획(1600-1602)

사랑에 관한 5개의 소묘

7월 8일(수)~8월 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BS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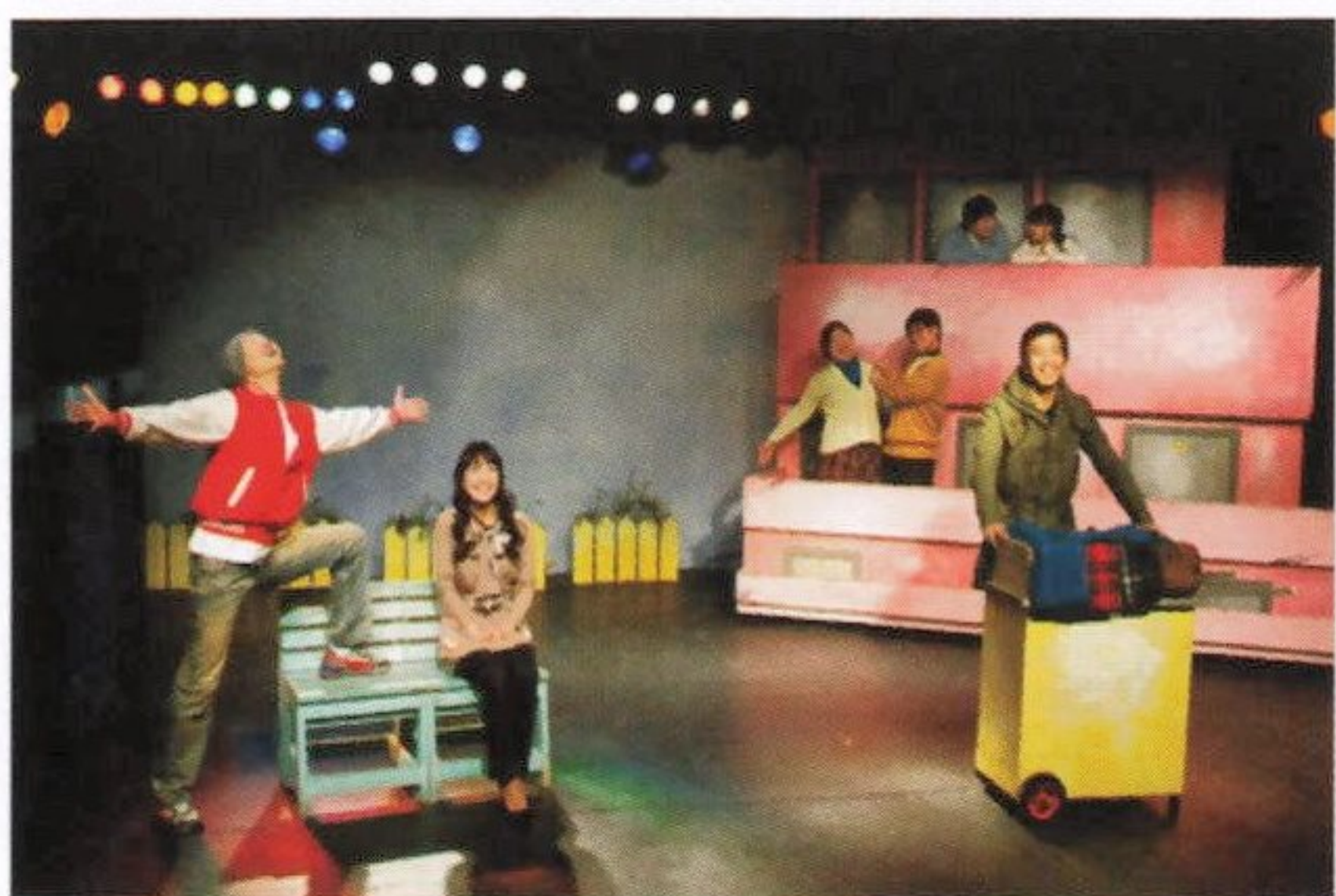


'여관'이라는 공간을 소재로 신·구세대를 아우르는 세대별 사랑이야기가 펼쳐지는 러브뮤지컬 '사랑에 관한 다섯개의 소묘'.
노총각 노처녀, 전라도 부부, 아내의 생일 등 다섯 가지 에피소드가 펼쳐진다.
· 작, 연출/위성신 · 작곡/송시현

- 관람료 균일 25,000원
- 문의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NEW 강풀의 순정만화

7월 9일(목)~1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시민회관 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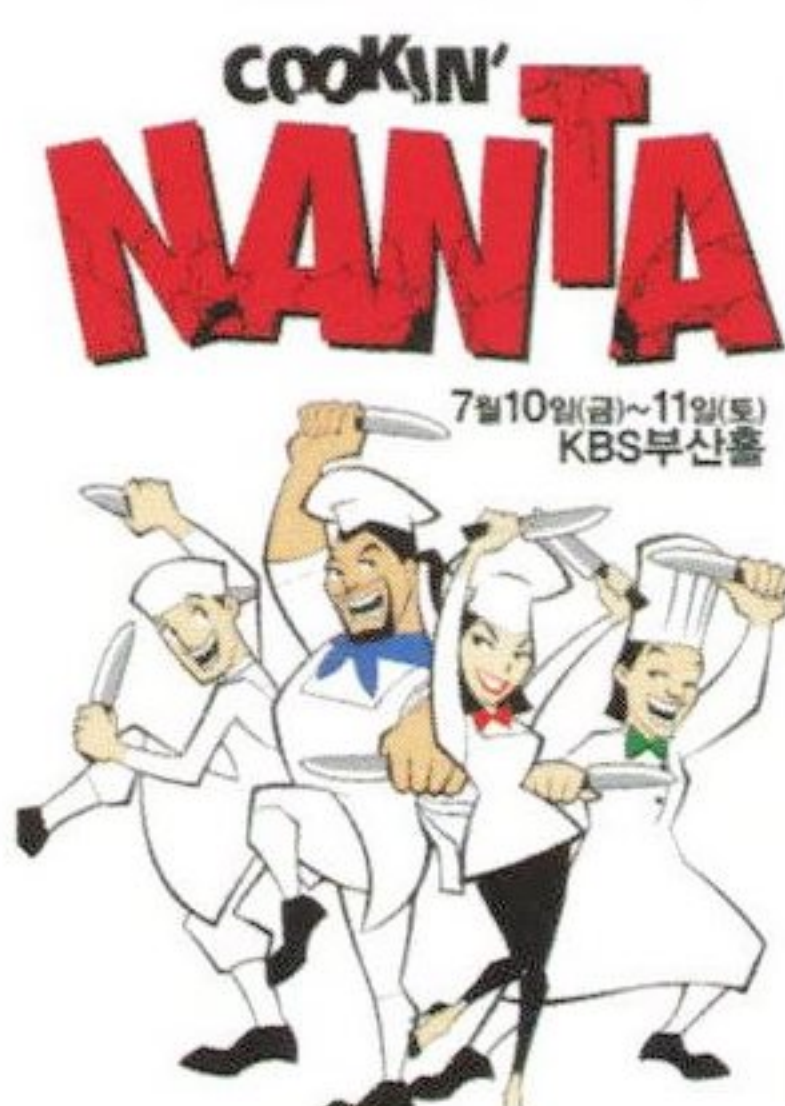
인터넷 인기만화를 원작으로, 12살 띠동갑 연우, 수영 커플과 10살 연상연하 커플 하경, 숙이의 순수한 사랑을 따뜻하게 그려낸 연극 '강풀의 순정만화'.
양코르 공연.

· 원작/강풀 · 작, 연출/추상욱
· 출연/이창욱, 이영훈, 임예나, 성아름, 김정호, 원승재, 장유경, 김태선, 송용식, 문주희 외

- 관람료 일반 25,000원 · 청소년 15,000원
- 문의 작은무대(583-2333)

2009년 난타

7월 10일 금요일 오후 8:00, 11일 토요일 오후 1:00, 4:00, 7:00 KBS부산홀



브로드웨이 무대에 진출해 아시아 최초로 1년 6개월 장기공연을 성황리에 마친 우리나라 대표적인 난버벌퍼포먼스 '난타'.

결혼피로연을 준비하는 요리사들의 좌충우돌 헤프닝속에 주방기구가 만들어내는 화려한 연주와 깜짝 전통혼례 등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진다.

- 관람료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A석 33,000원
- 문의 SM기획(1600-1602)

흑부리 영감과 도깨비 난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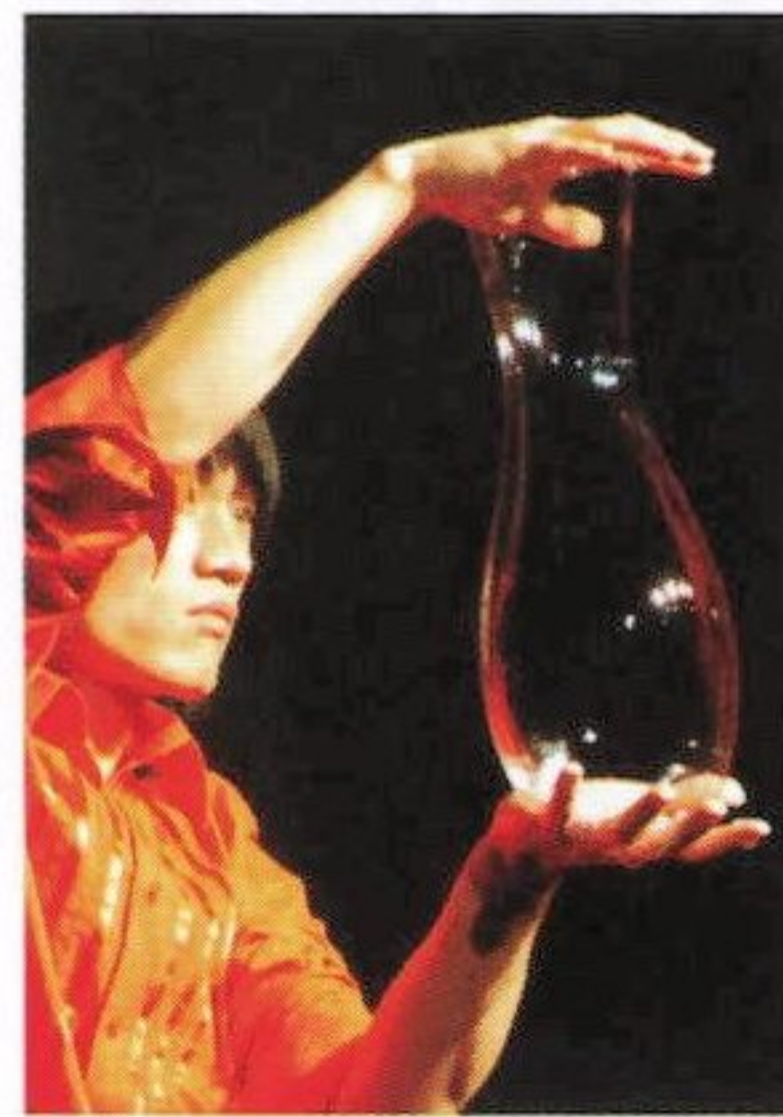
7월 10일 금요일 오전 10:20, 11:30(단체관람)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우리의 전통설화에 신나는 국악장단으로 재미를 더하는 가족뮤지컬 '흑부리 영감과 도깨비 난타'.

- 관람료 균일 3,500원
- 문의 즐겨찾기(1544-3180, 010-4945-6077)

명품 버블쇼

7월 11일~12일 토-일요일 오후 2:00, 4: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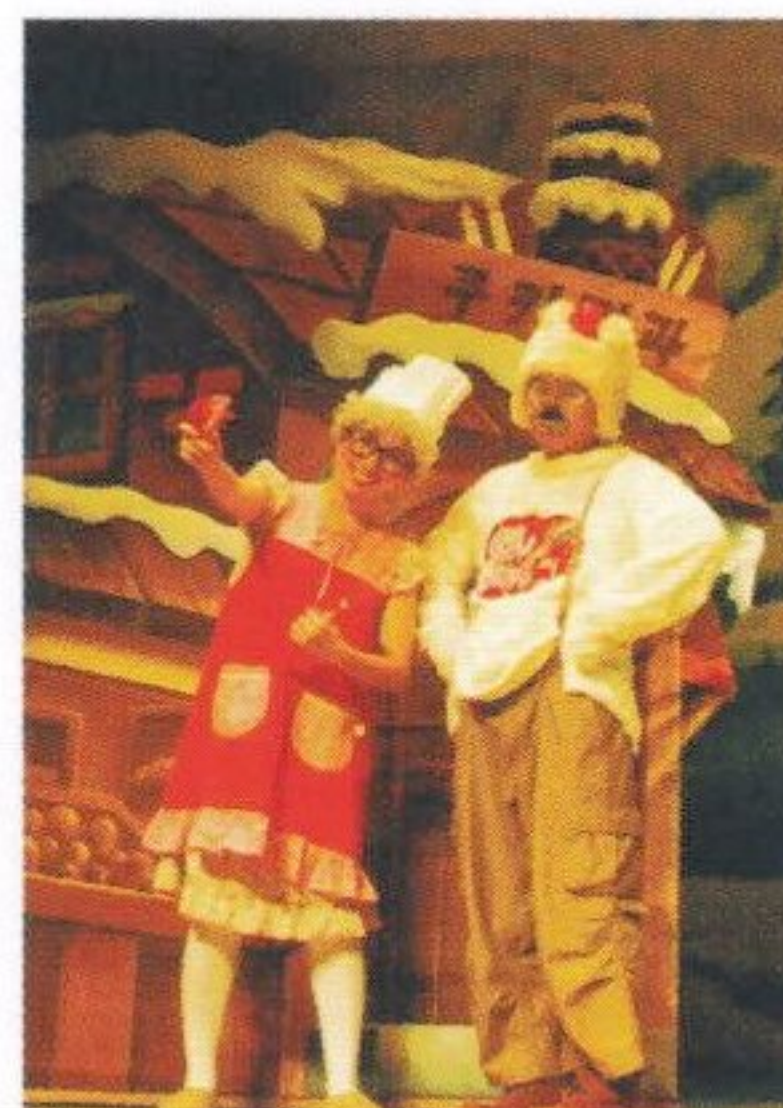


TV프로그램 '생활의 달인' '스타킹'에 출연했던 버블아티스트 김덕안의 명품 버블쇼.
형형색색의 비누방울이 동심의 세계로 이끈다.

- 관람료 R석 20,000원
S석 10,000원
- 문의 (주)가질리엔코리아(031-441-5424)

가족뮤지컬 꼬마산타 북극곰몽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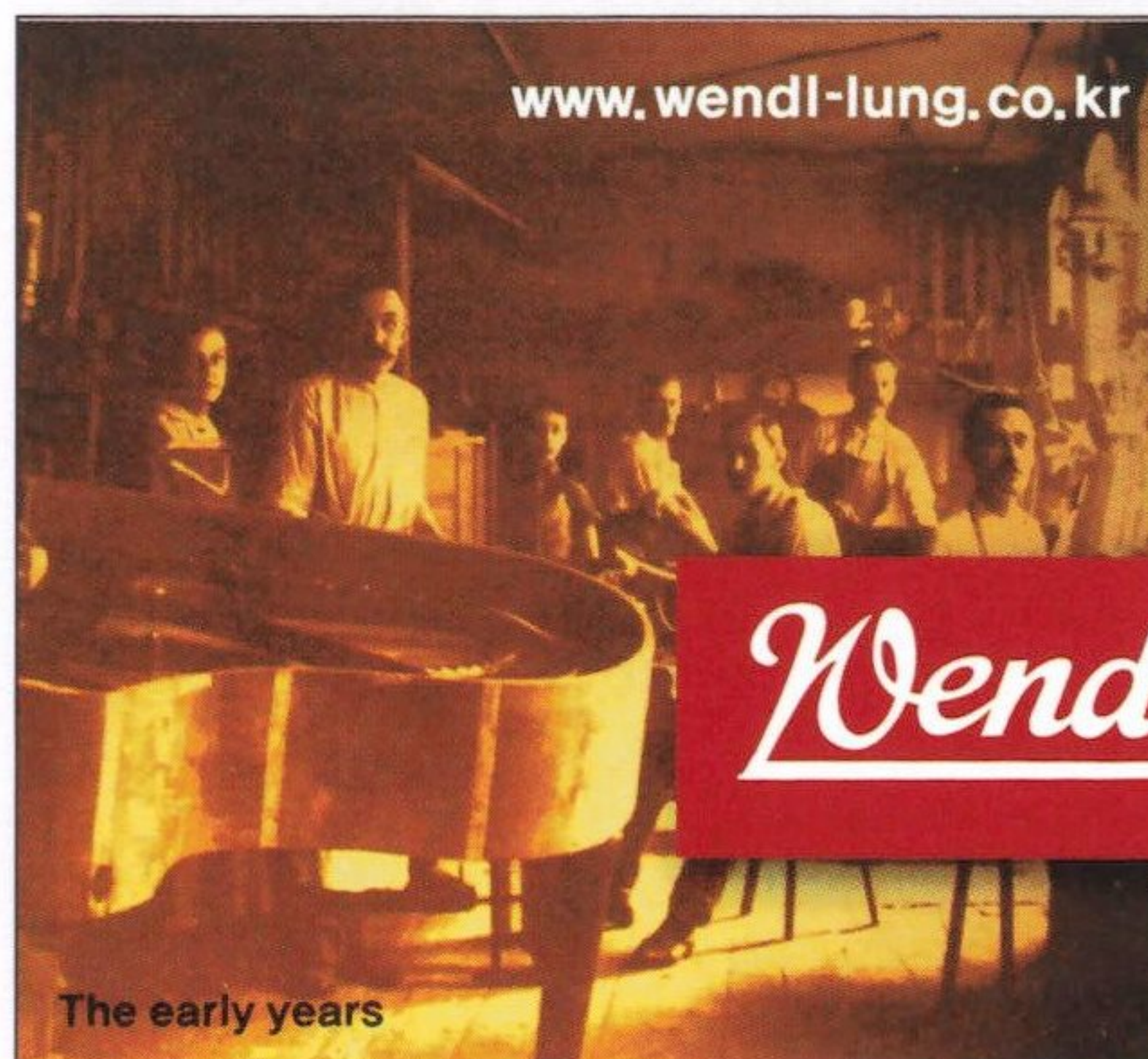
7월 11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12일 일요일 오후 1:00, 3:00
부산민주공원 중극장



우편배달부 북극곰 몽치와 함께 떠나는 즐거운 음악여행.
마림바와 봉가, 오카리나, 신디사이저 등 다채로운 악기연주와 동요부르기가 함께 펼쳐진다.

- 작, 연출/이재원
- 출연/김민식, 한수연, 송주영
- 연주/박채원, 백승숙

- 관람료 균일 12,000원
- 문의 두부기획(02-2654-6854)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Wendl & Lung



1주 벤들·룽 피아노 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051-441-7474

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

7월 17일(금)-2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6:00(월요일 공연없음, 19일 오후 6시공연 없음)
MBC롯데아트홀



아버지의 부고를 받고 고향으로 내려온 안동 이씨
종갓집 철부지 형제들의 한바탕 소동을 그린 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

개그맨 정준하와 뮤지컬 스타 이석준이 착하지만
जू대없는 형 석봉역으로 출연한다.

- 작, 연출/장유정
- 작곡, 음악감독/장소영
- 출연/정준하, 이석준, 김동욱, 정동화, 이주원 외

■ 관람료 R석 60,000원 · S석 50,000원
A석 40,000원

■ 문의 MBC롯데아트홀(760-1357)

여성극시리즈-연극 COLOR를 입다 II 과부들의 축제

7월 22일(수)-8월 23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4:00(화요일 공연없음) 미리내소극장



남편과 사별한 공통점을 지닌 세 친구 앞에 나타
난 한 남자를 두고 펼쳐지는 우정과 삶에 관한 블랙
코미디 '과부들의 축제'.

- 연출/호민
- 출연/손동일, 황자미, 김희지, 길수경

■ 관람료 일반 25,000원 · 대학생 20,000원
청소년 15,000원

■ 문의 미리내소극장(504-2544)

가마골소극장 개관기념공연 다시, 가마골연극7 시낭송행위전

7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가마골소극장

시인, 음악가, 연극인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
는 예술인들이 시낭송을 통한 퍼포먼스를 펼치는 시
와 연극의 만남 '시낭송행위전'.

- 관람료 균일 10,000원
- 문의 가마골소극장(1588-9155)

룸넘버 13

7월 24일(금)-8월 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 8:00, 일요일 오후 4:00,
7:00(월요일 공연없음)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여당 국회의원과 야당총재 비서의 스캔들이라는
황당한 내용을 소재로, 꼬리를 무는 반전과 풍자로
관객의 웃음을 자아내는 코미디극 '룸넘버 13'.

- 작/레이쿠니 · 번역, 연출/양혁철
- 출연/송영재, 최귀화, 조윤정, 박혜나, 권오을 외

■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문의 작은무대(583-2333)

가마골소극장 개관기념공연 다시, 가마골연극9 오셀로

7월 28일-29일 화-수요일 오후 7:30
가마골소극장



셰익스피어의 비극 '오셀로'를 일본 전통공연 양
식으로 풀어낸 작품에 다시 우리의 전통공연 양식인
씻김극의 제의성을 결합시킨 연극 '오셀로'.

'오셀로'는 2009 동경국제연극제 개막작으로 공
연되어 호평받았다.

- 원안, 초연연출/미야기 사토시
- 재연연출/이윤택
- 출연/미카리, 아베 가즈노리, 김미숙, 이승헌 외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중고생 15,000원

■ 문의 가마골소극장(1588-9155)

무용

2009년 제 22회 부산국제여름무용축제 Dance Core

7월 1일(수)-4일(토) 광안리해변 특설무대,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예노소극장 · 27호관



부산, 경남지역 전통춤을 소개하는 '전통무용의
밤', 국내외 무용인들의 신작을 감상할 수 있는
'Dance Recital', 무용과 타 예술장르와의 만남 '도
시의 바다, 춤추는 사람들' 등 다양한 무대공연과 학
술심포지움, 부산여름무용학교가 펼쳐진다.

■ 1일(수) 오후 2:30 27호관 702호

- 학술심포지움

■ 1일(수)-4일(토) 오전 9:00 27호관 301호

- 부산여름무용학교

· 강사/박현숙(Line Dance 강사), 최재선(한국예술
종합학교 교수), 이은규(재미무용가)

■ 2일(목) 오후 2:00 경성대학교 설치무대

- 캠퍼스 프린지 페스티벌

· 출연/동래고무전수단, 현대무용단 주-모, 대구가톨
릭대학교 한국무용단 '춤나눔'

■ 2일(목) 오후 7:30 예노소극장-전통무용의 밤

· 프로그램/승무(채상묵), 살풀이(김명자), 산조춤(김
은경), 양반춤(이도근), 소고춤(김광숙)

■ 3일(금) 오후 7:30 콘서트홀

- Dance Recital

· 프로그램/네남자(박해준), 돈키호테 1막(이원국)
Six(정현진), 대면(손인영)
Hoa Hele(Funmilayo Hill)

■ 4일(토) 오후 5:30 광안리해변 특설무대

- 도시의 바다 · 춤추는 사람들

· 프로그램/프롤로그-겹-그 하얀 윤기(남수정),
Cross Over(김태훈), Let's go to the
beach(신정희), 나는 가슴이 울어라(최두
혁), 달밤에 홀로서니(이정희), 눈물어릴
나의 사랑(김화숙)

■ 문의 경성대학교(620-4964)

가마골소극장 개관기념공연 다시, 가마골연극8 3인 3색 출판

7월 25일 토요일 오후 4:00, 7:30,
26일 일요일 오후 4:00 가마골소극장



김남진 최은희 하용부

부산 출신으로 안무가, 무용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남진, 부산을 대표하는 무용가 최은희, 밀양백중놀이 예능보유자로 우리나라 최초로 프랑스 바스티유극장에 초청된 하용부 등 개성있는 3인이 펼치는 3색 출판.

- 관람료 일반 20,000원 · 중고생 10,000원
- 문 의 가마골소극장(1588-9155)

영화

가톨릭센터 아트 씨어터 씨앤씨 7월 상영작

6월 22일(월)-7월 22일(수) 아트 씨어터 씨앤씨

대안영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가톨릭센터 '아트 씨어터 씨앤씨(Art Theater C+C)' 7월 상영작.

와카스기 기미노리의 개그 만화를 실사영화로 옮긴 리 토시오 감독의 '디트로이트 메탈 시티', 청소년 인권문제를 다룬 옴니버스극 '시선 1318', 탈북청년과 베트남 청년의 우연한 동행을 그린 김동현 감독의 '처음 만난 사람들', 이주노동자와 여고생의 우정을 그린 신동일 감독의 '반두비' 등 4편이 상영된다.

- 관람료 균일 6,000원
- 문 의 아트 씨어터 씨앤씨(442-0602)

콘서트

김장훈 원맨쇼-소극장 부산

7월 15일(수)-20일(월) 평일, 토요일 오후 8:00, 일요일 오후 6: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관람료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 문 의 하늘소엔터테인먼트(1544-1555)

김창완밴드+크라잉넛+장기하와 얼굴들 2009 국내투어 대규모공연-부산

8월 1일 토요일 오후 3:00, 7:00
MBC롯데아트홀

- 관람료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 의 MBC롯데아트홀(760-1357)

행사

제 85회 부산시울림 시낭송회

7월 1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 초대시인/김명옥, 김수민, 김우태, 김혜영, 백영희, 손순이, 이선희, 주순보, 최옥
- 사회/한창옥

- 관람료 무료
- 문 의 김예강(019-516-1867)

토마스외 친구들의 신나는 놀이세상

7월 4일(토)-8월 23일(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

- 관람료 일반 13,000원 · 초등학교 이하 15,000원
- 문 의 하늘이엔티(1688-7938)

2009 상상놀이터

7월 10일(금)-8월 30일(일) 경성대학교 미술관

- 관람료 균일 12,000원
- 문 의 SM기획(1600-1602)

노래와 춤 그리고 연기 뮤지컬 아카데미

7월 13일(월)-24일(금) 오전 10:00 일터소극장

- 문 의 일터소극장(635-5370, www.ilter.or.kr)

제 14회 부산바다축제

8월 1일(토)-9일(일) 부산지역 6개 해수욕장, 수영만 요트경기장



다양한 문화행사와 해양스포츠, 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여름축제 '부산바다축제'.

- 관람료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888-3392~7, www.seafestival.co.kr)

전시

2009 부산공예예술제

5월 22일(금)-7월 12일(일)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 문 의 부산미술협회(632-2400)

제 8회 포토라인 회원전

7월 3일(금)-7월 5일(일) 갤러리영광



- 문 의 갤러리영광(816-9500~4)

제 13회 효원사우회 정기회원전

7월 14일(화)-7월 19일(일) 갤러리영광

- 문 의 갤러리영광(816-9500~4)

'동천 옛 물길따라 부산진구를 추억하다'展

7월 21일(화)-7월 26일(일) 갤러리영광

- 문 의 갤러리영광(816-9500~4)

제 35회 부산미술대전

7월 25일(토)-8월 23일(일) 부산시립미술관

- 문 의 부산미술협회(632-2400)

책 읽는 사람들

파피루스 아침 독서회



분주한 일상의 흔적이 가신 토요일 이른 아침 텅빈 사무실에 한 권의 책을 손에 든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인다. 6월 13일 파피루스 아침 독서회의 독서토론회가 있는 날. 지난 2005년 10월 결성된 이후 지금까지 한달에 두 번 토요일 아침을 깨우고 있다.

모임명인 '파피루스'는 종이의 기원이었던 파피루스처럼 책의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부쳐진 이름. 영광도서에서 독서경영 아카데미를 열고있는 하동식 씨의 제안으로 시작된 파피루스는 현재 9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파피루스 아침 독서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임은 토요일 아침 진행되는 독서토론회이다. 회원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하다 보니 여느 동호회와는 달리 이른 아침에 모임을 갖는다. 게다가 독서토론을 진행하기에는 이른 아침만큼 좋은 때가 없다고 회원들은 생각한다.

독서토론에 쓰이는 책들은 파피루스 아침 독서회 도서 선정위원회에서 정한다. 도서 선정위원회는 분기별로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맡는다. 선정위원으로 정해진 회원들은 토론대상 도서를 직접 선정하고 주토론자가 되어 독서토론회를 이끈다. 20대에서 60대까지 연령도 직업도 그리고 관심분야도 다른 만큼, 선정도서 역시 문학에서부터 철학, 역사, 경영, 예술 등 그 회원 수만큼이나 장르가 다양하다. 오프라인 모임인 독서토론회 외에도 회원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책읽는 즐거움을 공유하고 있다.

파피루스 아침 독서회는 매년 봄 문학답사회를 갖고 있다. 2007년 담양 정철가사문학관을 시작으로 2008년 통영 청마문학관과 김춘수문학관, 올해는 거제도 문학기행을 다녀왔다. 가을 창립 기념행사에서는 기념회보를 발행, 파피루스 아침 독서회의 지난 활동을 되돌아 보고있다.

파피루스 아침 독서회의 또다른 주요 활동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우를 위한 봉사활동이다. 시각장애우와는 부산사상점자도서관 관장으로 있는 회원 이경혜 씨와의 인연으로 맺어졌다. 매년 시각장애우와 동반산행을 하며 산상토론회를 펼치기도 한 회원들은 시각장애우들이 보다 많은 도서를 접할 수 있도록 '퍼즐북'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퍼즐북'은 시각장애인이 들을 수 있는 음성변환파일 제작을 위해 책을 한글파일로 타이핑하는 작업으로 지금까지 최재천 저 '생명이 있는 것은 아름답다', 이왕주 저 '철학, 영화를 캐스팅하다', 장영희 저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등 수 권의 퍼즐북을 완성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보다 많은 시각장애우들이 책읽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퍼즐북 제작카페인 '마음을 맞추는 퍼즐북 (cafe.daum.net/lovepuzzle09)'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다양한 도서기증을 통해 책을 통한 이웃사랑도 꾸준히 펼쳐 나갈 계획이다.

■문의/파피루스 아침 독서회(cafe.daum.net/papyrus2005)

チック 코리아(CHICK COREA) & 게리 버튼(GARY BURTON) IN CONCERT

김 중 옥_ 부산교통공사 전동차 음악방송제작단장

어느 음악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래식이 작곡가의 예술이라면, Jazz는 연주가의 예술이다.”

참으로 공감가는 적절한 표현이라 생각하며 이번호에서는 30년이나 되는 해묵은 재즈앨범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단 그 앨범과는 음반 재킷(jacket)에 그려진 그림이 좋아 인연을 맺게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재즈음악은 그저 들리면 듣는, 장르(genre)의 음악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기회 닿는대로 예쁘고 따뜻한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음반을 듣다 보니 이제는 어느덧 내 것이 된 느낌입니다. 세월이 지난 지금도 이 앨범을 들여다보면 인연을 맺었던 당시의 느낌이 그대로 전해옵니다.

이 음반은 재즈뮤지션인 칙 코리아(Chick Corea, 1941~, 미국)의 재즈피아노와 게리 버튼(Gary Burton, 1943~, 미국)의 비브라폰 연주가 어우러진 환상적인 듀엣음반으로, 1979년 스위스의 취리히에서 라이브로 녹음되었습니다. 어느 도시의 야경 사진에 어둠을 밝힌 가로등과 자동차 불빛이 포근한 파스텔 컬러로 채색된 음반 재킷이 인상적인 음반으로, LP(Long Play) 레코드 2장이 한 세트로, 4면에 총 10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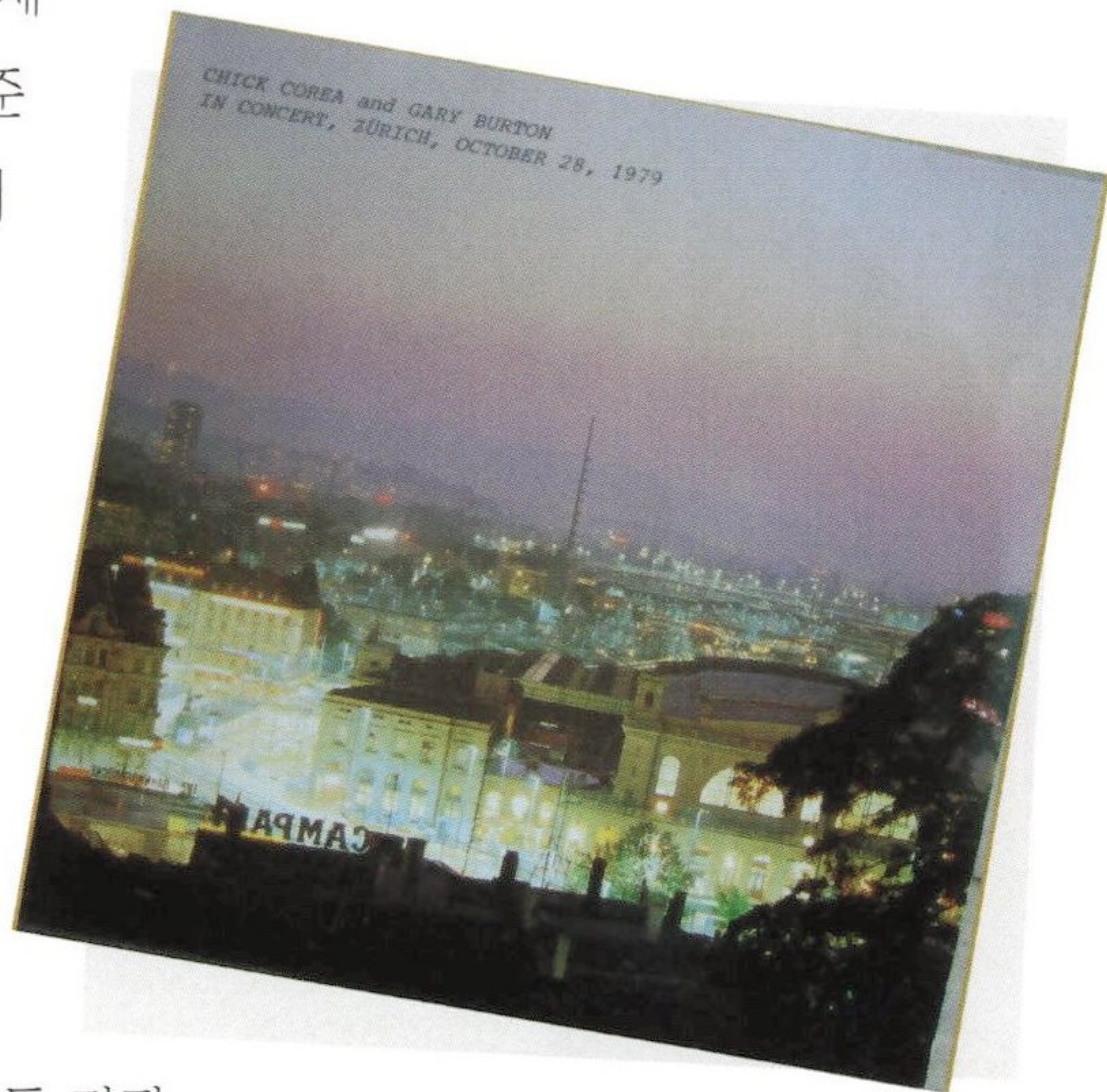
당시 음반매장 주인이 즉석에서 추천해준 'Crystal Silence (水晶과 같은 침묵)' 라는 곡이 테레폰켄(TELEFUNKEN-당시 독일의 세계적인 꿈의 전축) 스피커를 통해 울려나오던 소리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당시 유럽에서 히트중인 곡이었습니까. 칙 코리아의 재즈피아노와 게리 버튼의 비브라폰이 어우러진 이 곡은 비브라폰의 울림을 강조한 아름다운 곡으로, 튀는 듯한 발랄한 소리도 좋지만 깊이있게 덩~하고 울리는 소리도 좋다는걸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또, 덩~과 덩~ 사이가 멀지만 그 여운과 여운을 더 멋지게 들리도록 해주는 피아노의 잘게 부서지는 잔잔한 반주가 정말 맑고 투명한 정적을 느끼게 해주는 곡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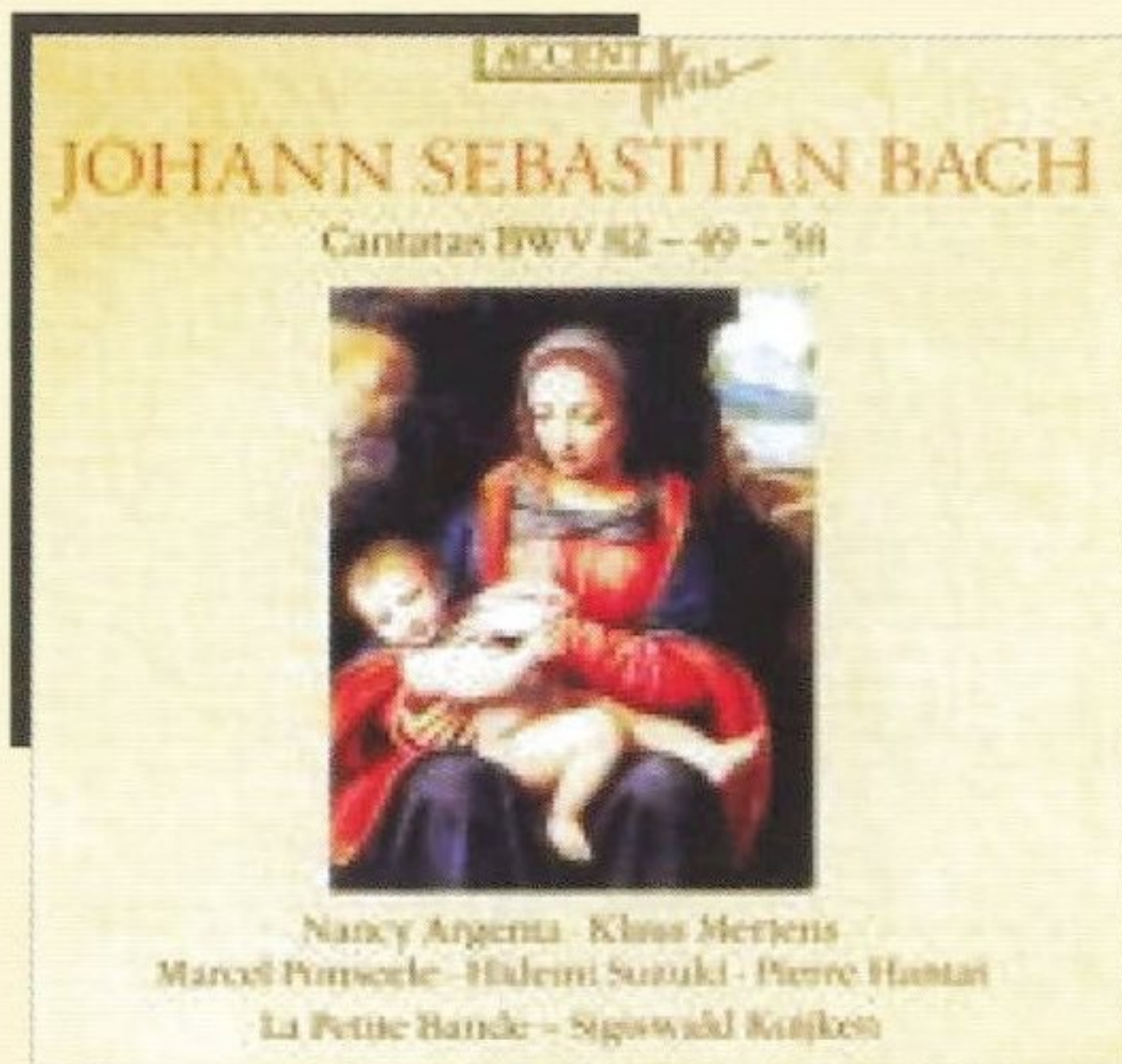
이어서 매장 주인이 제일 좋아한다며 들려준 곡은 'Bud Powell(어린 포웰)' 이라는 곡으로, 두 연주자의 아름답고도 활력있는 연주가 곡 전체에 딱 차 흥이 절로 나는 곡입니다. 아무리 처음 연주를 듣는 사람이라도 피아노와 비브라폰이라는 두 가지

악기가 절묘하게 엇갈리는 이 연주를 듣고난 후 이 음반을 사지 않고서는 매장을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음반이었습니다. 연주가들은 비단 재즈 뿐만 아니라 클래식 등 여러 장르에서도 전문가 이상의 뛰어난 실력가들로, 새로운 시도의 사운드로 전통적인 연주기법과 비교해도 뛰어난 기량이 돋보이는 연주였습니다.

피아노와 비브라폰이 서로 어울려 시종일관 10분이 넘는 화려한 테크닉과 하모니가 재즈 스탠다드(멜로디를 연주하고 솔로로 주고받는 기법)형식으로 마치 그 어떤 추상(抽象)의 아름다움을 담으려 한 이번 음반은 재즈를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CD로도 여러가지 앨범들이 발매되어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특히 LP로 감상하시면 더욱 포근한 고향의 맛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애청하는 소중한 LP음반인 이 음반은 독일로 출장갔던 지난 1987년 11월 19일 독일 뒤셀도르프 시내 'Evertz GMBH & Co KG' 에서 22.95마르크(당시 환율로 10,557원)에 구입했습니다.





바흐 칸타타 82번 '나는 만족합니다', 49번 '나 동경으로써 구하리니', 58번 '아 주님, 마음의 상처는 많고'

연주 : 낸시 아젠타(소프라노), 클라우스 메르텐스(베이스), 지히스발트 카위컨(지휘), 라 프티트 방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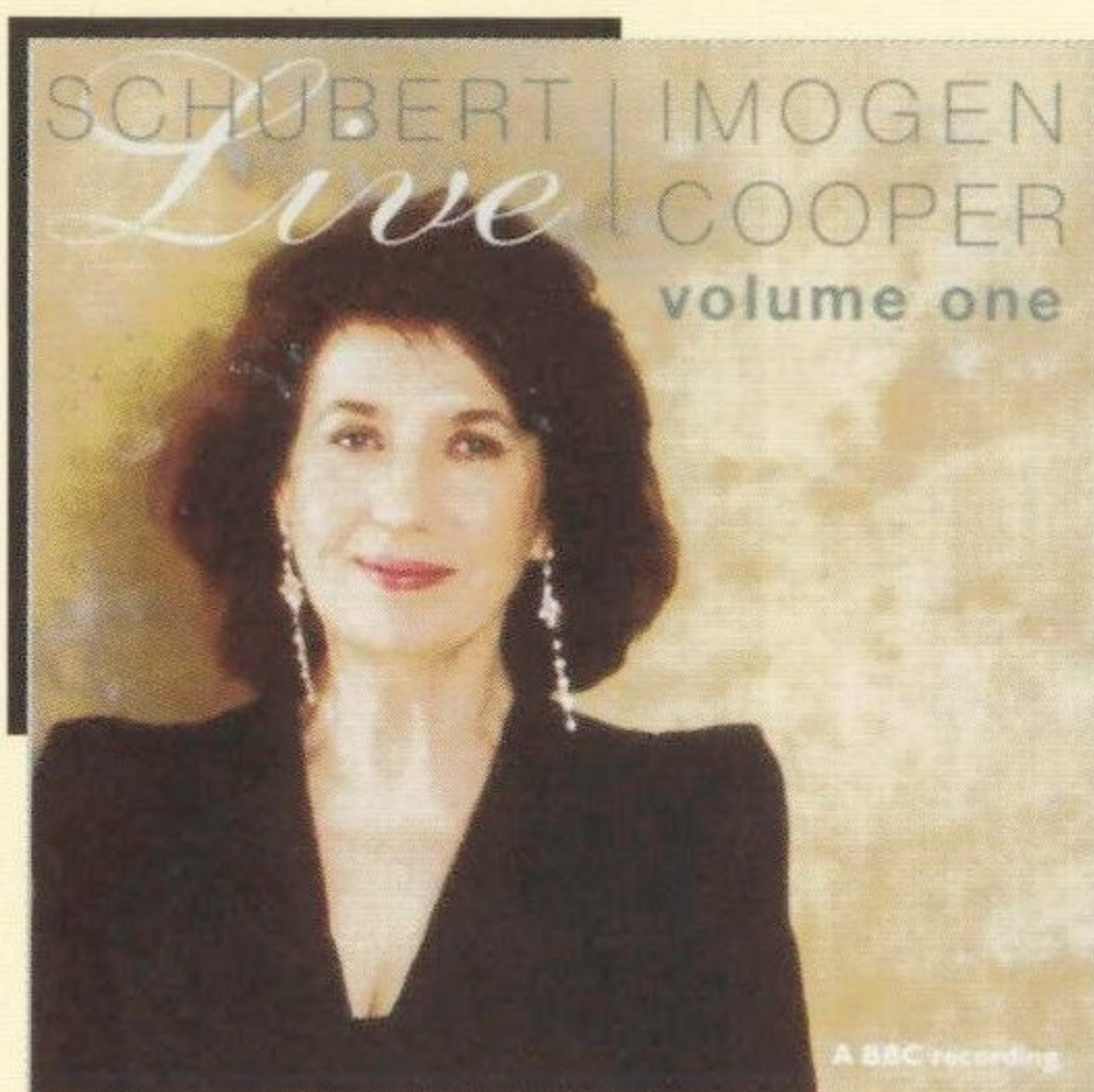
이 음반은 발매 된 지 10년이 지나 다시 중가음반으로 재발매되어 가격상의 이점까지 덧붙여져 우리곁에 반갑게 선보였다.

지금 현재 지히스발트 카위컨은 라 프티트 방드와 함께 바흐 칸타타를 새롭게 녹음 중이다.

현재 SACD로 8집까지 나와있는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사랑 때문에 순조롭게 녹음이 진행중이다.

최소편성의 미덕이 완전하게 구현된 기악과 성악의 조화가 너무나 아름다운 이 음반은 카위컨의 구녹음임에도 불구하고 오랜시간 인정을 받고 있는 검증된 명연이 되어 버렸다.

특히 노래하듯 흐르는 마르셀 폰젤의 오보에 연주는 잊지 못할 감동을 안겨준다.



슈베르트 AV 2156 (2CDs, 2for1.5)

작품 : 피아노 소나타 A장조 D 959, A단조 D 845, D장조 D 850, 11개의 에코세즈 D 781, 3개의 소품 D 946

연주 : 이모겐 쿠퍼(피아노)

1998년 이모겐 쿠퍼가 OTTAVO레이블에서 녹음한 6장 분량의 슈베르트 소나타는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았던 숨은 명연이다.

10년이 흐른 후 발매된 이 음반은 BBC라디오의 협조로 작년 4월 15일과 11월 25일 런던 퀸 엘리자베스홀에 있었던 실황을 녹음한 것이다.

진지함이 돋보인 이 음반은 기다린 애호가들에게 반갑게 다가왔다. 상처받은 모든 것을 위로하듯 다가온 그녀의 연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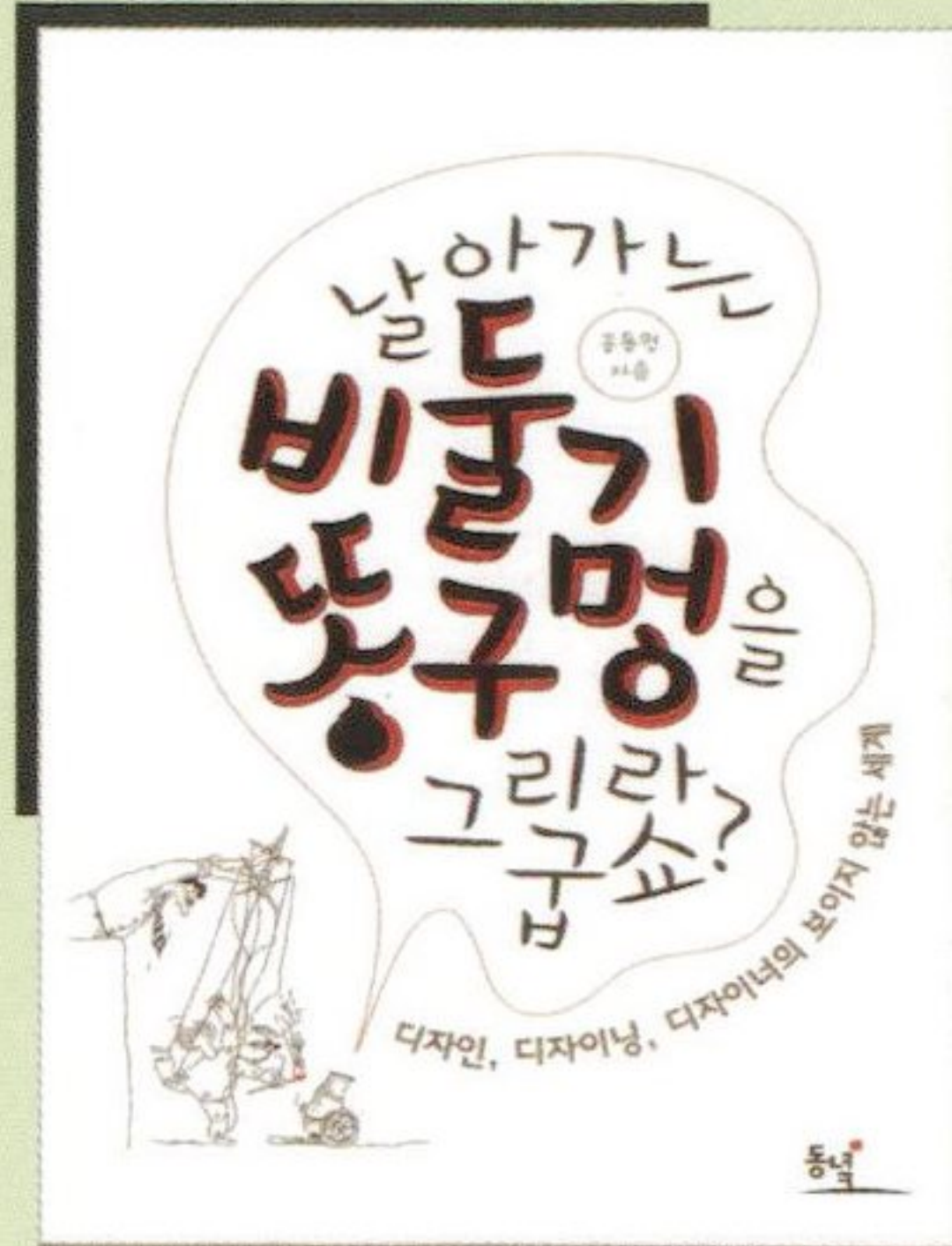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 & 2번

연주 : 당타이손(에라르 피아노, 1849), 프란스 브뤼헨(지휘), 18세기 오케스트라

당타이손은 클래식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에서 태어나 유학은 고사하고 오케스트라와 단 한 번의 협연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1980년 세계적 권위의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 출전, 우승을 했다.

이 음반은 프란스 브뤼헨과 18세기 오케스트라와 손을 잡고 쇼팽 당대의 에라르 피아노로 쇼팽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했다. 그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에게 추억이 될 만한 음반이다.



날아가는 비둘기 똥구멍을 그리라급쇼?

홍동원 지음
동녘 / 296p /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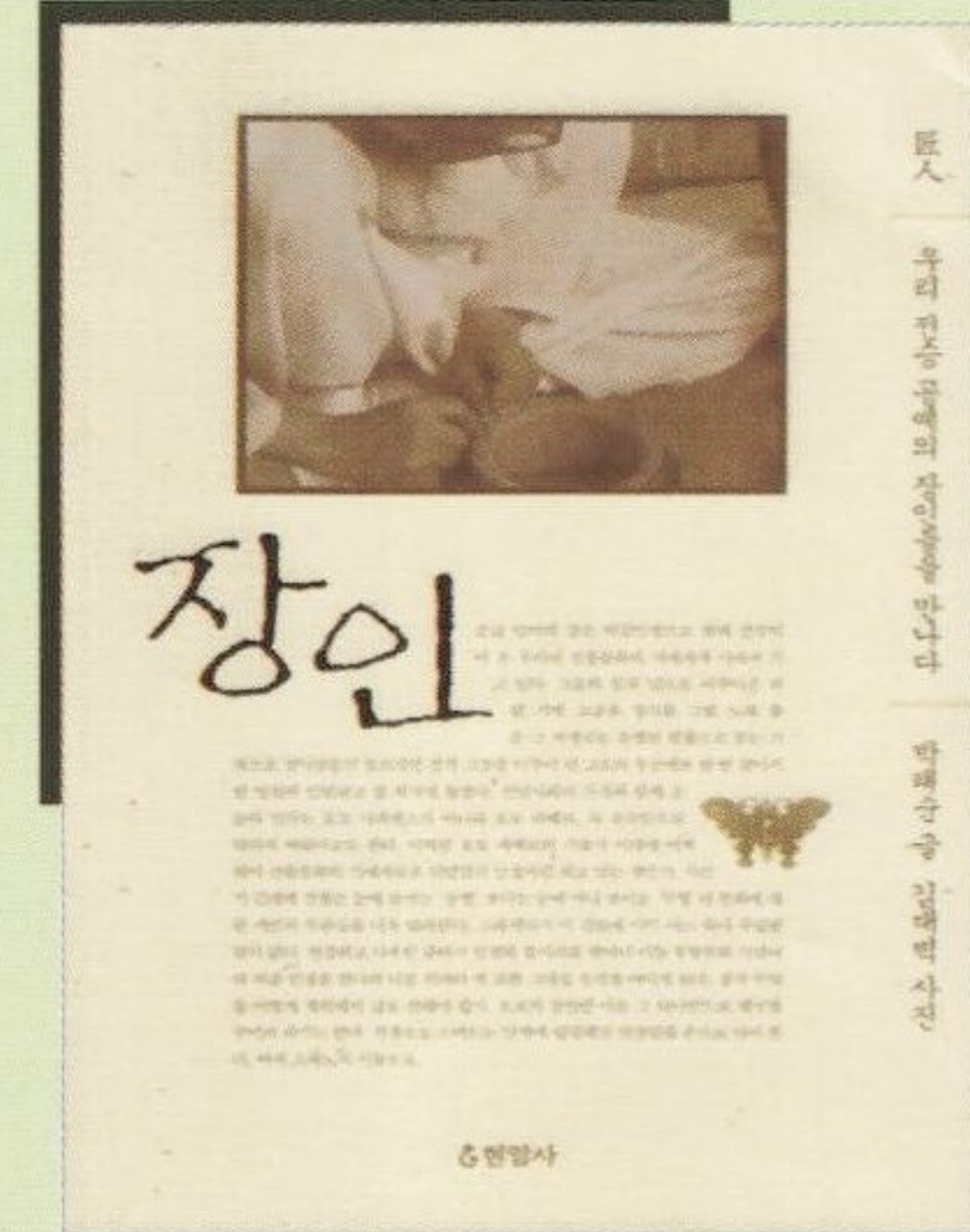
출판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아트디렉터 홍동원 씨가 털어놓는 디자인과 디자인링, 디자이너의 보이지 않는 세계. 디자인만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아온 약 30년 동안의 희로애락을 담은 책이다. 제목 '날아가는 비둘기 똥구멍을 그리라급쇼?'는 책 제목은 디자이너도, 클라이언트도 본 적이 없는 터무니없는 디자인을 요구받을 때를 말하는 디자인 세계의 관용적인 표현이다.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디자인을 요구받는 디자이너의 애환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제목이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북디자이너 중 한 사람인 저자는 '단원풍속도첩' '이건희 에세이' 등 책을 포함, 포항제철의 팩트북 등 다양한 기업의 카탈로그·로고·캘린더 디자인을 해왔다. 근는 디자이너의 운명은 무엇보다 소비자인 대중이 디자인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디자인은 '쇼'가 아니라 '생활'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한국이, 서울이 세상을 베키며 쇼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스위스보다 좋은 자연 환경을 가졌음에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파헤치고 부수며 여의도는 뉴욕의 맨해튼같이, 동대문 시장은 밀라노같이 만들려 하는 작금의 현실을 디자이너의 시각으로 들여다본다.



마음은 입을 잇고 입은 소리를 잇고

송지원 지음
태학사 / 272p / 15,000원

조선의 음악사 현장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다간 옛 음악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은 책. 음악문화사, 음악사회사를 주로 연구하는 저자가 자신의 위치에 곳곳하게 버티어 서서 한 뭇을 한 인물 스물여덟 명을 살펴보았다. '노래하는 삶', '거문고와 가야금의 명인', '해금과 비파·대금·통소의 명인', '이론가와 작곡가', '장악원의 음악관리'로 나뉘어 소개한다. 조선의 예술계 곳곳에서 활동한 이들 중에는 묵묵히 자기의 뭇을 해 냈으나 기록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어 목소리 한 번 크게 내지 못한 채 스러져간 인물이 있는가 하면, 음악사의 주체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용감하고 활달하게 주장한 인물도 섞여 있다. 이들 모두 음악사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갔기에 누가 더 중요하고 의미 있다는 식으로 말할 수는 없다. 모두 자신의 위치에서 한 뭇을 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열정과 재능으로 살아갔던 조선시대 음악인들의 이야기가 마치 실제인물이 직접 자기의 속내를 털어놓듯 현대의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온다. 사료를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해석을 통해 그들의 삶을 재구성함으로써 생동감 있는 이야기를 이끌어어나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장인

박태순 지음
현암사 / 379p / 18,000원

1960년대부터 지정되기 시작한 우리 무형문화재 공예 분야 제1세대 분들의 삶을 담은 책. 소설가 박태순과 사진가 김대벽의 전승 공예 인물 기행은 지난 1980년대 중반에 이루어졌다. 그 당시에도 제 1세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라 할 만한 이들은 이미 노경에 접어들어 있었다. 저자는 장인들의 세계를 네 편의 전통공예 종류별로 나누어 들여다본다. '단정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에서는 우리 몸을 감싸고 체통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었던 갓·탕건·망건·매듭·모시·돌실나이의 장인을 만나고 '풍물 연희와 풍류생활'에서는 우리의 멋과 풍류를 만드는 동래야류·북 메우기·궁시·연날리기·백동연죽 공예의 장인을 만나 본다. '생활을 가멸게 하기 위하여'에서는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자리한 유기·조각·장도·용문석 공예의 장인을 소개하고 '전통을 디자인하라'에서는 소목·대목·나전칠기·두석 장인의 세계를 엿본다. 책 말미의 해제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담았다.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을 제대로 대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앞으로 길이 보존되어야 할 전통을 아끼는 마음을 담고 있다.

부산시립예술단 초청공연 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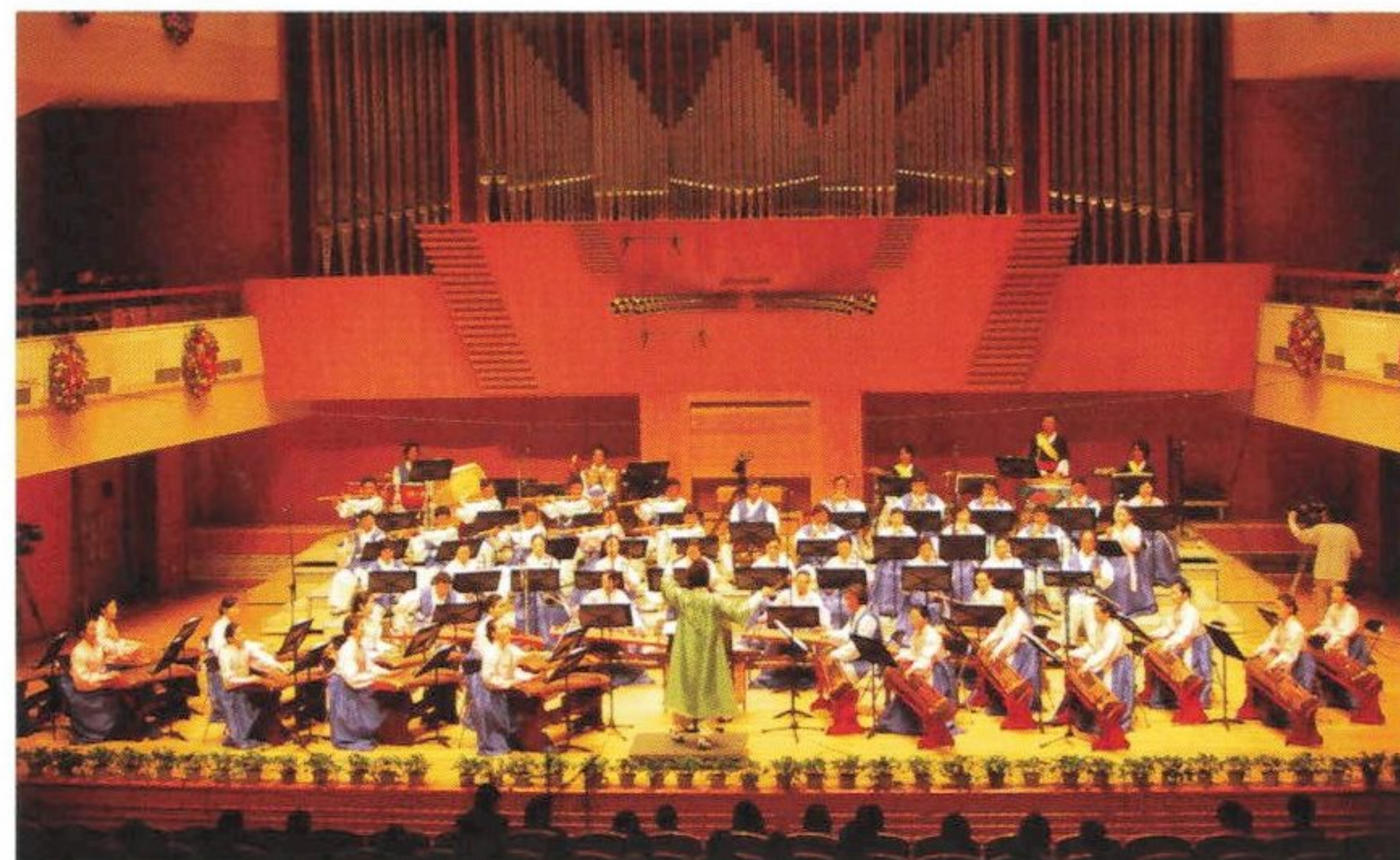
- 부산시립극단 7월 11일 전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7월 14일 대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7월 19일 제주 -

부산시립예술단이 7월 전주, 대전, 제주에서 초청공연을 펼친다. 국, 공립극단의 교류공연을 위해 가장 먼저 순회공연길에 오르는 부산시립극단은 7월 11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무엇이 될꼬하니'를 공연한다. 지난 4월 정기공연 작품으로 선보인 '무엇이 될꼬하니'는 비극성이 강한 우리네 이야기를 소리와 춤, 사물장단과 함께 권력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마당극 형태의 공연이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7월 14일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초청공연을 갖는다. 대전시립연정국악연주단 개원 28주년을 기념한 제 119회 정기연주회에 초청받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연정국악연주단 정기연주회 1부 무대에서 흥겨운 국악창작관현악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유경조 악장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2005년 위촉곡인 백규진 곡 국악관현악 '화랑', 1997년 위촉곡인 이준호 곡 국악관현악 '축제'와 부수석 박성희 협연으로 백성기 곡 창작판소리 '논개'를 초연한다. 창작판소리 '논개'는 변영로의 시 '논개'를 관현악 반주에 맞춰 판소리 창법으로 노래하는 곡이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2009 제주국제합창제에 초청받아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공연길에 오른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예술단 7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공연장을 자주 찾을 수 없는 청중들을 직접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7월 일정이 확정되었다.

7월에는 2일 벡스코에서 열리는 2009 부산실버엑스포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모두 9회의 공연이 부산전역에서 펼쳐진다.

■ 7월 일정

- 7. 2(목) 09:40 2009 부산실버엑스포 개막공연-벡스코 전시장(출연/교향악단)
- 7. 2(목) 19:30 북구문화빙상센터 개원 10주년 기념공연-북구문화빙상센터(출연/국악관현악단)
- 7. 6(월) 15:00 학교현장을 방문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부경고)-부경고등학교 대강당(출연/교향악단)
- 7. 7(화) 15:30 수돗물 인식 개선 포럼 축하공연-상수도사업본부(출연/국악관현악단)
- 7. 8(화) 12:30 시청로비콘서트-시청로비(출연/합창단)
- 7.10(금) 14:30 학교현장을방문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동주여고' -동주여자고등학교 체육관(출연/국악관현악단)
- 7.11(토) 20:00 구민과 함께하는 음악회-광안리해수욕장(출연/교향악단, 무용단)
- 7.13(월) 16:00 학교현장을 방문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금곡고' -금곡고등학교 대강당(출연/무용단)
- 7.24(금) 14:30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교육연수원-부산광역시 교육연수원(출연/교향악단, 합창단)

*문의:부산문화회관(607-6045)



부산시립교향악단

제32기 시민무용교실

- 강습기간 : 2009년 7월 27일(월) ~ 7월 31일(금) 13:00~17:00 (5일간)
- 강습장소 : 국제회의장(부산문화회관 소극장 2층)
- 강습내용 : 진도 북춤(13:00~15:00), 흥 춤(15:00~17:00)
- 대 상 : 일반 시민 및 교사(각 반 30명)
- 준비물 : 복채(수강 신청시 문의)
- 수 강 료 : 20,000원

일 자	시 간	내 용	강 사	장 소
7/27(월) ~30(목)	13:00~15:00	진도북춤	홍기태(수석안무자), 이현숙	국제회의장
	15:00~17:00	흥 춤	이윤희(훈련지도자), 강미향	
7/31(금)	13:00~14:00	발표회		소극장

- 접수기간 : 2009년 7월 6일(월)~7월 9일(목) 10:00~18:00(선착순 마감)
- 전화접수 :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 ▶ **진도 북춤** : 남도 들노래의 북장단과 춤사위, 신청농악, 연신농악의 장단을 기본으로 하여 양손에 북채를 나누어 들고 북을 치는데 그 북장단이 화려하고 발놀음과 팔사위가 멋들어지며 살풀이부터 휘모리 가락까지 갖은 북가락의 개성이 묻어나는 춤
- ▶ **흥 춤** : 특별한 형식 없이 화사한 봄날에 여인네들이 느끼는 감흥과 흥취를 즉흥적이며 자유로운 동작으로 추는 춤



제21기 어린이한국춤교실

- 강습기간 : 2009년 7월 27일(월) ~ 7월 31일(금) 10:00~12:00 (5일간)
- 강습장소 : 국제회의장(부산문화회관 소극장 2층)
- 강습내용 : 술래잡기놀이 춤(10:00~11:00), 바람개비놀이 춤(11:00~12:00)
- 대 상 : 초등학생 어린이(각 반 30명)
- 준 비 물 : 바람개비놀이 춤(바람개비)
- 수 강 료 : 10,000원

일 자	시 간	내 용	강 사	장 소
7/27(월) ~30(목)	10:00~11:00	술래잡기놀이 춤	홍기태(수석안무자), 이현숙	국제회의장
	11:00~12:00	바람개비놀이 춤	이윤희(훈련지도자), 강미향	
7/31(금)	13:00~14:00	발표회		소극장

- 접수기간 : 2009년 7월 13일(월)~7월 17일(금) 10:00~18:00(선착순 마감)
- 전화접수 :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 ▶ **술래잡기놀이 춤** : 가위바위보로 술래를 정한 후 기둥이나 나무를 진으로 하여 술래가 숨은 사람을 찾는 놀이를 춤으로 표현한 작품
- ▶ **바람개비놀이 춤** :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바람개비를 손에 들고 뛰어 다니며 노는 놀이를 춤으로 표현한 작품



제 23회 부산청소년합창제 참가단체 모집

청소년문화발전과 공연문화의 대중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1985년부터 펼쳐지고 있는 부산청소년합창제에 참가할 소년소녀(청소년)합창단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공연명	모집부문	단체수	응시자격	참고사항
제 23회 청소년합창제	합창단	0단체	우리시에서 활동하는 학원, 기관, 기업, 단체소속의 어린이 합창단	연주시간 12분 내외 (곡수는 상관없음) 학원일 경우 초, 중, 고등 학교에 소속된 합창단

※선정된 합창단은 9월 12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리는 제 23회 청소년합창제에서 공연합니다.

2. 참가단체 발표

- 8월 1일(토)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심사 후 출연 단체 선정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 2009. 7. 21(화) 부터 2009. 7. 28(화) 18:00까지
- 접 수 처 : 소년소녀합창단 사무실(607-3161)
- 구비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합창단·지휘자·반주자 사진 각 1매,
합창단 연혁, 연주할 악보 제출.

■ 문의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시립예술단 전화번호 변경 ※변경일시 : 2009. 6. 26(금)

부산문화회관 내 인터넷 전화기(IPT)시스템 도입으로 부산시립예술단 전화번호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시립교향악단

지휘자실 607-3110
사무실 607-3111
연습실 607-3116
악보실 607-3117

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실 607-3120
사무실 607-3121
연습실 607-3126
악장실 607-3127
사물놀이실 607-3128

시립무용단

안무자실 607-3130
사무실 607-3131
연습실 607-3136
소품실 607-3137

시립합창단

지휘자실 607-3140
사무실 607-3141
연습실 607-3146

시립극단

연출자실 607-3150
사무실 607-3151
연습실 607-3156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실 607-3160
사무실 607-3161
연습실 607-3166

청소년교향악단

지휘자실 607-3170
사무실 607-3171

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Tel 607-3100
FAX 607-3109

부산시립교향악단

2010년 부산연주인시리즈 출연자 모집

모집부문 2010년 부산시립교향악단 정기·특별공연에 출연할 객원 지휘자 및 협연자

▷ 지휘, 성악, 피아노, 관현악, 타악, 작곡

※해당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자 격 공고일 현재 부산지역에서 음악활동 및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음악인 또는 부산 출신의 음악인(나이제한 없음)

심사방법 ▷ 1차 - 서류 및 자격심사, 2차 - 자료심사(1차 합격자에 한함)

▷ 지휘자 및 협연자: 서류 및 자료 심사

▷ 작곡가: 창작곡 심사

· 창작곡은 공고일 현재 필히 미발표작일 것

· 10분 내외의 관현악곡(3관 편성 이내)

· 최종합격자는 연주 3개월 전까지 악보(지휘총보 및 파트보) 제출

· 선정된 작품 연주 시, 소정의 작품 사용료 지급

제출서류 ▶ 공통

· 이력서 또는 프로필 1부(사진부착)

· 주민등록등본 1통

·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재학(재직)증명서 1부

· 콩쿠르 입상 증명 서류 사본 ▷ 해당자

▶ 지휘자 및 협연자 - 연주실황 CD 또는 DVD 1매 ▷ 프로그램 첨부 요

▶ 작곡가 - 창작곡(지휘자용 총보) 1부 ▷ 데모 CD(음원) 첨부 요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기간 ▷ 지휘자 및 협연자 - 2009년 7월 20일(월) ~ 7월 30일(목) 18:00까지 도착분

▷ 작 곡 가(창작곡) - 2009년 9월 21일(월) ~ 9월 25일(금) 18:00까지 도착분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제출장소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실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관리동 1층)

발 표 심사 후 개별통지 (합격자에 한함)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 ☎ 607-3111-4



부산시립교향악단 웰빙콘서트

나른하고 딱히 하릴없는 시간대, 오전 11시. 오늘은 대단한 호사를 누리고 왔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웰빙 콘서트 '푸치니의 여인들' 이라는 한 편의 공연을 감상하면서 푸치니의 오페라 세계를 전반적으로 엿볼 수 있었다. 사랑이라는 하나의 주제가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음악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삶과 사랑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 박 영 아(남구 대연3동)

송영훈 오리지널 탱고 부산

첼리스트 송영훈과 피아니스트 파블로 징어, 클라리네티스트 호세 프랑크 발예스테르, 세 연주자의 화려하면서도 열정적인 연주가 돋보인 정통 탱고무대. 탱고 무용수들의 관능적인 춤 솜씨 또한 시선을 땔 수 없었던 최고의 무대였다.

- 이 신 혜(수영구 남천동)

한낮의 유U; 콘서트

이런 공연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매달 있는 공연이라 기회되면 한번 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회가 왔다.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마음편히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공연이었다. 알고있는 음악이 한번씩 나오면, 얼마나 반갑던지! 연극만 찾던 나에게 이번 연주회는 신선한 에너지로 다가왔다.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보고싶다.

- 석 상 훈(부산진구 부암1동)

연극 '오아시스세탁소 습격사건'

'우리가 진짜 세탁해야 되는 것은 말이야 옷이 아니야, 바로 이 옷들의 주인 마음이야' 이 글귀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기대를 안고 찾아간 연극. 오랜만에 보는 연극이라 설레임을 안고 기다렸다. 처음엔 재미만 기대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슴속에 감동이 스며들었다. 찾아가는 발걸음이 재미였다면,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슴 따뜻한 감동이었다.

- 강속희(영도구 봉래동3가)

부산시립극단 '지금...여기'

복권에 당첨됐지만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지금...여기'의 주인공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20년 전 보았던 '대머리 여가수'를 회상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연극보는 재미에 빠져 행복했던 날... 연출가 김지용씨의 열정과 부산시립극단 배우들의 땀방울이 모인 결과였다. 특히 이번 특별기획공연을 통해 이오네스코의 다양한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어 참 좋았다.

- 김 은 경(남구 대연5동)



나랏소
한우 숯불구이 고품격 전문점

나랏소란?
그 옛날 나랏남께서 드시던 우리
나랏소 한우를 뜻합니다.



TEL. 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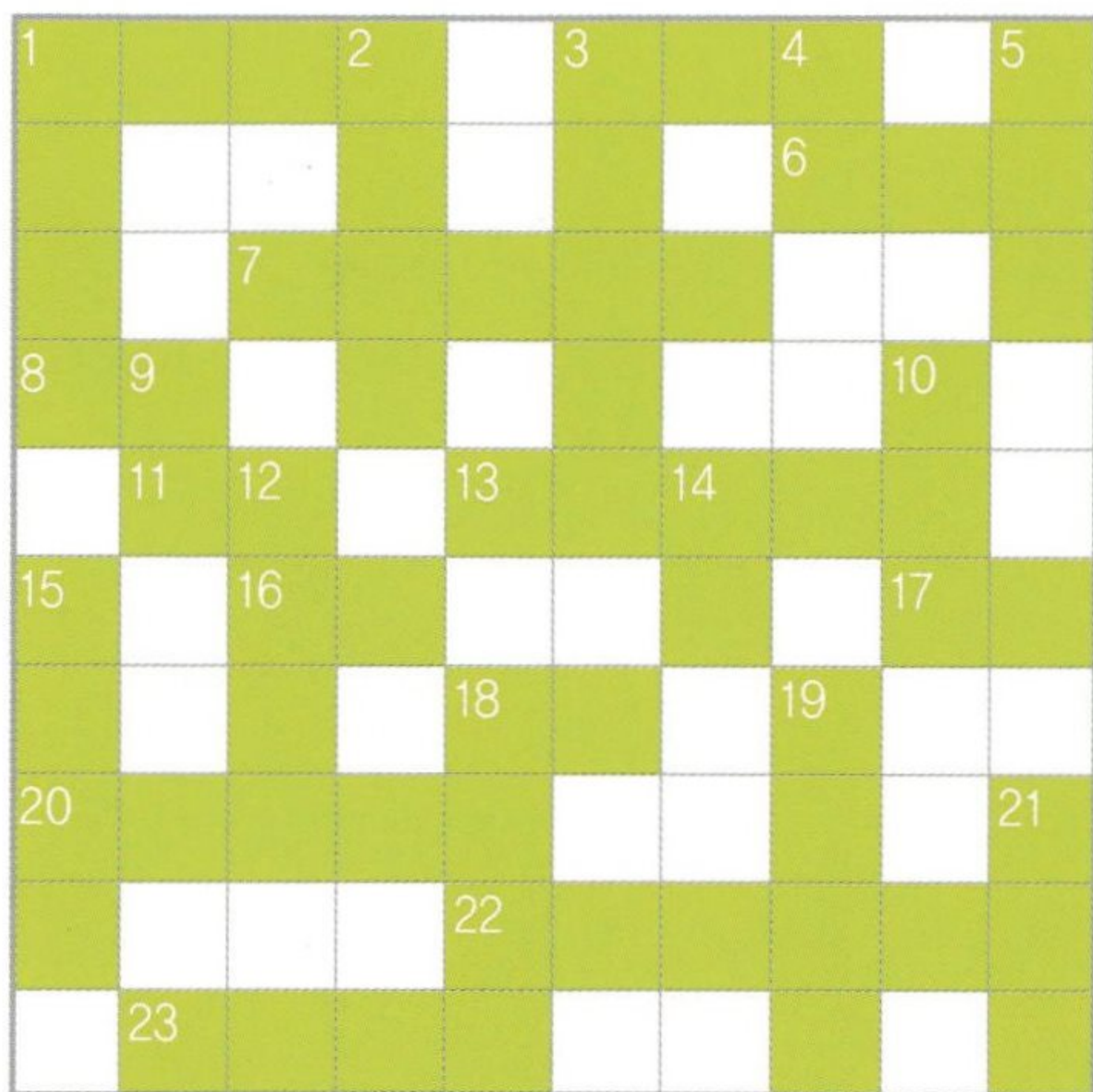
방 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선정하여 나랏소 시식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마 감 수시 모집
(원고를 보내실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4)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가로

1. 세르반테스의 동명 소설을 발레화한 작품으로, 결혼 해프닝을 둘러싼 스페인풍의 유쾌한 희극발레. 오는 10월 9일과 1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유니버설발레단의 무대로 부산관객과 만난다.
3. 단군 왕검이 도읍으로 삼았다는 지명. 지금의 평양이라는 설과 황해도 구월산이라는 설로 양분되어 있다.
6. 전통연희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한국적인 연극 양식.
7. 체코의 시인이자 소설가. 대표작으로 장편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느림' 등이 있다.
8. 독일의 시인, 철학자. 철학자 키르케고르와 함께 실존주의의 선구자로 지칭된다. 대표적인 저서는 '반시대적 고찰',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등이 있다.
11. 식초로 간을 한 밥에 생선을 얇게 저민 것이나 달걀, 채소, 김 등을 섞거나 얹거나 말거나 하는 일본 요리.

13. 미국 네바다주 사막에 위치한 관광과 도박의 도시.
16. 낫쇠로 만든 우리나라 특유의 취악기(吹樂器). 흔히 나팔이라고도 하며, 주로 농악에 주로 쓰이고 대취타(大吹打)에도 편성된다.
17. 검(劍)을 가지고 상대하는 두 경기자가 '찌르기' 또는 '베기' 등의 동작으로 승패를 겨루는 스포츠.
18. 치밀한 구성과 화술로 갱 두목을 속이는 사기꾼 일당을 다룬 폴 뉴먼, 로버트 레드포드 주연의 미국 오락영화.
20. 한물간 고집불통 락 가수 최근과 그의 재기를 꿈꾸는 순진한 매니저 박민수, 두 사람이 펼치는 우정과 인생역전의 동명의 영화를 뮤지컬로 제작한 작품.
22. 노동력이 부족한 나라에서 외국 젊은이들에게 1년간의 특별비자를 발급하여 입국을 허락하고 취업자격을 주는 제도. 우리나라는 현재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과 협정을 맺고 있다.
23. 프랑스 파리 몽마르트르의 유명한 댄스홀로, 프렌치 캉강이 첫선을 보인 곳. 프랑스어로 '붉은 풍차'라는 뜻으로 건물 옥상의 크고 붉은 네온사인 풍차 때문에 부쳐진 이름이다.

세로

1. 에스파냐의 호색 귀족을 주인공으로 한 모차르트의 2막 오페라.
2. 서울 강남지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왕복 10차선 간선도로 우리나라 중동 진출이 한창이던 1977년 6월 17일 이란의 수도인 이 곳 시장의 서울방문과 서울과 이 곳과의 자매결연을 기념해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3. 천재음악가 모차르트를 질투한 음악가 살리에리의 고뇌를 통해 모차르트의 삶을 그린 M.포먼 감독의 할리우드영화.
4. 중국 남북조시대에 중국 선종(禪宗)을 창시한 인물. 당시의 불교와는 정반대인 좌선을 통해 사상을 실천하는 새로운 불교를 강조했다. 그의 얼굴을 그린 'OO도'로 유명하다.
5. 우리나라 국기.
9. 체크무늬 판과 말을 이용하여 두 사람이 펼치는 게임. 서양장기.
10. 미국 콜로라도주 록키산맥에 위치한 작은 폐광촌이었으나 기업가 월터 패프케가 괴테 탄생 200주년이 되던 1949년 7월 각계 명사들을 초청한 것이 출발점이 되어 이후 국제음악제와 음악학교를 유치하면서 매년 1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음악도시로 재탄생했다.
12. 영화의 각본.
14. 뛰어난 실력과 잘생긴 외모로 사랑받는 영국의 축구선수. 올해 1월부터 AC 밀란의 임대선수로 뛰고 있다.
15. 인도와 중국, 티베트 사이에 있는 산맥.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비롯하여 높은 산이 많이 있어 '세계의 지붕'으로 불린다.
18. 1977년부터 2005년까지 제작된 조지 루카스 감독의 미국 공상과학영화 6부작 시리즈.
19. 진흙이나 사기 또는 쇠붙이로 만든 관악기의 하나. 비둘기 모양의 몸통 양쪽에 다섯 개씩 모두 열 개의 구멍이 있다.
21. 전라북도 진안군에 있는 높이 685m의 서봉과 678m 동봉으로 구성된 산. 동봉과 서봉의 모양이 말의 귀처럼 생겼다 하여 부쳐진 이름이다.

지난호 정답

리	신	차	오	손	아	마	존
사	프	놈	펜	이			
마	임	라		도	돌	이	표
당	원	드	서	핑			절
박	골	프	동	무	동		
취	볼	리	요	들	병	창	
교	토		이	국	상		
맥	지	젤	장	화	홍	련	전
시				한			혜
코	다	리	주	몽	가	가	린

퍼즐당첨자 명단

■ BS부산은행조은극장

- 고현재(연제구 연산5동)
- 박종열(부산진구 당감동)
- 신은경(사상구 괘법동)
- 조미정(북구 화명동)
- 진영숙(영도구 영선동4가)

■ 큰집

- 김소현(사하구 감천1동)
- 김영현(서구 남부민동)
- 도남선(동래구 안락2동)
- 신영은(동래구 사직2동)
- 허순기(서구 충무동1가)

■ 나랏소

- 박미혜(해운대구 우2동)
- 안현희(부산진구 개금3동)
- 양현진(남구 대연3동)
- 장선옥(부산진구 전포동)
- 한미정(남구 대연4동)

■ 공간 소극장

- 박유진(해운대구 반송3동)
- 서선이(남구 감만1동)
- 서정호(남구 문현1동)
- 유세라(연제구 거제3동)
- 정미정(금정구 서동)

남포동과 광복동의 새로운 문화공간

BS 부산은행 조은극장

TEL.1588-2757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韓國傳統飲食店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샐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최고급 부산민속 공연장

나랏소

한우 숯불구이 고풍 전문점

TEL.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사계절 문화공연 사랑이 살아 숨 쉬는 곳 부산에는 **공간 소극장**이 있습니다.

문화공간사계

공간소극장

(051)611-8518

문화공간사계 cafe.daum.net/say012

◎ 보내실곳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09년 7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매실향 가득한 원동 아름다운 고장 밀양

여름이 성큼 다가온 6월에 떠난 테마여행지는 매실향 가득한 원동과 수려한 자연과 명승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고장 밀양. 간편한 복장으로 이른 아침부터 부산문화회관 주차장에 모인 부산시립



예술단 정기회원 가족들의 얼굴에는 이번 테마여행에 대한 설레임이 가득하다. 특히 이번 테마여행에는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남순천, 강은태 씨가 동행해 정기회원 가족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

한시간 여를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원동 삼정지마을에 위치한 순매원.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과 열차가 질주하는 경부선 철길을 끼고있는 순매원은 매화꽃이 피는 봄이면 그 독특한 풍광을 담고자 하는 사진작가들로 항상 북적된다. 원동 매실은 낙동강변 천태산 자락의 온화한 기후와

매실재배에 알맞은 일조건에서 재배된 것으로, 70여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우리가 찾아간 순매원에서는 매년 매화꽃이 피는 3월 매화축제와 함께 매실 수확기인 5~6월경에는 매실따기 체험행사를 가져오고 있다.

순매원 주인인 김용구 씨의 간단한 설명에 이어 매실망을 하나씩 받은 정기회원 가족들은 삼삼오오 짝을 이뤄 본격적인 매실따기에 나섰다. 한가득 매달린 풍성한 매실로 어느새 매실망을 가득 채운 정기회원들은 시원한 나무그늘 아래 자리잡고 주인 김용구씨가 제공하는 향기로운 매실차로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모처럼의 여유를 즐기기도 했다.

이어지는 시간은 부산시립합창단 단원과의 만남. 공연을 앞두고 바쁜 가운데도 기꺼이 참석해준 단원 남순천 씨는 야외음악회를 위해 직접 신디사이저와 음향기구를 챙겨오기도 했다. 열정적인 무대 매너를 보여준 강은태 씨는 동요와 가곡, 민요 외에도 '나훈아 메들리'로 정기회원 가족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오전일정을 마친 정기회원 가족들은 순매원에서 제공하는 맛있는 점심식사를 마친 후 오후 여행지인 밀양 만어사로 발길을 옮겼다.

만어사입구까지 버스가 올라가지 못해 40분가량 걸어서 만어사에 도착한 정기회원들은 미리 도착한 문화해설사 이순공씨와 반갑게 인사했다. 가락국의 시조인 수로왕이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천년고찰 만어사에는 부처님의 감화로 수많은 물고기가 돌로 변했다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전설을 뒷받침하듯 법당 앞 골짜기에는 물고기떼가 변했다는 어산불영(魚山佛影)이라는 거대한 돌더미가 절을 향해 누워있는데, 지금도 이 돌을 두드리면 맑은 종소리나 목탁소리가 난다고 한다.

“이 곳 만어사 어산불영은 한여름에도 얼음이 어는 밀양 얼음골과 국가의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땀방울이 흐르는 표충사 사명대 사비와 더불어 밀양 3대신비라 불립니다.”

만어사에는 어산불영 뿐 아니라 용왕의 아들이 변한 것으로 전해지는 높이 5m 정도의 자연석이 유명하다. 이 돌기둥에 동전을 갖다대면 동전이 붙는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정기회원 가족들도 동전 붙이기 재미에 빠져 그 자리를 떠날 줄 모른다.

만어사를 나와 발걸음을 옮긴 곳은 응천강 절벽의 아름다운 경



관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영남루. 누(樓)란 건물의

사방을 트고 마루를 높여 지은 일종의 휴식공간으로, 조선시대 밀양도호부 객사로 쓰이던 곳이다. 평양의 부벽루, 진주의 축서루와 더불어 3대 명루(名樓)로 불리며, 화려하면서도 뛰어난 건축미로 조선후기 대표적인 목조건축물로 평가받고 있다.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한 충량(衝梁)과 퇴량(退梁)은 물론 대형 대들보는 모두 화려한 용으로 조각되어 있으며, 건물 내부에는 당대 명필가와 대문장가들의 시문 현판들이 즐비하게 걸려있다. 영남루 경내에는 단군이래 역대 8왕조 시조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는 천진궁과 아랑의 전설이 서린 아랑각, 이별의 부산정거장, 군세어

라 금순아 등 해방전후 우리가

요계를 이끌었던 대중가

요 작곡가 박시춘 선

생의 생가 등이

자리해

있다.

풍류와

시정(詩情)

이 넘쳤던

영남루를 마지

막으로 6월 테마여행

을 마무리한 정기회

원 가족들은 풍성했던 매실만큼이나 많은 추억거리를 가슴에 담고 부산으로 향했다.

■테마여행 협찬 : (주)레임 투어편

9월 의병의 고장 의령

2009년 9월에는 의병의 고장 의령으로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감 8월 15일)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7월 테마여행 당첨자

신규가입자

김세윤(해운대구 우동)
배영하(수영구 망미동)
신수진(해운대구 반여동)
우귀화(금정구 구서2동)
이 규(남구 용호1동)
장경란(사하구 당리동)
정창숙(연제구 연산9동)
조라경(부산진구 부암동)
최경자(남구 대연1동)
홍동곤(남구 대연5동)

엽서당첨자

김영란(연제구 연산9동)
김정순(남구 대연3동)
김최보리(기장군 대라리)
박미혜(해운대구 우2동)
성외순(남구 대연1동)
유용환(남구 대연4동)
장봉태(동구 범일1동)
제수부(해운대구 좌동)
조종호(부산진구 전포1동)
최정숙(서구 부민3가)



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



정제된 우정과 화려한 무대, 뛰어난 테크닉이 향연!
결혼 해프닝을 둘러싼 스페인풍의 유쾌한 희극 발레!

〈돈키호테〉는 '희극 발레'의 대표작으로 유니버설발레단의 장기인 화려함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선술집 딸 키트리와 이발사 바질의 결혼 해프닝이 주요 스토리. 소설의 주인공인 돈키호테가 발레에서는 두 사람의 결혼을 도와주는 조연으로 나온다. 다채롭고 재미있는 스토리 전개와 스페인 풍의 다양한 춤들로 무궁무진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Don Quix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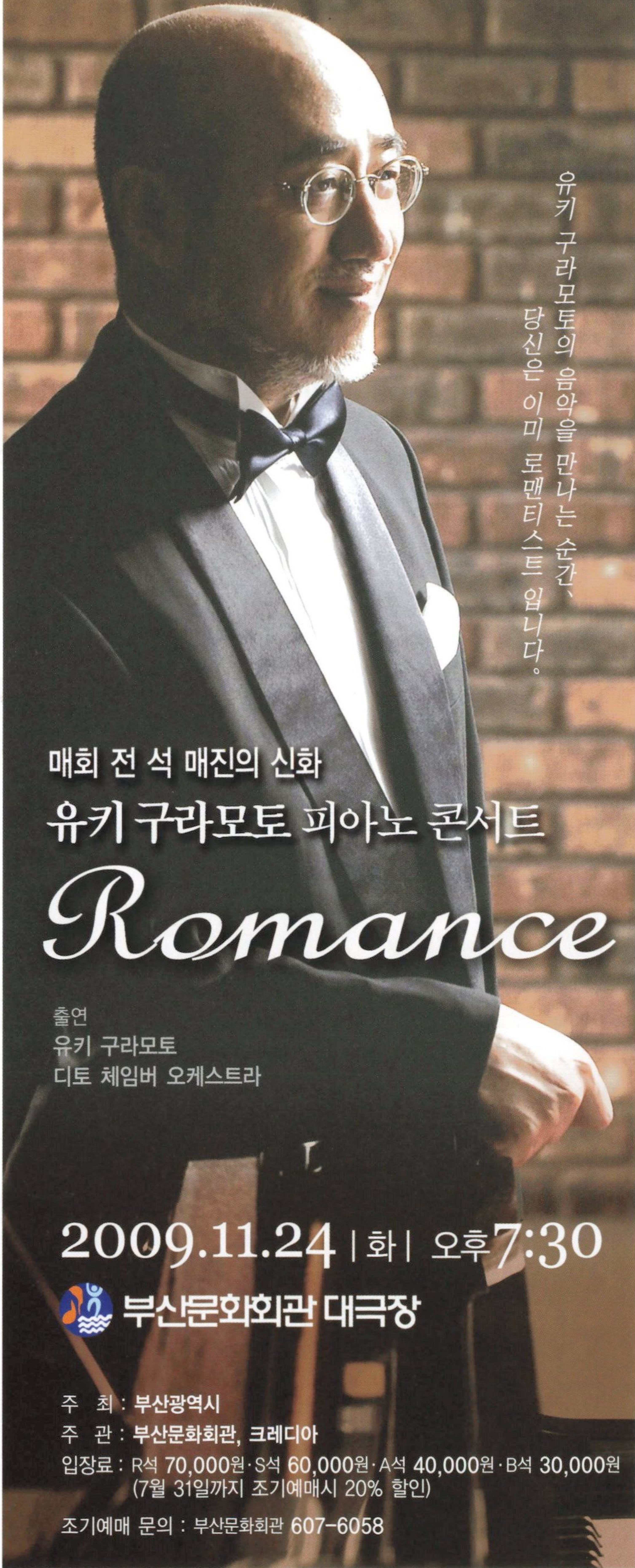
돈키호테

- ★ 본 공연 30분전 객석에서 '문헌숙 단장의 돈키호테 감상법' 과 함께 하세요
- ★ 이해를 돕기 위해 본 공연 중 장면에 대한 **자막 해설**이 제공됩니다.

2009. 10.9(금) 19:30 ~ 10.10(토) 1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티켓 :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할인)
*예매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051)607-6057~8,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051)607-3100



유키 구라모토의 음악을 만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로맨티스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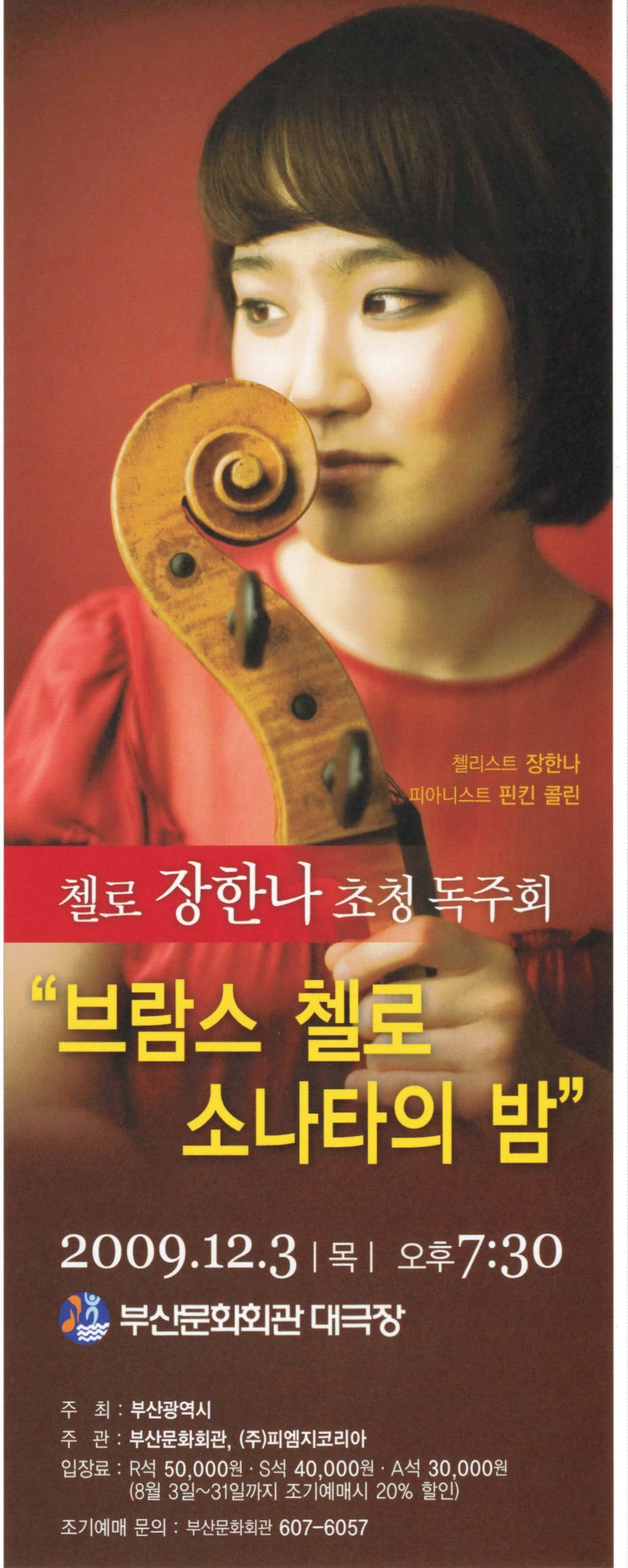
매회 전 석 매진의 신화
유키 구라모토 피아노 콘서트
Romance

출연
유키 구라모토
디토 체임버 오케스트라

2009.11.24 | 화 |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 부산광역시
주 관 : 부산문화회관, 크레디아
입장료 : R석 70,000원 · S석 60,000원 · A석 40,000원 · B석 30,000원
(7월 31일까지 조기에매시 20% 할인)
조기에매 문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8



첼리스트 장한나
피아니스트 핁킨 콜린

첼로 장한나 초청 독주회

“브람스 첼로
소나타의 밤”

2009.12.3 | 목 |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 부산광역시
주 관 : 부산문화회관, (주)피엠지코리아
입장료 :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 A석 30,000원
(8월 3일~31일까지 조기에매시 20% 할인)
조기에매 문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7

하나투어 예약센터 Hi!하나

부산문화회관 21주년 기념 정기회원 특별 혜택

해외여행행비 5% 할인받으세요!!

하나투어예약센터 Hi!하나로 예약확정 하실 때 특별혜택을 드립니다.
전국 대표전화 1544-1759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부산문화회관 테마여행 협찬사 Hi!하나

www.hihana.co.kr

NA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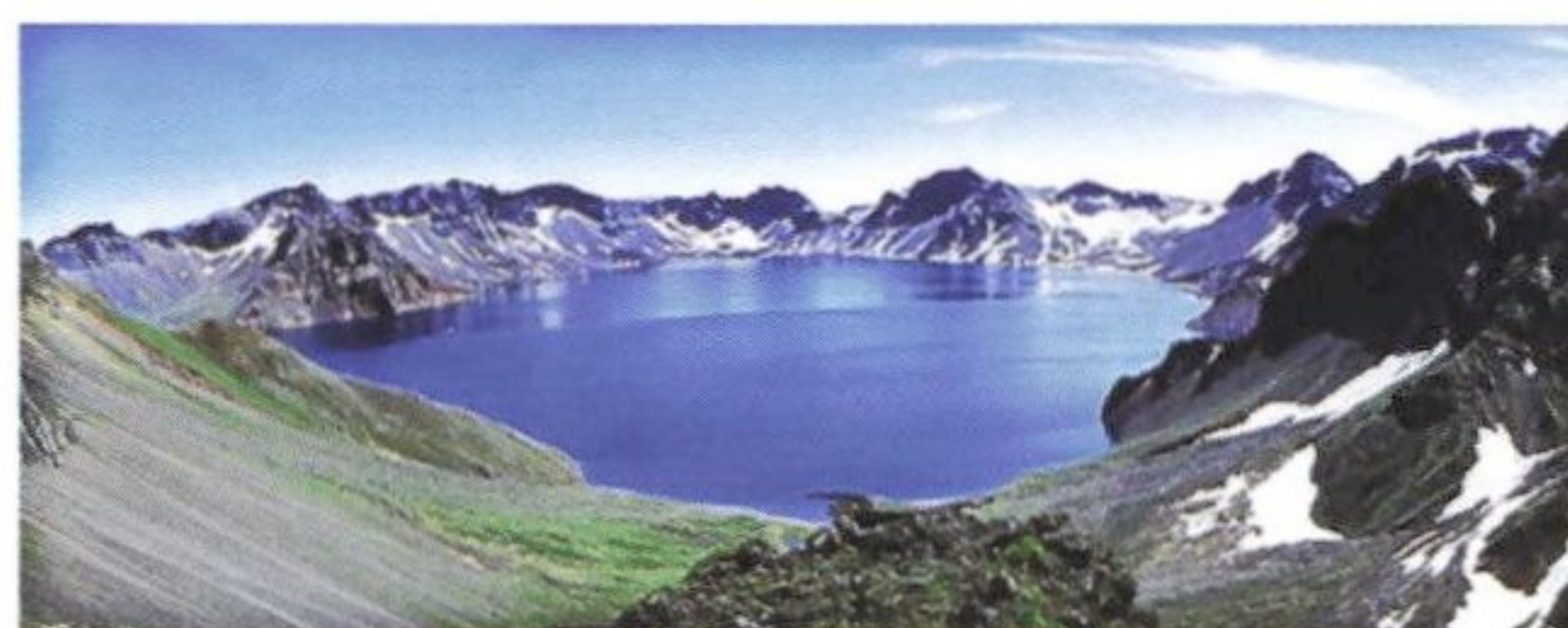
하이하나

부산 직항 백두산여행

겨레의 영혼이 살아
숨쉬는 백두산, 고구려



부산 - 심양직항
심양/백두산/고구려탐방/단동 5일
CNP787 669,000원~



부산 - 연길직항
백두산 서파/북파/연변일대 5일
CNP769 849,000원~



부산 - 북경직항
북경/만리장성/백두산 5일
CNP750 899,000원~

BEST 인기여행

여행전문가가 추천한
인기상품 모음전



한국과 일본의 조화
대마도 자연, 역사 탐방 2일
JKP788 219,000원~



파워특가
마닐라/보라카이 5일
APP711 599,000원~



대한항공 취항특가
(취항기념 특가) 세부 6일
APP754 599,000원~

낭만특가 유럽여행

함께가서 좋고 특가
라서 더 좋은 여행



부산출발
러시아 핵심 관광 6일
ERP731 1,690,000원~



동서 문명의 하모니
터키 일주 8일~9일
EMP357 1,690,000원~



부산출발
동유럽 4개국 (독일항공연합) 8일
EEP742 1,890,000원~

지상낙원 휴양여행

가족 휴양여행의
파라다이스로 레츠고!!



여성 5%할인
사이판 '월드리조트 + 디너쇼' 5일
PSP703 899,000원~



아일랜드 호핑
세부 마이크로텔 리조트 4일
APP753 649,000원~



최고급 리무진택
괌 PIC 골드 5일 (부산출발)
PGP710 1,699,000원~

HiHANA
하나투어 예약센터 Hi!하나
하나투어 HANATOUR

부산본점) 051-442-1271 서울점) 1544-1759 대구점) 053-423-1271
마산점) 055-253-1271 울산점) 052-222-1271

전화 상담시 [상품코드]를 알려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화회관 회원님들은 상담시 정기회원임을 밝혀 주시면 5%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문화회관 담당자 : 박상헌 직통전화 070-8270-7774 / 박정하 직통전화 070-8270-2579

전국 대표전화

1544-1759

www.hihana.co.kr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7월 4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 프로그램

현악합주 '수요남곡' (가야금/송영남, 오은영, 윤경선, 김지원 · 거문고/엄애리, 이대하, 박하혜, 전해정 · 양금/장미진 · 장구/이장우)

해금중주 '불노하' (해금/윤해승 · 가야금/윤경선)

대풍류(대금/최재호 · 피리/권미정, 진형준 · 해금/방병원 · 장구/송강수 · 좌고/최오성)

흥겨운 민요(민요/박성희, 정선희 · 대금/최재호 · 피리/박순자 · 해금/김소현 · 아쟁/최영훈 · 가야금/정미자 · 거문고/오상훈 · 장구/신문범)

사물놀이(팽과리/이주현 · 장구/전학수 · 징/최오성 · 북/신문범)

※해설 : 백규진

7월 11일 토요일 오후 4:00

남산놀이마당 '길 곳'



1992년 '굿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열기 위해 젊은 풍물인들이 모여 창단한 남산놀이마당은 전 단원이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 11-가호 진주 · 삼천포농악의 이수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문화의 현대화 작업을 위해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창작활동(창작타악, 퓨전타악)을 펼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실험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 프로그램

길놀이 - 비나리 - 삼도사물놀이 - 봉산탈춤 - 사자탈춤 - 판소리 - 풍물판굿

· 연출/장재희

· 출연/임채련, 이우창, 조대일, 방형웅, 김대길, 한상훈, 서영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4:00

한국무용협회 공연

▣ 프로그램

산조춤(춤/하선주, 남선주)

품바(출연/이화성)

경남무형문화재 제21호 진주교방굿거리춤(출연/김정원, 김민경, 김경아)

Crying(출연/박근영, 서한나, 이정민, 박재현)

태평무(출연/김정원, 김민경, 김경아)

모듬북 한마당춤(출연/구지혜, 신영지, 이남정)

7월 25일 토요일 오후 4:00

서울전통타악진흥회 연주회



2004년 결성된 (사)부산서울전통타악진흥회는 우리 고유음악의 아름다움을 연구하고 지키며, 그 아름다움의 깊이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프로그램

사물놀이(출연/이봉우, 이경희, 장주영, 권보름, 최정욱, 권두술, 박민지, 강우담)

원장현류 대금산조(대금/신기범 · 장구/신문범)

소리북합주 '고성' (출연/이봉우, 이경희, 장주영, 권보름, 최정욱, 권두술)

판소리(소리/박성희 · 고수/신문범)

장구합주 '다드리' (출연/이봉우, 이경희, 장주영, 박소희, 권보름, 최정욱, 권두술)

※해설/박성희 ※스텝/최백송, 이우경, 방지혜, 신정현, 김인균, 정유진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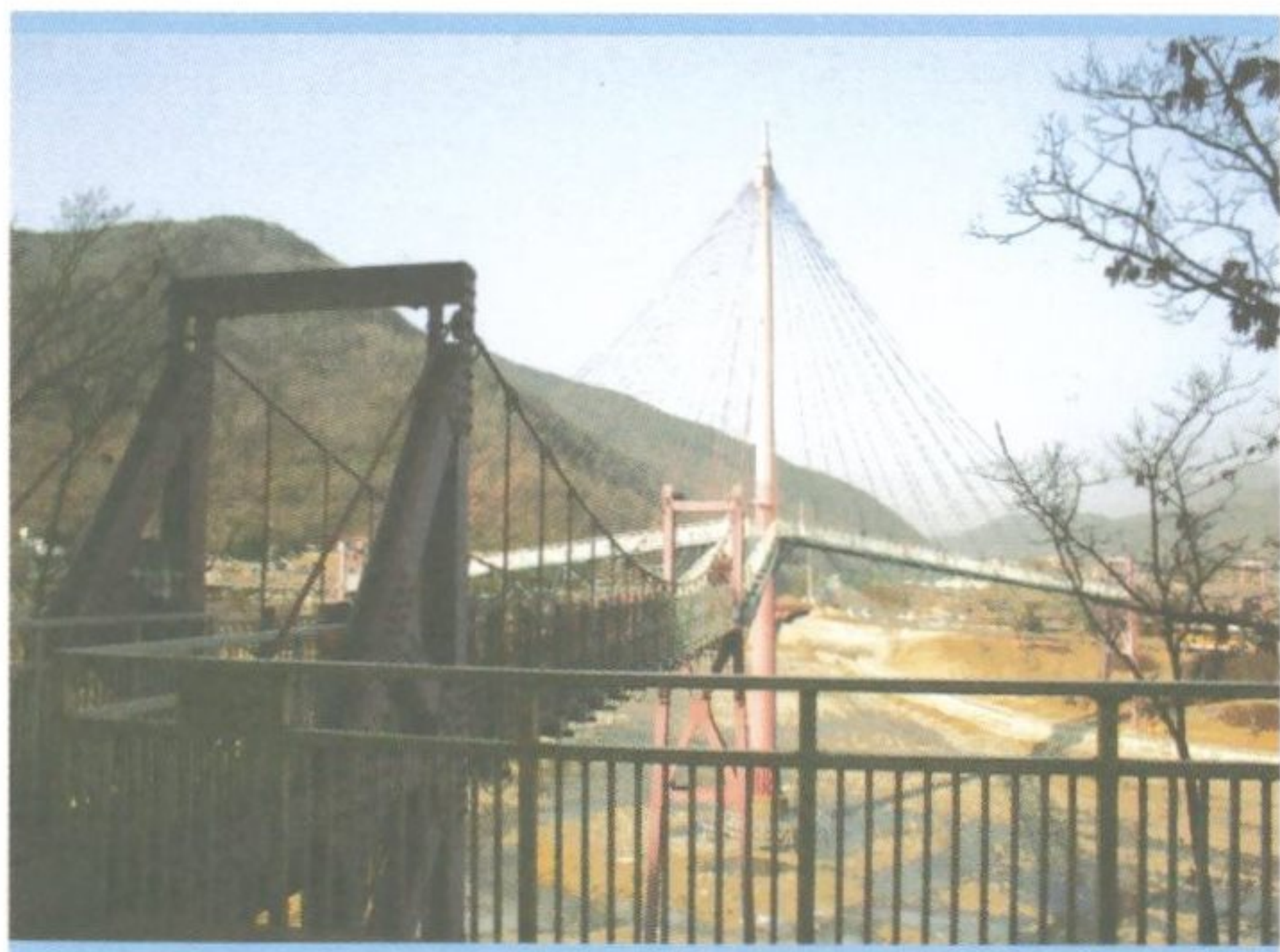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2009년 8월 14일(금) 여름방학 특별기획 기차 타고 떠나는 청도 여름 여행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청도의 여름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복숭아 따기 체험을 시작으로 청도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청도읍성, 청도의 정신이 담긴 자계서원, 청도 팔경의 하나인 유호연지를 방문, 방학을 맞은 가족들과 함께 역사탐방 시간을 갖는다.

- ▷ 08:30 부산역 집결
- ▷ 09:10 부산역-무궁화호 출발
- ▷ 10:10 청도 도착, 복숭아 따기 체험
- ▷ 12:30 중식
- ▷ 13:30 자계서원, 청도석빙고, 청도읍성, 유호연지 등 청도문화유적지 탐방
- ▷ 15:30 아트갤러리 청담 도착, 전시 관람
- ▷ 16:00 찾아가는 예술단 음악회(출연/부산시립교향악단)
- ▷ 17:00 청도역으로 이동
- ▷ 17:30 부산행 기차 탑승
- ▷ 18:58 부산 도착 후 해산



▶ 2009년 9월 11일(금) 의병의 고장 의령, 의병 유적지 순례

임진왜란 때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켰던 망우당 객재우 홍의장군과 17장령의 숭고한 정신이 살아있는 의병의 고장 의령으로 떠나는 가을여행. 의병의 발자취가 서려있는 남강을 따라 의병 전적지를 뗏목으로 탐사하며 호국정신을 함양한다.

-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00 의령도착, 충익사, 정암진, 객재우 생가 탐방
- ▷ 12:00 중식
- ▷ 14:00 뗏목 탐사(장박교→화룡정)
- ▷ 17:00 부산으로 출발

※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 테마여행 응모방법 8월 테마여행은 열차 예매관계로 엽서 추첨일정을 앞당겨 6월 11일 추첨을 완료하였습니다. 9월 테마여행에 참가하실 분은 <예술에의 초대>에 있는 응모엽서를 작성하여 8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 한달동안 신규가입한 회원 중에서도 10명을 추첨, 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주)레임 투어편(1544-2579)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 □ □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예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 □ □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예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Since 1981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뮤지컬 러빙유

10% 할인



2009. 6. 26(금)~7. 26(일)

평 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 입장권 : 균일 25,000원

▶ 장 소 : BS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 문의 및 예매 : 1588-2757

※ 쿠폰소지회원에게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세계문화체험 중심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통합입장권 특별할인**

(전망대+세계민속악기 박물관

: 대인 5,500원, 소인 4,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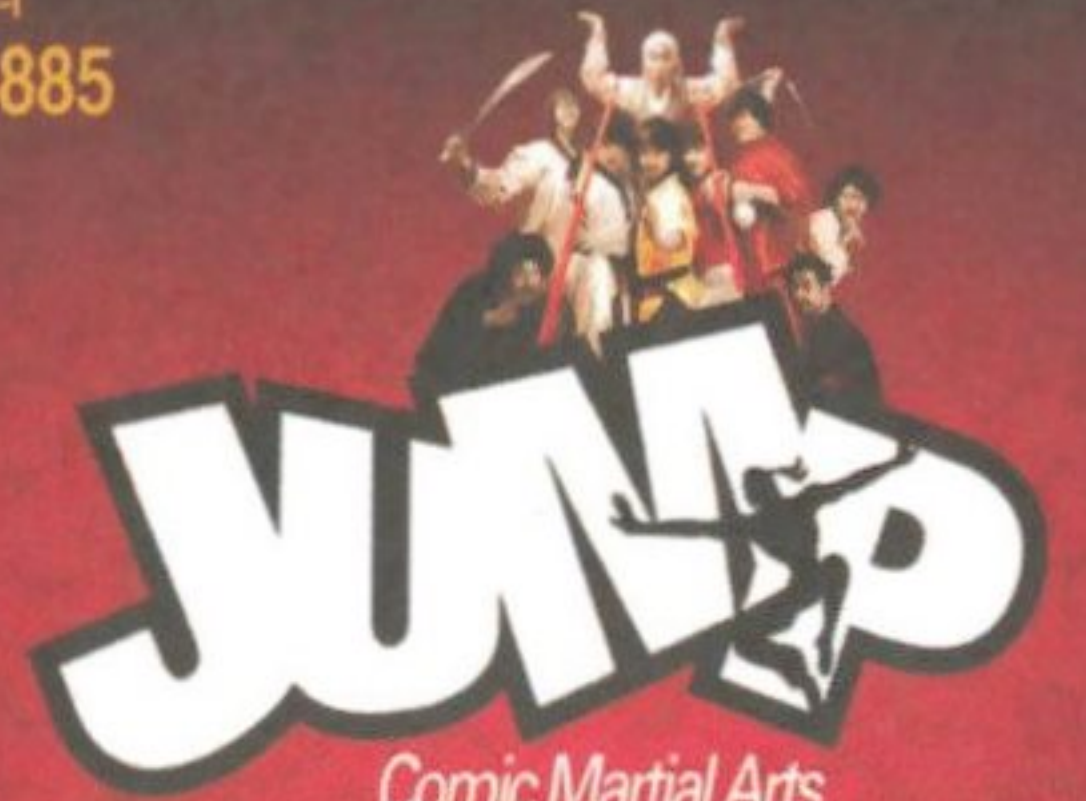
▶ 날짜 : 2009. 1. 1(목)~12. 31(목)

▶ 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마지막 입장 오후 5시 30분)

혜택 쿠폰제시 시 통합입장권에 한해 1매 2인 까지 20% 할인

부산타워 상담전화 ☎ 245-1066

예매 및 문의
051) 744-4885



점프 20% 할인

화~금요일 20시 / 토요일 16시, 20시 / 일 · 공휴일 15시, 18시

IBK Home (해운대그랜드호텔 B1) 50,000원(R석) / 40,000원(S석)

* 쿠폰제시 시 1매 4인까지 할인 가능 * 전화 및 현장 예매 시 할인 가능 * 타 쿠폰, 할인카드 중복사용 불가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특별한 혜택

“당신의 피부속을 진단해 드립니다”

맛사지 무료체험권

DR▲QU

* MBC / SBS / KBS 방송사에서 방영된 놀라운 피부혁명*

여드름 / 기미 / 아토피 / 잔주름 / 검버섯

닥터▲큐 남천점 Tel. 622-6901

지하철 남천역 4번출구 동해빌딩 4층 * 방문시간 사전 예약제 실시*

레스토랑 모짜르트

예약문의, 051-622-1456
부산문화회관 영빈관 맞은편 1층
리셉션·생일잔치·각종모임 예약 받습니다.
(10인~100인)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원명
- 연락처 · 자택 ·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 이름
 - 주소
 - 연락처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퍼즐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 이번호에서 유익했거나 재미있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빛 갚는다
?!

NO

광고하나로 천냥 빛 갚는다!!

효과있는 광고로 당신의 근심, 걱정을 날려 보내 드립니다

제 작 / 각종 프로모션, 홍보부스, 영상물, 사인물 등
광 고 / 지하철, 신문, TV, 라디오 등
디자 인 / 편집디자인, CI, BI등

원칙에 충실한 광고회사 ANK
TEL : 051.755.3002 웹하드 : ankokok / ankokok
담당 : 김민걸 011.9208.1671

4th **B**usan **I**nternational **K**ids' **F**ilm **F**estival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Biki

Busan International Kids' Film Festival 2009

온 세계 어린이, 온 세상 내 친구!
KIDS ALL OVER THE GLOBE. MY FRIENDS ALL OVER THE WORLD!

2009년 8월14일(금) - 18일(화)

MBC롯데아트홀, 롯데시네마 센텀시티점, 시청자미디어센터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팝음악 평론가 임진모와 함께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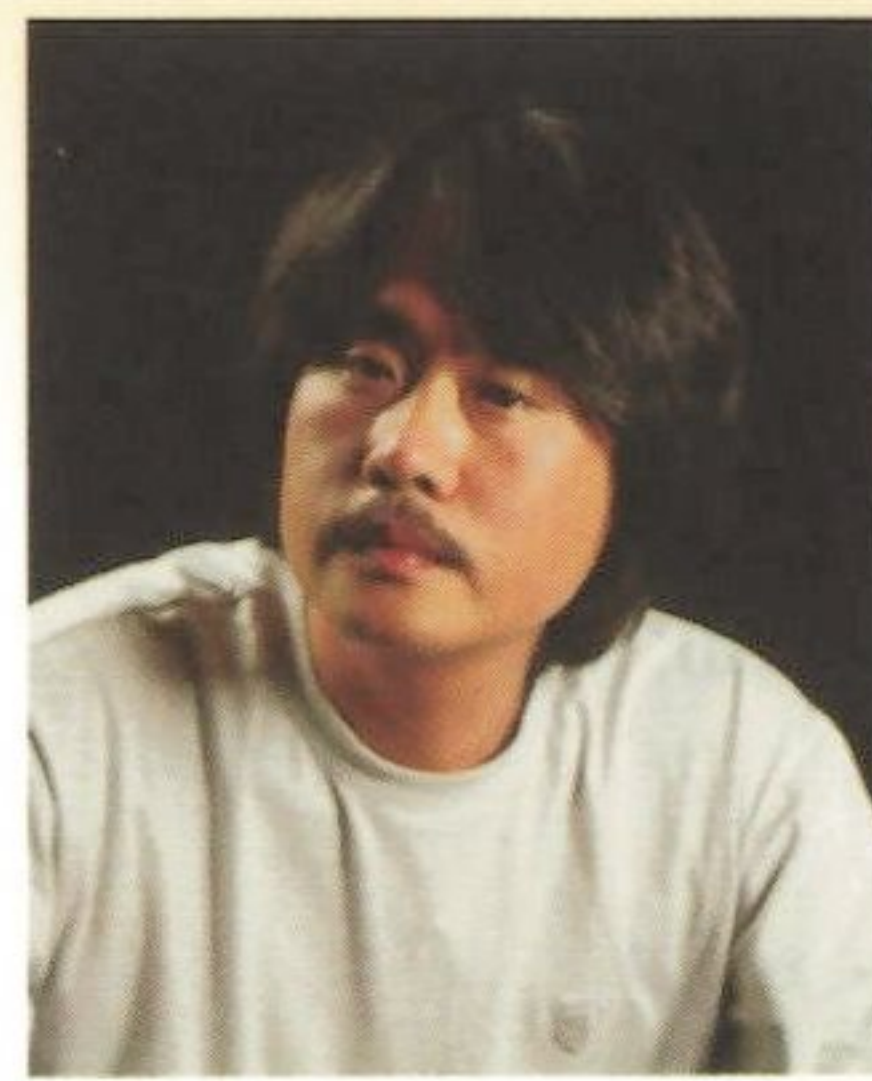
POP

“이야기가 있는 POP합창”

지휘 김강규
(예술감독 겸 수석지휘자)



해설 임진모
(팝음악평론가)



재즈피아니스트
연관호

협연 재즈피아니스트 연관호 콰르텟
드럼 김진훈

2009. 7. 18 (토)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후원 Focus THE DAILY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607-3100 부산시립합창단 607-3141 www.bschorus.or.kr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ulture.busan.kr ticketlink www.ticketlink.co.kr 콜센터(1588-7890) BS 부산은행